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창조에 관하여
- 켈틱영성입문 -

(The Book of Creation - An Introduction to Celtic Spirituality 論文翻譯)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한영과

신강협

2014 年 2 月

창조에 관하여

- 켈틱영성입문 -

(The Book of Creation - An Introduction to Celtic Spirituality 論文翻譯)

指導教授 김 재 원

신 강 협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4 年 2 月

신강협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인)

委 員 _____ (인)

委 員 _____ (인)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2014 年 2 月

The Book of Creation

- An Introduction to Celtic Spirituality -

Shin-Kang Hyob

(Supervised by Professor Kim-Jae W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2014.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생명의 리듬]

창조에 관하여

- 켈틱 영성 입문 -

J. 필립 뉴웰(J. Philip Newell)

목 차

들어가며	1
머리말	3
첫째 날 : 하느님의 빛	13
둘째 날 : 하느님의 야생(野生)	26
셋째 날 : 하느님의 다산(多産)	39
넷째 날 : 하느님의 조화(調和)	51
다섯째 날 : 하느님의 창조성(創造性)	64
여섯째 날 : 하느님의 모상(模像)	77
일곱째 날 : 하느님의 고요	92

저자 소개

목사 J.필립 뉴웰은 1953년 캐나다에서 출생하였고, 영국(England) 포츠머스 (Portsmouth) 성공회 교구의 영성 담당이다. 그는 아이오나(Iona) 수도원장이자 에든버러(Edinburgh)의 성 자일스(St. Giles) 주교좌성당에 봉직하는 스코틀랜드 교회 성직자이다. 에든버러 대학에서 그의 박사 논문은 스코틀랜드의 영성에 관한 것이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서양을 접하는 양대륙에서 켈틱 전통의 회복에 관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는 포츠머스에서 아내 알리슨, 네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 성서 구절의 번역은 「공동번역성서」(대한성서공회 1999년 개정판)'을 따른다. 그러나 신약성서의 구절은 가능한 한 「한국가톨릭 200주년기념 신약성서」 번역본(1997)을 따른다.

*** 저자의 성서구절은 「New Revised Standard Version(NRSV)」 1989년 판에서 인용되었다.

들어가며

창조에 관한 나의 맨 처음 기억들은 주로 빛에 관한 것들이다. 그것들은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북부 캐나다의 호수들 위에서 반짝이던 빛이나 호수 위에 비친 밤하늘의 투명함 같은 내 기억들의 만화경 속에서 떠오른다. 나는 종종 태양이 빛은 빛깔이나 어두움 속에서 내 눈 앞으로 쏟아져 내리는 별빛에 매료되어 앉아 있곤 했다. 그런 기억 안에서 내가 특별했다고 믿지도 않고, 그런 흐름 속에서 야생이 반드시 깊은 감동을 준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도시에서도 나는 차량의 금속성 크롬 도금에서 반짝이는 그리고 내 아이들 방 창문에서 아른거리는 빛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사실, 중요한 것은 창조 안에서 빛에 관한 경험은 보편적 선물이어서 이런 기억들이 별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이점이 바로 영성에 있어서 켈틱 전통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이다. 그 영성의 출발점은 다른 무리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한 무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다. 나의 스승인 노엘 오도노휴(Noel O'Donoghue)는 종종 ‘한 처음 선물이 있었고, 그 선물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그 선물은 하느님이었다’ 라고 말하곤 했다. 켈틱 전통에서 창조의 선물은 본질적으로 하느님의 자신을 내어줌이다.

이 책을 쓰면서, 나는 지속적인 선물과 그 선물을 함께 나누어온 사람들에 대한 내 경험들을 기억해냈다. 그냥 내가 알고 있고,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들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모르지만 대지로부터 솟아오르는 아침 햇살 같이 터져 나오는 빛깔들을 나와 함께 맞아들이는 사람들도 생각하는 것이다.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동안 그 창조의 선물은 무시되고 고통으로 가려져 있지만, 그 선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

내가 특별히 감사를 드려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다. 스코틀랜드 시인인 케네스 화이트(Kenneth White)의 시는 불과 몇 년 전에야 접했지만,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누군가의 가장 깊은 직관을 말로 표현하는 시를 발견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가 펠라기우스(Pelagius)와 에리우게나(Eriugena)와 같은 켈틱 스승들에 대해 그 진가를 너무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나에게 켈틱 전통의 풍요로움을 재발견하고 알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확신케 하였다.

늦었지만, 몇 해 전 에든버러(Edinburgh)에서 켈틱의 스승인 알렉산더 스콧(Alexander Scott)에 관해 박사논문을 진행하는 동안 많이 도움을 주었던 엘스벳(Elspeth)과 고든 스트라칸(Gordon Strachan)에게 감사를 전한다. 이 책의 내용은 창조의 신비로 통합되는 영성의 재발견에 관한 스콧의 기여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뿐이다. 20년 넘게 스코틀랜드에서 그런 영성의 발견에 앞장서 온 고든과 엘스벳은 줄곧 그러한 점을 인정하였다.

이 책을 엮는 작업에 많은 포츠머스 교구 신자들이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 특히, 이 소재의 최초 '시범 운영'된 성 토마스 주교좌성당의 주의 공현대축일(the Epiphany)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주교좌성당에서 나는 묵상들과 길 건너편 술집에서 계속된 토론들은 그 과정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주임 사제와 교구사제단의 넉넉한 지원과 성당지기들의 상상력에 감사드리며, 주교좌성당 동쪽 편에서 열린 행사들은 꼭 들어맞았다.

특히 캔터베리 출판사의 “삶의 리듬(Rhythm of Life)” 시리즈 중 이번 편을 써달라고 요청해 주신 그레이엄 채드윅(Graham Chadwick) 주교님께 감사드린다. 주교님의 뛰어난 능력 중 하나는 저항하기 힘든 설득력을 가지고 부드럽게 요청하는 것이다. 솔즈베리(Salisbury)의 새롬대학(Sarum college)에서 그리스도교 영성을 위한 연구소 소장으로서 몇 년의 재임기간동안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 남부 잉글랜드에서 영성을 위한 중요한 자원들이 창출되었다. 그 분은 다른 이들에게 쓰라고 하고 말하라고 요청한 것들을 고맙게도 그분의 삶 안에서 실천해 주셨다.

내 삶에서 무엇보다도 창조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내 아내 알리슨(Alison)은 중대한 역할을 해주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나는 내가 탐구하는 이 새로운 관점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다른 방식이었지만, 아내가 이미 도달해 있었음을 깨달았다. 종종 그런 그녀의 영향력을 깨달을 때면 나는 고마운 마음이 든다.

J. 필립 뉴웰.

성 요한의 집에서(St John's House)

1998년 6월.

머리말

스코틀랜드 시인 케네스 화이트는 그의 시 ‘헤리스에게서 온 편지¹⁾’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내가 그 책을 펼치자
말씀들이
책에서 날아올랐다.

그가 언급하고 있는 책은 창조이다. 한 켈틱 스승이 말씀 하듯이, 그 책은 ‘하느님의 말씀하심에 관한 웅장한 장편 책’이다.²⁾ 창조된 모든 것들 안에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창조자가 말씀 하시는 바로 그 장소이다. 서구 그리스도교 유산 안에서, 우리는 성서의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감각을 물려받았다. 하느님의 말씀은 그 말 자체보다 더 깊이 이해되었다. 성서에 기록되었듯이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어떤 양날 검보다도 날카롭고,’ 진리로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다.³⁾ 그런데 창조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런 강조점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켈틱 그리스도교의 영성이 난데없이 튀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영성의 근원은 신약성서의 복음주의자 성 요한의 신비주의에 깊숙이 맞닿아 있고, 심지어 구약의 지혜서 전통에까지 거슬러 간다. 예를 들어 지혜서에서는 우리는 ‘하느님 본성(nature)의 모상으로’ 만들어졌고, 지혜는 ‘존재하는 것의 형상을 만드는 자’라고 말한다.⁴⁾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을 알기 위해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 곳은 우리 자신이나 창조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

1) K. White, 'Letter from Harris', in *The Bird Path* (Mainstream, 1989), p. 118.

2) A. J. Scott, *The Social Systems of the Present Day, Compared with Christianity* (Sherwood, 1841), p. 367.

3) Hebrews 4:12.

4) Wisdom 2:23; 8:6.

고,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의 내면 깊숙한 곳이다. 밭에 묻혀있는 보물과 같이
하느님의 진리가 감추어진 곳이다.

마찬가지로, 성 요한은 ‘한 처음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그 말
씀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⁵⁾ 본질적으로 모든 생명체는 하느님의 표
현이라는 말이다. 우리는 존재하도록 말씀 되어졌다.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결과
적으로 생명의 핵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사랑의 요한’ 또는 ‘사랑하는 요한’
이라고 애정 어리게 언급되는 성 요한에 대한 켈틱 전통의 애정은 그를 최후 만
찬에서 예수께 기대고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이었다.⁶⁾ 그는 하느님의 심장
박동을 듣는다고 한다. 그래서 성 요한은 우리 자신 안이나 모든 창조물 안에서
하느님의 생명을 듣는 상징이 되었다.⁷⁾ 우리가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듣고 있노라
면 우리에게는 마음의 허위와 혼돈, 이기심과 왜곡이 들리겠지만, 모든 것이 존
재하도록 말씀하는 그 거룩한 사랑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

2세기에, 그 이전에 전파된 것이 아니라면, 켈트족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그리
스도교가 등장했다. 현재도 그렇지만, 브리튼과 아일랜드가 그렇게 생각했듯이,
켈트족들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세상의 끝에서 살고 있었다.⁸⁾ 대략 기원전
5세기부터, 초창기 켈트족은 유럽을 가로 질러 소아시아까지 뻗은 제국의 형태
를 지니고 있었다. 서기 1세기 중반, 로마군대가 브리튼의 켈트족 왕국들의 대부
분을 점령할 때까지 로마 통치의 확장은 켈트족들을 서쪽으로 좀 더 멀리 멀리
밀어붙였다. 로마군 내의 개인적으로 개종한 성직자들을 통해 처음으로 그리스도
교가 켈트족들에게 전파 된 것은 아마도 그 로마의 점령기였을 것이다.

그러나 4세기 말까지 켈트 그리스도교는 뚜렷한 특징들을 보이지는 않았다. 켈
틱 전통에서 기록상 첫 스승은 웨일스어(Welsh)로 ‘모간(Morgan)’ 또는 ‘모리엔
(Morien)’으로 번역되었던 펠라기우스라는 이름의 한 수도승이었다. 1500년이
넘게 그의 이름은 ‘펠라기우스주의(Pelagianism)’라는 이단으로 규정되어 왔고,
소위 인간은 거룩한 은총의 도움 없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추정되

5) John 1:1-3.

6) John 13:23.

7) See J.P. Newell, *Listening for the Heartbeat of God: A Celtic Spirituality* (Sherwood, 1841), p. 367.

8) See N. Chadwick, *The Celts* (Penguin Books, 1971), p 51.

는 가르침 때문에 비난받았다. 여러분들이 곧 알게 되겠지만, 펠라기우스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구약성서의 지혜서 전통, 신약성서의 성 요한의 관점과 같이, 그는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강조했다. 집회서(Ecclesiasticus)에서⁹⁾ 혹은 성 요한이 말하듯이, 하느님의 지혜는 ‘자궁 안에서’ 우리와 함께 태어났고, 우리 안에서 그 지혜는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이를 비추는 진리의 빛’이다.¹⁰⁾ 죄는 하느님 모상의 아름다움을 가려 버렸지만 없애 버리지는 못했다. 복음은 우리 인간의 본성 깊숙한 곳에 심어져 있는 하느님의 숨겨진 풍요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졌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은총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한 것처럼 펠라기우스는 잘못 해석되었다. 오히려 켈틱 전통에서 은총과 본성은 둘 다 하느님의 선물로서 찬양되었다. 은총의 선물은 본성의 선물에 관한 본질적인 안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어졌다.

펠라기우스와 히포(Hippo)의 어거스틴(Augustine) 사이의 긴 신학적 논쟁은 결과적으로 펠라기우스의 파문을 낳는데, 로마의 판결 방식이 항상 분명하지는 않았다. 로마의 교회는 인간 본성에 대한 로마교회만의 신학적 이해를 얻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 노력하고 있었다.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죄에 물들어 있다고 선언하는 ‘원죄’의 교리는 그때까지 확정적이지 않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펠라기우스가 로마제국으로부터 추방되고 로마 주교에 의한 파문되었다는 이유로 이 초기 켈틱 스승이 가르치고 있는 것의 가치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에 대한 인상은 그는 단순하게 단 한 번의 이단자였다는 것이다. 사실 그는 초기 브리튼 교회의 영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16세기 로마 교회에 의해서 이단자로 선언된 루터와 마찬가지로, ‘그 이단자’ 펠라기우스는 사실 유럽 곳곳의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성적 인식에 힘을 실어주고, 4세기 브리튼 그리스도교의 발전을 반영하는 영성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펠라기우스의 파문되던 시기에, 로마의 점령군은 유럽 중남부로 밀려오는 야만인들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유럽 대륙으로 철수한다. 로마인들은 그 이후 한 번도 브리튼을 다시 되찾을 수 없었다. 그 결과, 교회의 켈틱 선교와 로마 선교 사이에는 거의 200년간에 걸친 중대한 차이가 생겨났다. 이 시기는 켈틱 영성의

9) Ecclesiasticus 1:14.

10) John 1:1-3.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고, 한동안 브리튼 그리스도교는 상대적으로 로마의 지배에서 자유로웠다. 아일랜드와 브리튼에서 그리스도교로의 대규모 개종이 있었던 5~6세기, 켈틱 선교는 인간의 중심에 있는 하느님의 모상에 대한 켈틱의 강조점과 창조의 본질적인 선에 대한 켈틱의 강한 신념을 유지했다. 이런 특징들과 함께 성직자의 결혼과 여성의 교회 지도층 진출과 같은 것들이 켈틱 전통의 전혀 다른 특징들이 되었다.

같은 시기, 로마 전통은 창조가 본질적으로 손상되었다는 신조(belief)에 따라, 전체 인류의 타락에 관한 어거스틴의 교리를 그 전통의 강조점으로 굳혀 나가고 있었다. 하느님의 은총은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람들의 본성적 선함을 위해 창조와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을 넘어서거나 반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마찬가지로 로마의 선교는 본질적으로 어두운 세상으로 하느님의 빛을 가져오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다른 한편, 켈틱 선교는 성 요한의 신비주의에 따라, 하느님은 ‘생명의 빛’이라는 진리를 강조했다.¹¹⁾ 결과적으로, 참회는 우리 안에 가장 깊숙이 심어져 있는, 어둠이 이겨보지 못한 그 빛으로 돌아서는 것이었다. 로마 선교의 이러한 특징들에 따라, 로마 선교는 사제 독신과 교회 내 지도자 직위에서의 여성 배제에 관한 주장이 완고해졌다.

로마 선교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함께 생각하고, 로마 선교에 지도력을 부여하는 것은 교황으로의 통합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중심으로부터의 일치가 강요되었다. 반대로, 켈틱 선교에서는 중심으로 조직화되는 조직적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례 관습과 수도 규칙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 성 패트릭(St Patric)의 초기 선교에서는 교구모델이 시도되긴 했지만, 그 시기 켈틱 왕국들은 주로 농촌지역들이었다. 도시구조의 미완으로 인해 선교의 교구모델은 잘 운영되지 않았다. 6세기 초까지 켈틱 그리스도교는 그 구조상 전반적으로 수도원 형태를 띠었고, 수도 공동체들의 느슨한 연합형태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수도원은 모원에 순종하는 형태였다. 킬데어(Kildare)의 성 브라이드(St Bride)과 같은 여성들이, 남녀가 함께 수도원 규칙에 따라 공동체적 삶을 추구했던, 많은 ‘공동’수도원(‘double’ monasteries)들의 ‘구성원들’을 통솔하게 된 것은 이런 흐름 안에 가능했다.

11) John 8:12.

켄터베리의 어거스틴의 지도 아래 597년 브리튼을 향한 로마 선교가 시작되었을 때 분쟁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문화의 개화기를 맞이했고, 성 콜롬바(St Columba)와 엄청난 열의를 다른 선교사의 지도 아래 6세기 켈틱 선교는 아일랜드에서 갑자기 팽창하였다. 6세기 후반에 그들의 선교는 린디스판(Lindisfarne)과 아이오나의 거룩한 섬들에서부터 앵글족(Angles)과 색슨족(Saxons)의 남부 왕국들까지 뻗어나갔다. 로마와 켈틱 선교가 만났을 때 심각한 불일치가 발생했다.

겉에서 보면, 드러난 대립은 부활절 기일과 성직자 삭발 양식 같이 피상적인 것들로 보였다. 그러나 보다 깊이 들여다보면, 불화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의 시각에서 생겨났다. 켈틱의 삭발에 관한 로마 교회의 불안감은 그것이 두루이드식(druidic) 삭발 양식이었었기 때문이었다. 전형적인 켈틱 선교는 그리스도교 이전의 자연 신비주의로부터 온 종교적 상징들과 교리들을 축성하는 것이 관례였다. 예를 들어, 콜롬바는 그리스도를 그의 두루이드로 지칭했다. 이와 유사하게, 많은 성지들과 참나무 숲들은 그리스도교 선교를 위한 수도원의 근거지로 탈바꿈했다. 그리스도는 켈틱 브리튼(Celtic Britain)에서 그리스도교 이전에 앞서 온 전통의 지혜를 포함하여 진리인 모든 것들의 성취로 설교되었다.

두 선교의 대립으로 인하여 664년 휘트비 공의회(Whitby Synod)가 열렸다. 켈틱 선교의 대표들은 ‘특별히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 요한의 권위를 빌어 논쟁하였다.¹²⁾ 한편, 로마 선교는 예수가 ‘그대는 베드로(바위)입니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¹³⁾고 하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자’로서 성 베드로의 권위에 호소하였다. 공의회는 켈틱 선교에 반하는 판단을 내렸다.

휘트비의 비극은 브리튼 교회의 영성 안에서 베드로의 방식이 확인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 요한의 방식이 쫓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켈틱 수도원 공동체들은 즉각 베네딕트 수도회들로 대체되었고, 로마로의 엄격한 일치가 강요되었다. 켈틱 공동체들이 밖에서 예배를 드렸던 노섬브리아(Northumbria)의 린디스판 거룩한 섬에 그리고 높이 솟아있는 십자가 주위에 또는 간단한 나무 구조물

12) Bede, *Ecclesiastical History of the English People* (Penguin Books, 1990), p.188.

13) Matthew 16:18.

들 안에 로마 교회의 네 담벼락들이 세워졌다. 이것은 창조의 신비로부터 하느님의 신비를 점점 더 분리하는 종교적 전통의 지배력을 상징했다. 점점 더 ‘거룩한’ 곳은 지구와 바다와 하늘의 성소(聖所)가 아니라 교회의 성소로 규정되었다.

휘트비 칙령은 브리튼 그리스도교의 외형을 갑작스럽게 바꾸지는 않았다. 수백년 동안 로마 선교에 저항하는 고립지대가 특히 데번(Devon)과 콘월(Cornwall), 스코틀랜드(Scotland)에 있었다. 결과적으로 아이오나에 있었던 켈틱 수도 공동체는 13세기 베네딕트 수도원이 세워질 때까지 해체되지 않았다. 저항의 시기는 몇몇 켈틱 전통의 가장 위대한 창조적 업적물에 새겨졌다. 한편에는 「켈스의 서(書)」(The Book of Kells)와 같이 아름다운 도화 복음서와 한편에는 성서의 이미지가 다른 편에는 창조 이미지가 새겨져 높이 솟아 있는 십자가들은 이 시기 켈틱의 예술적 표현의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브리튼과 아일랜드 곳곳에 있는 일반적인 그림들은 로마 선교로의 점진적인 일치를 보여준다.

켈틱 선교의 외형적 구조가 산산조각 나고 있을 때, 예술과 교육의 영역에서 그 전통에 관한 표현의 지속성을 발견했다. 교회의 견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켈틱의 스승들은 곧 공식적인 발상지 교회가 없었던 영성적 진리들에 대한 주요한 대변인이 되었다. 아마도 이들 중 가장 위대한 이는 9세기 아일랜드의 스승인 존 스코투스 에리우게나(John Scotus Eriugena)일 것이다. 그는 하느님을 모든 것들 가운데 계시는 ‘거룩한 생명의 힘’이라고 가르쳤다.¹⁴⁾ ‘그러므로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은 신의 현현(顯現)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¹⁵⁾ 모든 생명은 생명의 본질인 그 분의 무언가를 드러낸다. 그는 하느님의 자기 계시의 두 가지 주요한 유형은 성서와 창조라고 말했다. ‘성서의 서간들과 창조된 생물 종들을 통해’ 영원한 하느님의 빛이 드러난다.¹⁶⁾ 에리우게나 이전과 이후의 많은 스승들처럼, 그는 범신론으로 비난받았다. 결과적으로 그의 저작들은 로마에 의해서 비난받았지만, 그의 죽음이후까지 오랫동안 비난 받지 않았다.

켈틱 영성의 통찰력은 에리우게나의 저작들과 서유럽 곳곳에 있는 무수한 아

14) John Scotus Eriugena, *Periphyseon (The Division of Nature)* (Bellarmine, 1987), 749D.

15) Eriugena, *Periphyseon* 681A.

16) John Scotus Eriugena, ‘Homily on the Prologue to the Gospel of St John’, in *the Voice of the Eagle* (Lindisfarne Press, 1990), p.37.

일랜드 스승들의 업적과 함께 사람들의 기도문들과 시를 통해 아일랜드와 브리튼 안에서 생명력을 유지했다. 그리스도교 이전의 켈틱 문화는 기억과 화술(話術)에 대한 애정이 특징이었다. 그 문화는 내 뱉어진 말들이 물리적인 힘보다 더 큰 힘을 갖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문자사용 이전 문화의 가르침들과 지혜는 운문의 형태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기억되었다. 기억과 화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교 시대에도 계속되었다. 켈틱 선교의 소멸이후, 켈틱 영성의 풍부함은 평신도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구두 전승의 가르침들 안에서 보존되었다. 그것은 마치 영성적 저항 운동과 같았다. 수세기 동안, 한 세대는 초기 켈틱 그리스도교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기도문들을 다음 세대들에 전해 주었을 것이다. 그 기도문들은 일상의 삶에 관한 것이었다. 해가 떠오를 때와 그 해가 졌을 때 또는 매일의 일과와 일상 가운데에서 불리고 찬송되었다. 아이의 출생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임종 때도 암송하였다. 하느님은 모든 생명체 안에 계신 생명으로 찬양되었고, 창조는 하느님이 거주하시는 곳으로 이해되었다.

켈틱 전통은 다시 저항에 부딪혔다. 날이 갈수록 특히 종교개혁 이후 16세기 브리튼에서는 이 기도문들을 암송하는 것에 대한 열의가 꺾였고, 심지어 금지되기까지 하였다. 그 기도문들은 근본적으로 범신론적이고 비기독교적으로 여겨졌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종교적 박해와 더불어 대규모 양 목장을 세우기 위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선조들의 땅에서 쫓아낸 19세기 고지대 소개령(Highland Clearances)이 겹쳐, 켈틱 문화의 파편화와 집단적 기억의 손실을 가져왔다. 구전은 손실되기 시작했다. 스코틀랜드에서 알렉산더 카마이클(Alexander Carmichael)의 「까르미나 가델리카」(Carmina Gadelica)와 아일랜드에서 더글라스 하이드(Douglas Hyde)의 「카노트 왕국의 종교 음악들」(Religious Songs of Connacht)과 같이, 이 기도문들을 기록하고 수집하려는 시도들이 생겨났다.¹⁷⁾ 이러한 기록들은 그 기도문들의 일부를 기록하여 보존 하였지만, 20세기에 이르러 그 기도문들의 생생한 사용법은 사실상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이것이 켈틱 전통의 죽음을 뜻하지는 않았다. 카마이클과 하이드(Hyde)의 작업은 켈틱 예술과 문학을 재생하는 작업의 일부였고, 다른 이들은

17) See A. Carmichael, *Carmina Gadelica* (Constable, 1900); and D. Hyde, *Religious songs of Connacht* (Gill, 1906).

그 전통의 영성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찾고 있었다. 스코틀랜드 소설가인 조지 맥도날드(George MacDonald)는 널리 읽혀진 그의 단편과 장편 소설들 안으로 켈틱 전통의 통찰력을 엮어 넣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그의 스승인 스코틀랜드 신비주의자, 알렉산더 스콧은 켈틱 영성의 창조에 대한 강조점을 원상복구하고 있었고, 그러한 강조점을 19세기 브리튼 그리스도교의 신학으로 통합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창조는 ‘하느님의 빛이 보이는 투명함’이라고 스콧은 말했다.¹⁸⁾ 그는 스코틀랜드 교회로부터 이단이라고 비난받았고, 한 번 더 범신론이라는 비난이 잇따랐다. 그러나 변화는 오고 있었다.

20세기는 켈틱 전통을 점점 더 용인했을 뿐만 아니라, 켈틱영성의 풍부함에 대한 깊은 평가를 이뤄냈으며, 현대를 위한 그 영성의 응용성을 보여줬다. 이런 변화는 교회의 언저리에서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일어났다. 예를 들어, 헤브리디스(Hebrides) 아이오나 공동체(Iona Community)의 설립자인 매클라우드 경(Lord MacLeod)은 그의 영성 안에서 켈틱 신비주의 관점과 스코틀랜드 교회를 위한 깊은 개인적 헌신의 조합을 보여줬다. 그가 그의 기도문들 중에 언급하듯이, ‘모든 창조된 것들 안에, 당신이 거기에 계십니다’.¹⁹⁾ 이것이 그를 창조 신비주의와 생태적 관심에 대한 양식(樣式)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그리스도의 신원(identification)과 스코틀랜드 도시들 안에서의 비폭력과 정의를 위해 헌신케 하였다.

켈틱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현대의 관심 재개는 춤과 음악에서부터 예술과 공예를 넘어 기도문과 시(詩)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이것들 중 일부는 다른 것들보다 켈틱 전통의 역사에 보다 충실하다. 어쨌든, 그것들 대부분은 서구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창조의 신비로 우리의 삶과 우리 영성을 재통합하려는 욕구를 반영한다. 20세기말 가장 위대한 영어권 시인들 중 한 사람인 케네스 화이트는 그의 시에서 이런 욕구를 강렬하게 표현한다. ‘북쪽 도로들, 남쪽 도로들(North roads, South roads)’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그의 여행을 묘사한다.

18) A. J. Scott, *Lectures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Darling 1838), p.7.

19) G. MacLeod, *The Whole Earth Shall Cry Glory* (Wild Goose Publications, 1985), p. 13.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한 덩어리의 수정을²⁰⁾

이것은 서구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과 영성을 동시에 지니는 창조에 대한 완전성을 체험하려는 갈망을 증언한다.

켈틱 영성에 관한 관심의 재개 속에서도 공백으로 남은 내용들 중 하나는 묵상에 관한 명확한 방법의 부재이다. 켈틱 전통은 창조에 관한 숭배의 보편적인 인식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폭넓게 인식된다. 그러나 깨달음에 관한 구체적인 방식들을 제공하는 것에 관해서는 알려지지 않는다. 이 책은 켈틱 영성과 묵상의 실천에 있어서 안내서가 되려는 시도이다. 각 장은 창세기의 창조의 나날들을 되돌아보는 것을 통해 ‘하느님의 현현(theophany)’ 또는 ‘하느님의 드러남(manifestation)’과 같은 창조의 다른 측면들을 탐구한다. 그리고 각 장의 끝에는 창조와 성서를 한 쌍으로 엮은 켈틱 전통의 사랑을 적용하는 묵상 훈련법이 있다. 과거에 그랬듯이, 성서의 책과 창조의 책을 입체적으로 듣는 방식이다.

예전 켈틱 수도원에서 종종 언급되었던 일부 문서들 중에 하나는 카시안(Cassian)의 「담화집」(Conferences)이다. 카시안은 5세기 수도승으로 이집트 사막의 수도원 제도를 연구했고, 초기 사막 교부들로부터 파생된 묵상 방법을 기록했다. 그 방식은 단어나 구절의 반복을 통해 내적 고요가 달성되는 동방 만트라(Mantra) 방식의 기도문과 비슷거나 그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성서는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인 줄 알아라’²¹⁾라고 말한다. 묵상의 모든 위대한 전통들은 좀 더 깨어 있기 위해 고요한 상태가 되는 단순한 방식들을 제시한다. 카시안이 묘사한 방법론은 서구 수도원에 의해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로 알려진 기도문의 수련법으로 각색되었다. 그것은 3개의 부분, 성서에서 말씀을 상기하기, 고요한 상태가 되는 방식으로 그 말씀을 되풀이하기, 그런 다음 마음으로부터 오는 기도문을 봉헌하기로 이루어진다.

켈틱 전통에서 카시안의 방법론은 창조의 책뿐만 아니라 종교 서적에도 적용될 수 있다. 각 장 끝, 묵상 훈련의 부분에서는 성서에서 온 단어뿐만 아니라

20) White, ‘Poem to my Coat’, in *The Bird Path*, p. 111.

21) Psalm 46:10.

창조로부터 온 이미지들을 상기한다. 내면에서의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반복은 사고보다 더 깊은 수준에서 고요에 잠기고, 주위에 세밀히 귀 기울이는 방식이다. 케네스 화이트는 생명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마음의 옷들을 벗기
그리고 사랑하기
현실의 실체를²²⁾

나의 소망은 이 책이 우리 사고와 우리의 창조성을 풍요롭게 하고, 좀 더 중요하게는 우리 서로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비를 풍요롭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것이다.

감사의 말

성서구절은 New Revised Standard Version(NRSV) 1989년판에서 인용하였다.

다음의 출판물에서 발췌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Kenneth White, *The Bird Path: Collected Longer Poems*, Mainstream Publishing, 1989.

John Scotus Eriugena, *Periphyseon (The Division of Nature)*, Editions Bellarmin, 1991.

B.R.Rees (ed.), *The Letters of Pelagius and his Followers*, Boydell Press, 1991.

22) White, 'The House of Insight', in *The Bird Path*, p. 141.

첫째 날 : 하느님의 빛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창세기 1:3)

9세기 켈트족의 스승, 존 스코투스 에리우게나는 창세기에서 창조이야기의 ‘첫 일’에 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창조이야기는 지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연대기적인 설명이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 창조 신비에 관한 묵상이라고 가르쳤다.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생명의 핵심에 빛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생명이 시작되는 본질 또는 중심이 빛이라는 인식에서 빛은 창조의 시작이다. 생명이 있는 모든 창조물의 중심에는 하느님의 빛이 있다. 이것이 켈틱 전통의 근본적인 신념이다.

제4복음서의 저자 성 요한은 이 빛을 ‘생명의 빛’¹⁾ 또는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이들을 일깨우는 빛’²⁾이라고 설교하는 방식을 취한다. 어떠한 것도 이 빛과 떨어져서 생명을 얻을 수는 없다. 창조된 모든 것에는 이 빛이 서려있다. 그 빛은 아침 해의 광채와 밤 달의 순백 안에 있다.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들 안에서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의 눈에서 빛나는 생명 안에서 그 빛이 드러난다. 그렇다고 우리의 내면과 창조 전체의 내면 깊은 곳에 지독한 어둠이 없는 척하지는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빛은 보다 더 깊은 곳에 고요히 있고 그 빛은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발산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에리우게나는 피조물의 상호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생명에 관한 근대 과학적 이해에 앞선 방식으로서 모든 창조물이 함께 창조되었다고 이해했다. 그는 당연히 모든 것들이 즉시 눈에 보이게 되었기보다 오히려 모든 생명이 ‘첫째 날’의 그 빛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하느님은 빛의 웅덩이에서 지구의 온갖 생명들과 생물종들의 진화를 끌어냈다. 창조의 아주 시작부터 우리와 모든 생명은 출현 시기를 기다리는 ‘본성의 비밀스런 층위’에 감춰져 있었다고 에리우게나는 말한다.³⁾ 바꿔 말하면 그 첫째 날의 빛은 우리의 생명과 모든 생명의 근원

1) John 8:12.

2) John 1:9.

이다.

이 이해는 우주 탄생 초기에 폭발한 물질의 최초 입자가 앞으로 생겨나게 될 모든 것을 포괄한다고 여기는 새로운 물리학의 양상들과 견줄만하다. 한 현대 물리학자는 최초의 순간에 관련된 설명으로서 수백만 년에 걸친 우주의 팽창을 묘사한다.⁴⁾ 켈틱 전통의 모든 발달 단계에서 켈틱의 특징인 에리우게나의 관점은 모든 생명이 과거와 현재,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들의 상호 엮임이라는 것이다. 한 생물종의 생명이 다른 종의 생명에 상호의존적일 뿐만 아니라, 창조라는 천은 하느님 빛을 실 삼아 짜여졌다는 것이다. 마치 실크로 촘촘히 짜인 천과 같다. 만약 어떻게든 이 실을 제거한다면, 전체 창조는 흐트러져버릴 것이다.

에리우게나는 원의 중심에서 뻗어 나오는 선들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한 선이 중심점에서 더 멀리 뻗어나갈수록 그 선은 좀 더 분기한다. 그 선의 시작점으로 돌아가기 위해 각각의 반경을 밝혀내는 것은 어쨌거나 공통기원의 지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의 핵심은 하느님의 빛이다. 우리가 어떤 다른 창조물의 관계로 깊숙이 다가가면 갈수록, 우리는 중심에 있는 ‘신성한 광채’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다.⁵⁾ 온갖 종류의 혼란과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 그 빛이 가려져있을지도 모른다. 죄와 고통의 어두운 가닥들이 창조계 안으로 깊이 들어왔지만, 그 창조의 핵심에는 어둠이 넘어서지 못한 ‘광채’가 남아 있다. 이 빛은 우리 내면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존재들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연결되기를 요구한다.

훨씬 나중에 켈틱전통에서 현대의 아이오나 공동체 설립자 조지 매클라우드는 그리스도를 ‘단지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물질세계에 있어서도 생기가 넘치는 존재로’ 언급했다.⁶⁾ 이것은 이원론적으로 물질로부터 영혼의 분리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또한 보이는 생명과 보이지 않는 생명, 둘 다의 본질이 하느님의 빛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수세기에 걸쳐 지속된 켈틱 전통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듯이, 이 주장은 지구의 실체에 관한 문제이든지 또는 여성들과 남성들, 인간공동체의 실체들에 관한 문제이든지 간에, 창조에 관한 문제에

3) Eriugena, *Periphyseon* 445D.

4) D.Bohm, *Wholeness and the Implicate Order* (Ark, 1990).

5) Eriugena, *Periphyseon* 681B.

6) R. Ferguson(ed.), *Daily Readings with George MacLeod* (Fount, 1991), p. 68.

대응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20세기 생태적 인식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우주의 물리적 가닥들을 엮은 것이 태초에 있었던 그 빛이었기 때문에 켈틱 전통은 조지 매클라우드에게 ‘물질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행하는 것과 우리가 우주에게 행하는 것 모두가 영성의 그런 부분이다.

지구와 관련된 저작들 또는 ‘지구 시학(geopoetics)’이라는 것으로 알려진, 켈틱 시인 케네스 화이트는 ‘순백(whiteness)’은 실존의 핵심에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말하길, ‘자작나무 껍질무늬 같이’ 또는 ‘과형 같이’ 창조 안에 쓰여진 것이 순백이라고 말한다.⁷⁾ 그 빛은 땅과 바다와 하늘의 생명 안에서 반짝인다. 그 빛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만큼 우리는 그 빛을 보지 못하거나 그 빛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단절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 빛은 계속 빛나고 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이 지속되는 ‘불꽃 심지(the fire body)’이다.⁸⁾

첫째 날의 빛은 당연히 넷째 날의 빛과 혼동되지 않는다. 하늘과 태양, 달과 별들의 위대한 발광체들은 태초의 빛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지구의 땅과 물과 창조계 역시 그렇다. 첫째 날의 빛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맹렬한 힘’이라고 에리우게나는 말한다.⁹⁾ 불타는 태양의 아침 햇살이든, 어두운 대지에서 자라나는 해바라기의 노란 광채이든 또는 깊은 바다 속에서 드러나는 불가사리의 불빛이든 간에, 모든 생명은 이해하기 힘든 하느님의 빛으로부터 나온다. 조지 매클라우드가 이야기하듯이, 모든 생명들 안에 빛이거나 ‘모든 태양들 너머에 있는 태양’이다.¹⁰⁾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인간의 생각이나 상상으로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화이트는 말하길, 모든 생명의 핵심에 있는 그 빛을 상상하는 것은 우리를 ‘표징들 너머로’ 데려간다,

태양이 아닌
그 빛으로¹¹⁾

이제 우리는 에리우게나가 명명한 ‘어두움’ 또는 하느님의 빛의 불가지(不可知)

7) White, 'The Chaoticist Manifesto', in *The Bird Path*, p. 225.

8) White, 'The House of Insight', in *The Bird Path*, p. 143.

9) Eriugena, *Periphyseon* 697B.

10) MacLeod, 'The Glory I the Grey', in *the Whole Earth*, p. 13.

11) White, 'The Region of Identity', in *The Bird path*, p. 99.

로 인도된다.¹²⁾

19세기 켈틱 스승인 알렉산더 스콧이 말했듯이, 모든 것들 안에 있는 하느님의 빛은 단지 ‘밝음’일 뿐만 아니라 ‘경외감’이기도 하다.¹³⁾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서 그 빛의 어둠에 잠겨있는 자궁 같은 곳에서부터 비롯된다. 우리는 태양이나 달의 빛 안에서 그 빛을 느끼거나, 열정과 창조로 우리를 이끄는 우리 내면에서 그 빛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빛은 보이거나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에리우게나는 ‘그 거룩한 어둠은 모든 지성을 탁월하게 만든다’고 말한다.¹⁴⁾ 그 빛을 정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서구 종교전통에서 복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창조의 세계에 충만한 하느님의 빛의 영광에 대한 예민한 인식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가 알 수 있거나 응시할 수 있는 모든 것 너머에 있는 실체로부터 드러나는 항상 깨어있음이다.

하느님은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지만, 모든 것들 안에서 당신 자신을 보여준다는 에리우게나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 긴장은 켈틱전통에서 유지되었다. 그 분은 ‘없음’이라는 인식 안에 존재하지만, 모든 것들 안에서 그 분 자신을 보여준다.¹⁵⁾ 바람의 기운 안에서, 대지로부터 자라는 것들의 선함 안에서, 물의 빛 안에서, 꿈의 거친 으르렁거림 안에서, 아이의 순결한 아름다움 안에서, 하느님은 그 자신을 드러내신다. 스콧이 말하듯이, 그 분은 ‘모든 존재가 의지하는 존재이다.’¹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결코 알 수 없다. 그분은 항상 그 바람과 그 물 이상이고, 그 꿈과 그 아이와는 다른 존재이고, 사고와 상상보다 더 위대하다. 에리우게나가 생명의 빛은 하느님의 현현(顯現) 또는 하느님의 보여줌이라고 가르치기는 하지만, 하느님은 항상 그 빛 이상이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은 창조된 빛이며, 결코 창조 되지 않은 그 분을 엄밀하게 드러낼 수는 없다. 하느님은 창조의 빛으로 존재하심을 표현하시지만 창조를 넘어 존재하신다. 그분은 우주에 내재하시는 동시에 그것을 초월하신다. 따라서 켈틱 전통은 광채와 어둠, 둘 다를 신비주의로 강조한다. 19세기 스코틀랜드 소설가 조지 맥도널드는

12) Eriugena, *Periphyseon* 681B.

13) A. J. Scott, 'A Lecture on History', *The Manchester Examiner*, 2 October 1847.

14) Eriugena, *Periphyseon* 773C.

15) Eriugena, *Periphyseon* 681A.

16) A. J. Scott, *Two Discourses* (Darling, 1848) p. 36.

우리가 창조물과 우리 자신에게서 언뜻 보는 것은 하느님 빛의 자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생명의 빛은 보이지 않는 빛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우주 전체를 흐르는 생명의 강이다. 만약 어떻게든 그 빛의 흐름이 댐에 의해 막힌다면, 모든 것들은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에리우게나는 Theos(하느님)라는 단어를 동사 Theo(움직이는 그분)에서 파생된 것으로 해석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 안에서 움직이고 결코 머물지 않지만, 그 분의 움직임으로 모든 것들을 채우기 때문이다.¹⁷⁾ 케네스 화이트는 그것을 생명의 혈관들을 통해서 순환하는 ‘빛남-흐름’으로 설명한다.¹⁸⁾ 그리고 그 ‘흐름’이 바라는 것은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아니다.

당신에게 원한다
그 흐름에 함께하기를¹⁹⁾

일상의 삶을 떠나 종교적인 순간과 분위기로 빠져들거나 창조를 제쳐두고 영적 영역 너머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깊이로 주의 깊게 빠져들어 감으로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우리 행하는 것 무엇이든 거기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가 갖는 종교적인 관찰과 묵상의 시간들은 끊임없이 흐르는 생명의 강물 안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대안들이 아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항상 계시고 어디에서나 현존하시며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그 분께 깨어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순간들이다.

조지 매클라우드는 ‘모든 창조물에 온기가 돌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하느님의 빛에 대해 말했다. 그의 기도문 중 하나에서 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풀들은 생기가 있고,
바위들은 활기가 넘친다.
모두가 끊임없는 변화 가운데 있다. 모두 변하지만, 돌과 천사의 움직임

17) Eriugena, *Periphyseon* 452C.

18) White, 'The House of Insight', in *The Bird Path*, p. 145.

19) White, 'The House of Insight', in *The Bird Path*, p. 144.

입은 변하지 않는다.²⁰⁾

기계론적인 세계관으로부터 우리가 너무 자주 받은 인상들, 하느님은 단지 창조를 통해서 자신을 단지 주기적으로 드러내기를 선택하셨다는, 즉 창조가 하느님과 어떻게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것은 바이올린을 만들어 놓고 가끔 연주하는 예술가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은 하느님의 표현이고, 한밤 달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이다. 태양과 달과 모든 창조계는 하느님 빛의 흐름으로부터 벗어나 존재하지 않는다. 에리우게나는, 하느님 빛의 '본성적 감정 표출 또는 확장 또는 움직임은 모든 창조물들에 선행했고, 모든 창조물들의 존재 원인이며, 모든 창조물들이다'라고 말한다.²¹⁾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에 관한 켈틱 전통의 인식을 낭만화 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도시 안에서 또는 삶터에서 그리고 하느님의 광채를 지녔다고는 믿기 힘든 사람들 안에서 생명의 빛을 바라보기 보다는 헤브리디스의 석양의 아름다움이나 드넓게 펼쳐진 바다 위 새벽녘 빛깔들의 조화를 좀 더 쉽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케네스 화이트는 아래와 같이 썼다.

사랑스러움은 어디에나 있다
심지어
가장 추한 것들 안에서도
그리고 가장 적대적인 분위기에서도
사랑스러움은 어디에나 있다
코너를 돌아서는 그 곳에
낮선 이방인의
눈 속에
그리고 입술 위에
희망을 가질 여유가 없는
그리고 단지 죽음만이

20) MacLeod, 'The Glory in the Grey', in *The Whole Earth*, p. 14.

21) Eriugena, *Periphyseon* 643B.

그 마음을 초대하는
가장 공허한 공간에
사랑스러움은 거기에 있다
그것은 드러낸다
이해할 수 없음을
설명할 수 없음을
그 사랑스러움은 그것의 실재 안에서 떠오른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것이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는가이다
우리들 자신 안으로.²²⁾

켈틱전통은 우리를 내면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초대한다. 모든 사람들 안에, 모든 삶터 안에, 모든 창조된 것들 안에 하느님의 빛이 빛나고 있다. 그 빛은 어둠과 왜곡의 층들 아래에서 묻히고 잊혀진 상태일지도 모르지만 그 빛은 그 곳에서 다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조지 매클라우드는 '젯빛 안에서 저희에게 영광을 보여주소서' 라고 기도한다.²³⁾ 내용상 가장 평범한 것, 심지어는 가장 더러운 것 안에서 하느님의 빛을 바라는 것이다. 매클라우드는 그의 연구 중에 '굶주림의 30년(Hungry Thirties)' 시기 중 글래스고우(Glasgow)의 최악의 빈민가로 이끌렸고, 거기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극빈한 자들 중 일부,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스코틀랜드의 남자들과 여자들 가운데서 빛의 현존을 확인한다. 이와 유사하게 케네스의 빛남에 관한 저작, 「해변을 걸으며」(Walking the coast)에서, 빛남은 누가 봐도 명백히 보이는 자연의 둔탁함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썼다.

거칠고
투박한 자갈돌
거칠고 둔탁한 걸모습이
벗겨지면서

22) White, 'Walking the Coast', in *The Bird Path*, p. 50.

23) MacLeod, 'The Glory in the Grey', in *The Whole Earth*, p. 14.

매력적인 마노 크리스털
반들반들한 바위를
드러내 보이며
파란색을 보인다 - 자수정의 빛나는 층 -
거기에
혼돈의 중심에서
생명이 있는 생명 내면에
원리가 있다
아름다움과 질서가 있다²⁴⁾

우리의 주변이나 공동체 안에 있든,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관계에 있든, 우리가 첫째 날의 빛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곳 보다 더 깊은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들의 삶 안에서 ‘젯빛’과 ‘거칠고 둔탁한 걸모습’이란 무엇인가?

켈틱 전통은 종종 은총을 생명의 본질적인 선함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들을 씻어 내리는 것으로 묘사한다. 맨 처음 있었던 그 빛은 생명의 핵심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빛의 온전한 광채를 보지 못한다. 에리우게나는 ‘이것은 거짓 환상의 그림자들을 걷어내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하며 모든 것들 안에서 그분 자신을 보여주는’, ‘대대로 전해진 육화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본성을 되돌리는 것이다’라고 썼다.²⁵⁾ 은총은 생명의 풍광들을 깨끗이 씻어 내리는 비와 같고 우리의 시각을 회복시키는 태양 빛이 뒤를 잇는다. 케네스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썼다.

하늘이 무너졌다
그리고 바닷물로 씻긴
대지는
모두가 다이아몬드다²⁶⁾

24) White, 'Walking the Coast', in *The Bird Path*, p. 51.

25) Eriugena, *Periphyseon* 684A.

26) White, 'The Chaoticist Manifesto', in *The Bird Path*, p. 225.

창조 안에 그리고 우리 내면 안에 가장 깊숙히 있을까 두려워하는 둔탁함이나 어두움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성 요한이 썼듯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고 어둠이 이겨보지 못한 빛’²⁷⁾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실재는 아주 많은 시간 우리가 ‘진리의 빛으로부터의 도망자’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다.²⁸⁾ 첫째 날의 광채와 결별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창조 안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망명자의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그 빛을 위해 우리 내면을 움직이려는 욕구를 거부하는 것에 능숙할 지도 모르고, 우리의 신원에 대한 핵심에서 일어나는 깊은 욕구를 다루려고 하기보다 삶의 외면에 있는 쾌락을 따르기를 더 좋아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알렉산더 스콧이 ‘향수병’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²⁹⁾ 그것은 ‘처음’이 무엇인지 또는 생명 안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해내려는 욕구이다.

개별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생명의 핵심에 있는 그 빛에서 우리 자신을 단절시키는 만큼 우리는 그 빛을 되찾아 가는 여행을 해야만 한다. 되돌아가는 여정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 왔던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의 신비적 차원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이다. 케네스 화이트가 말하듯이, ‘단지 낮설고 긴 여정만이 우리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 할 수 있다.’³⁰⁾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깊음을 저버리는 방식으로 살고 있을 때 낮선 땅에서 낮설음을 느끼거나, 때때로 우리 자신과 동떨어졌음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켈틱 전통에서 구원은 내면에서 하느님의 빛과 다시 연결 되는 여행이다. 미지의 영역과 같은 곳을 가로질러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는 여행이다.

이것은 하느님이 우리로부터 부재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부재하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 내면과 모든 생명의 중심에 있는 빛으로부터 부재하다는 것이다. 하느님의 빛은 생명의 본질적 근원이다. 서구 종교 전통들 안에서 우리는 존재들로 엮어진 하느님의 천을 죄(sin)가 풀어버릴 수 있다는 느낌을 너무 자주 받는다. 그런 영성 모델들에서 구원은 본질적으로 어둠인 것

27) John 1:5.

28) Eriugena, *Periphyseon* 841D.

29) A. J. Scott, *Suggestions on Female Education* (Maberly, 1849), p. 22.

30) White, 'Valley of Birches', in *The Bird Path*, p. 160.

안에서 빛나기 위해 아주 멀리서 오는 빛이다. 반면, 켈틱 전통에서 구원은 창조
의 핵심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본질로부터 자유롭게 된 빛이
다. 그 빛은 어둠에 저본 적이 없다. 오히려 그 빛은 우리 내면의 지독한 속박
안에 묶여 있고, 자유롭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아래의 「카르미나 가델리카」로 알려진, 기도문들과 시(詩)들의 헤브
리디스 모음집의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캐럴’에 강렬하게 묘사된 이미지이다.

긴 밤이다,...
눈이 내릴 것이고 바람에 날려 쌓일 것이다,...
대낮까지 하얀 눈이 올 것이다,...
아침까지 하얀 달이 떠 있을 것이다,...
이 밤은 위대한 예수 탄생 전야이다,...
이 밤이 순결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다,...
이 밤은 영광스런 왕의 아들, 예수로 태어난다,...
이 밤이 우리에게 우리 기쁨의 근원으로 태어난다,...
이 밤이 산 정상 태양에 어렴풋이 빛났었다,...
이 밤이 바다와 해안가에 어렴풋이 빛났었다,...
이 밤이 위대함의 왕 그리스도로 태어났었다,...
영광이 오시는 것을 듣기 전이었다,...
물가로 밀려오는 물결을 들었네,...
그분의 발이 대지에 닿았다는 것이 들리기 전이었다,...
천사들의 영광의 노래를 들었네,...
긴 밤이다,...
숲과 나무가 그분을 위해 빛났고,
산과 바다가 그분을 위해 빛났고,
대지와 평야가 그분을 위해 빛났었다,
그분의 발이 지구에 닿았을 그 때.³¹⁾

구원자의 발이 대지에 닿았을 때, 창조 안에 있는 빛이 반응하여 그분께로 빛

31) A. Carmichal (ed.), *Carmina Gadelica*, III(Scottish Academic press, 1976), pp. III-13.

이 난다. 구원은 본질적으로 어둠인 창조를 위해 빛을 가져옴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핵심으로부터 빛을 해방함이다.

수세기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또 다시 나타나는 켈틱 영성의 중요한 특징은 본성의 선물이 은총의 선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 두 가지는 하느님의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는 첫째 날의 빛에 근거한, 하느님이 우리에게 준 ‘존재함’의 선물이라고 에리우게나는 말한다. 후자는 ‘안녕’의 선물이다.³²⁾ 그것은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회복시키거나 재연결시킨다. 창조의 신비와 구원은 하나다. 그것들은 서로 반하지 않는다. 그 둘을 함께 생각하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선물처럼 생명의 본질적인 선함에 대한 축복을 용인하는 한편, 그 선물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우리의 갈망과 사악함의 힘을 동시에 깨닫는 것이다.

생명의 핵심에 있는 빛에 관한 묵상 중에, 나는 나선형 계단 아래로 점점 더 멀리 걸어 대지의 어둠으로 가는 내 자신을 보았다. 내 손에는 한 번에 어느 정도 앞을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큼 빛을 내는 작은 촛불이 들려 있었다. 어둠속에서 나는 점점 그 어둠보다 더 깊은 곳에 있었던 빛의 거대한 불꽃을 깨닫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그것이 맹렬히 타오르는 불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내 손 안에 있는 그 작은 불빛이 위대한 불로 나를 이끄는 그 위대한 불의 단순한 불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조지 매클라우드는 이것을 ‘우주의 중심 불꽃’이라고 부른다.³³⁾

「카르미나 가델리카」의 기도문 중 하나에서, 예수는 ‘불꽃의 아들, 빛의 아들’로 불린다.³⁴⁾ 그분은 우리에게 낯설게 보일지도 모르고, 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단절시켰을지도 모르는 그 빛과 함께 오시지만, 그 빛은 그 빛은 생명의 핵심에 왔지 생명 너머에서 온 것은 아니다. 조지 매클라우드는 생명의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빛을 ‘반쯤-실재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실재하는 사람’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육화를 묘사한다.

32) Eriugena, *Periphyseon* 515B..

33) G. MacDonald, *Lilith*, (Eerdmans, 1981), p. 201.

34) A. Carmichael (ed.), *Carmina Gadelica*, I (Constable, 1900), p. 141.

그러자 하느님은 낮은 대지의 모두 것으로부터 빛났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서 그들의 조물주를 이해하기 시작했다.³⁵⁾

묵상하기

묵상은 생명의 핵심에 있는 하느님의 빛에 대한 깨달음의 방식이고, 깨달음 가운데, 우리 내면의 빛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발을 바닥에 붙여서 앉든지, 등을 대고 눕든지 또는 걸든지 간에 올바른 자세를 잡아 묵상을 시작하라. 여러분에게 맞는 자세가 가장 ‘정확한’ 자세이다. 하지만 등을 곧추세우고, 여러분이 내면에서 깨어있음이 중요하다.

켈틱 전통에서 기도의 관례는 종종 창조의 맥락 안에서 추구된다. 만약 여러분이 야외 공간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창문을 열거나 창조의 요소를 깨달을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묵상하라. 하느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창조의 신비를 연결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상징물들로서, 예를 들어, 기도실 내부의 물그릇, 또는 나무들, 돌들을 함께 두는 것도 가능하다.

조용히 시편 43절 에서 나온 구절들을 반복하라, ‘당신의 빛을 보내시어, 당신 계신 거룩한 곳으로 이끌어주소서.’ 동시에 여러분 안에서 상기되는 빛의 이미지와 기억을 받아들여라.

여러분의 호흡을 반복적인 리듬에 맞추면 도움이 된다. 호흡이 들숨일 때, ‘당신의 빛을 보내소서’ 라는 구절을 말하려고 노력하라. 여러분의 몸이 확장됨을 느껴라. 기도 중에 생명의 핵심에 거주하시는 그분께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열고 있음을 깨달아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빛이 내부에서 위로 드러난다. 그 다음 호흡이 날숨 일 때, ‘그 빛이 저희를 당신이 계신 곳으로 이끌게 하소서’라는 구절을 반복하라. 내면에서 여러분이 빛의 핵심으로 이끌리는 경험을 하게 하라. 호흡이 들고 날 때, 15분 동안 이런 구절들을 명상에 잠겨 반복하라. 산만함

35) G. MacDonald, 'Within and Without', in *The Poetical Works of George MacDonald*, I (Chatto and Windus, 1911), p. 75.

마음이 들 때면 언제나, 늘 그렇지만, 여러분 내면에 주의력을 집중하는 방법으로 단순하게 그 구절을 암송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라.

15분간의 묵상 후에, 여러분 마음의 기도들을 조용하게 표현하기 시작하라. 하느님이 당신 존재의 깊숙한 곳에 심어놓은 그 욕구들이 무엇인가? 기도 안에서 그것들을 간단하게 표현하라. 내면에서 여러분의 가장 깊은 욕구들이 하느님 모상으로부터 일어남을 깨달아라. 세상 곳곳에 있는 남자들과 여자들 안에 있는 사랑과 생명의 욕구들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 안에서 일깨우도록 받아들여라. 5분 동안 또한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라. 주의 기도문이나 마침 기도문들을 암송하면서 침묵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라.

만약 여러분이 다른 이들과 함께 묵상하고 있다면, 침묵 가운데 경험한 몇 가지 것들을 함께 나누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논의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단순히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다. 흔히 그것은 묵상 중에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침묵에 관한 경험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날 : 하느님의 야생(野生)

하느님께서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창세기 1:6)

에리우게나는 창세기 1장의 물을 모든 것을 감싸 안는 하느님의 어두운 신비로 해석했다. 공간과 시간의 지붕은 본질적으로 하느님의 알 수 없는 그리고 무한한 영역으로 창조되었다. 그것은 생명의 자궁이나 모체와 같다. 창조 될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드러날 것이다. 성 바오로는 그분에 대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 쉬고 움직이며 살아간다.1)'고 이야기하고 있다. 창조는 원래 그랬던 것처럼 하느님 생명의 물에 심어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분께 근원을 두고 있다. 이런 생명의 모체에서 태어난 모든 것들의 시초는 무한한 그분에게서 비롯된다. 창조물의 생명은 하느님 생명의 본질을 취하게 되었고, 하느님을 드러내거나 하느님 신비를 드러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하느님의 기운이 그 물위를 휘돈다.2) 에리우게나는 이것을 네 원소의 소용돌이치는 움직임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것들의 성분인 대지, 공기, 불과 물이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것은 그 날개에 이제 막 시작된 우주의 생명을 실어오는 야생의 바람이다. 만약 창조의 '첫째 날'을 생명의 최초 순간에 일어난 빛의 우주적 폭발에 비유한다면, '둘째 날'은 공간을 통해 원초적인 분자들의 질주하면서 지속되는 폭발처럼 볼 수 있다. 이 강력한 창조적 에너지에 대해 깔끔하고 잘 정리된 것은 없다. 버려지듯이 우주 공간에 내팽겨진 생명이 없는 물질이 그러하듯이, 그 에너지로부터 생명의 물질이 나온다.

켈틱전통은 하느님의 야생에 관한 강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느님에 대한 참된 예배를 결과적으로 신성한 건물의 네 벽안에 가두거나, 종교적 전통의 영역안으로 제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초기 켈틱교회는 탁 트인 하늘 아래에서 드리

1) Acts 17:28.

2) Genesis 1:2.

는 예배와 기도의 양식이 특징이었다. 높이 솟아 있는 십자가들이 집회 장소였고, 명상의 중심지였다. 많은 켈틱 수도공동체들이 아일랜드와 브리튼의 해안가를 따라 산재되어 있는 것처럼, 그 장소들은 종종 들판과 탁 트인 곳에 위치했다. 밀폐된 성소보다는 대지와 바다 그리고 하늘이 하느님의 성전이였다. 작은 목조 교회들과 예배실들은 켈틱 선교에 의해서 건축되었지만, 켈틱 종교 건축 개념의 중심적이고 지속적인 상징들은 하느님의 거룩한 신비가 속박되지 않는다는 신념을 암시한다.

자연 안에서의 예배에 관한 이런 강조점은 브리튼에서 그리스도교 이전의 종교적 전통에 대한 일부 믿음을 따른 것일 수 있다. 켈틱전통은 구두전통이었고, 어떤 저작물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이전에 있었던 켈틱 자연 신비주의에 관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많지 않다. 그러나 신성한 강들과 숲들, 자연의 선교를 거부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으로 세례 받은 켈틱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 성 브리젯(St Bridget)의 6세기 수도공동체는 거룩한 오크나무 숲 지역에 세워졌다. 그곳의 이름인 ‘킬데어’는 단순히 ‘오크나무의 교회’를 의미한다. 동시대 로마의 기록들은 그리스도교 이전의 거룩한 사람들 또는 ‘두루이드들(druids)’이 ‘깊은 숲속’과 ‘운둔의 장소’에서 살고 있다고 전한다. 로마의 기록들은 두루이드들이 성전을 이용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놀라움을 묘사한다.³⁾ 그것은 브리튼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예배가 그리스도교 이전의 신비주의의 진리들과 상징들에 세워지는 것처럼 이해하는 켈틱교회의 전형이었다. 켈틱의 고대 신화와 자연 종교의 관점은 켈틱 선교에 있어서 구약성서에 견줄 만한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유대교의 사제와 예언자 전통이든지 켈틱 자체의 과거 두루이드 사제의 것이든 간에 진리인 모든 것의 성취였다.

우리 대부분은 창조의 야생에 대한 생생한 기억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첫 기억의 일부는 바다의 파도의 강렬함에 관한 것이거나 비를 세차게 맞고 있는 우리 얼굴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공중으로 높이 치솟은 불꽃을 잡아 두는 바람과 열린 하늘 아래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비바람과 공감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에너지들의 거친 소용돌이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 순간들일 수 있다. 욕망들, 감정

3) See Chadwich, *The Celts*, p. 146.

들 그리고 창조적인 충동들은 갑작스레 우리의 심연에서 소용돌이처럼 치밀어 오른다. 만약 그것들이 창조적으로 흐른다면, 그것들은 예술적 표현, 정의를 위한 실천 또는 우리 내면과 관계 안에서 새로운 탄생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간에 이런 소용돌이치는 야생은 대개 그것을 피해 우리를 보호해야 하거나, 피난처를 구해야 하는 어떤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 전통들 안에서 창조적인 야생의 내면적 솟음에 대해 추구하는 것을 무시하는 한편, 거의 배타적으로 우리 영혼의 평화와 고요의 선물들을 추구해 왔다.

조지 매클라우드는 ‘우리 삶의 사납게 요동치는 물’ 위에서 휘돌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 썼다.⁴⁾ 창조성이 우리의 내면에 있든지 또는 우리의 인간관계나 공동체 안에 있든지 간에 그런 사나운 격랑이 없이 창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창세기는 모든 것들이 물 위를 휩쓰는 거친 바람에서 태어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 그러한 것이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창조성이 내면의 알 수 없는 깊이에서 나오는 무질서한 에너지의 파괴 없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우리가 두려하는 부분은 야생의 통제할 수 없음이다. 우리는 우리 세계의 지독한 폭력의 자리에 그 야생의 통제할 수 없음이 있음을 멀리서 목격해왔다. 예기치 못한 열정의 분출이 우리를 자기 파괴적인 방향으로 이끌 때, 우리는 우리 내면과 우리 관계망 안에서 그러한 것을 경험해왔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야생이 본질적으로 해롭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억압되어야 할 것으로 믿게 된 것일까? 우리가 되찾아야 필요가 있는 것은 야생의 창조성이다. 생명이 시작될 때, 그 깊은 물 위를 강력한 바람이 휩쓸었다. 창조는 그 바다의 이런 소용돌이로부터 드러난다. 그렇다 당연히 야생이 파괴적일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생명 수정의 초기에 열정이 있는 것과 같이, 또한 야생이 창조의 핵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야생의 이러한 깊음을 부정한다면,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불안정한 물은 창조적인 에너지가 되기보다 오히려 파괴적이 될 것이다. 감성적이든 또는 성적이든 예술적이든 간에 하느님의 야생에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 내면에서, 두려움이 그 에너지를 억누를 때 야생

4) MacLeod, 'The Eternal seeping Through the Paphysical', in *The Whole Earth*, p. 11.

의 에너지들은 활력이기보다 죽음의 힘으로 변모할 것이다. 우리들 사이에서 이것은 무관심 또는 폭력을 유발한다. 우리 내면에서 이것은 창조성의 결핍을 의미한다.

켈틱 전통은 생명의 무한한 측면을 깊게 확신한다. 그것은 장소의 거친 본성과 힘의 길들여지지 않는 에너지를 추구한다. 헤브리디스의 기도 중에는 대지와 바다와 하늘의 근원적인 힘을 잠재적으로는 파괴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대지와 바다와 하늘의 야생 에너지의 선함을 간구한다.

폭풍의 힘은 당신의 것,
달의 힘은 당신의 것,
태양의 힘,
바다의 힘도 당신의 것,
대지의 힘도 당신의 것,
천국의 힘.⁵⁾

또는 야생에 다른 축복을 드리는 것과 같다.

강의 힘은 당신의 것
대양의 힘은 당신의 것, ...
대지 위에 승리의 힘.
불의 힘은 당신의 것, ...
원소의 힘은 당신의 것, ...
높은 곳에 사랑의 힘.⁶⁾

이 구절들은 번개의 번쩍임 안에서 또는 휘몰아치는 바람의 세찬 충격 안에서 하느님의 강함을 찾으려 한 성 패트릭의 그 유명한 「흉갑」(Breastplate) 찬송가의 잘 알려진 구절과 비슷하다. 켈틱 전통은 힘의 근원적인 강함을 존중하지만 반면에 그것들의 파괴적인 잠재력에 대해서 순진하지는 않다. 창조와 힘과 본성

5) *Carmina Gadelica*, III, p. 231.

6) *Carmina Gadelica*, III, p. 237.

적인 야생에 대해 깨닫는 것은 우리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야생의 창조적인 에너지의 깊이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은총이다.

창세기 1장에서 ‘바람’은 때때로 ‘하느님의 영’으로 번역된다. 그 바람은 창조에서 생명을 가져오는 혼돈의 바다를 품고 있는 거대한 새처럼 보인다. 에리우게나는 그 성령이 물을 ‘들끓게’⁷⁾하거나 ‘수태케 한다’⁸⁾고 말한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묘사되는 생명에 대한 인식을 전달한다. 본질에 있어서 생명은 하느님의 신비 안에서 감춰져 있지만, ‘눈에 보이는 형상과 신체의 아름다움’에 스며들어 있다.⁹⁾

이런 주제에 관한 묵상 가운데, 나는 거친 물위로 뛰어오르는 돌고래들을 보았다. 그들은 물과 공중에서 움직이는 창조물의 특징인 동시성을 가지고 뛰어올랐다. 그 이미지는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바다로부터 보이는 세계로의 출현을 표현했다. 켈틱전통에서 ‘물 가운데에 있는 지붕’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물을 완전히 봉쇄한 것처럼 보지 않는다. 그 이미지는 생명의 완전한 모체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하느님의 생명의 물 그 이상을 묘사한다. 이것은 모든 존재들을 관통해 흐르고 있는 지하강과 같다. 비록 감춰지고 보이지 않을 지라도 생명과 떨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조지 맥도날드는 그의 소설 「릴리스」(Lilith)에서 땅의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사라진, 악마에 의해 그렇게 억압되어 온 땅을 상상한다. 그것들은 보이지 않게, 표면아래 깊게, 사람들과 땅의 피조물들이 모르게 흘렀지만, 이러한 지하의 흐름 속에서 생명의 물기가 나온다. 부분적으로 그 이야기는 감춰진 위대한 강의 재발견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대지위에 누워서 꿈꾸는 누군가에 의해서 처음 지각되는 것이다. 그는 그 자신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물힌 수로에서 돌 위를 세차게 흐르는 많은 물들의 소리를 듣는다. 그가 말하길, 그것은 ‘음악 같은 가장 매력적인 혼돈’이다.¹⁰⁾ 결국 감춰진 바다의 해방은 메마른 땅을 풍부한 정원으로 완전히 바꿔놓는다.

모든 존재들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상호 얽여있음에 관한 주제는 켈틱전통의

7) Eriugena, *Periphyseon* 554B.

8) Eriugena, *Periphyseon* 555C.

9) Eriugena, *Periphyseon* 554B.

10) MacDonald, *Lilith*, p. 81.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조지 매클라우드는 ‘물체에 배어 있는 영원한 것’에 대해 말한다.¹¹⁾ 이와 마찬가지로 그는 땅으로부터 하늘나라를 분리하는 ‘거미줄만큼이나 아주 얇은’ 장막을 묘사한다.¹²⁾ 세속의 안에서 그리고 세속을 관통하여 영원한 것의 무엇인가가 희미하게 비치는, 물질과 영적 실재 사이의 ‘얇음’에 대한 인식은 켈틱영성 발전의 모든 단계에서 켈틱영성의 특징이다. 19세기 알렉산더 스콧은 창조를 ‘하느님의 빛이 관통하여 보이는 투명함’으로 묘사한다.¹³⁾ 그리고 브리튼 그리스도교의 초기, 펠라기우스는 ‘거룩한 빛의 얇은 줄기가 땅으로부터 천국을 갈라놓은 그 장막을 뚫었다’고 말한다.¹⁴⁾ 이것은 하느님을 발견하기 위해 삶에서 눈길을 돌리지는 않지만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의 내면 깊숙한 곳을 바라보는 영성이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이러한 엮임은, 그 기원에 있어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교 이전 모든 시기에, 저승과 이승을 가로 질러 오고간 메신저들의 이야기들로서 켈틱 문학 안에 전해지고 있다. 안개를 뚫거나 바다를 건너서, 인간이나 동물의 형태를 지녔든지 아니면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꾸는 창조물과 같은 것들인지 간에 거룩한 메신저가 경고의 말이나 표식을 전하기 위해 갑작스레 나타날 것이다. 그 메신저가 나타날 때만큼이나 그 메신저는 돌연 안개 또는 바다로 사라진다. 켈틱 그리스도교는 자신들의 전설들과 이야기들을 바라보는 이런 방식에 적응했다. 예를 들어, 켈틱력에서 11월 1일 새해의 시작으로 기념하는 그리스도교 이전의 축제인 삼하인(Samhain)은 이승과 저승 사이의 장벽이 낮아짐을 기념했다. 이 축제의 대부분은 켈틱 선교에 의하여 같은 날 모든 성인들에 대한 축일을 그리고 대지 위에 우리와 하늘나라 동료들 사이에서의 친밀감에 관한 자신감을 포괄하였다.

켈틱전통은 때와 장소라는 측면에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아주 세밀한 이야기 전개에 관심이 없다. 상상의 자유는 생명의 전체성과 과거와 현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엮곤 했다. 예를 들어 성 브리젯의 전설은 팔레스타인에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아일랜드에서 그리스도교 개화기 사이를 쉽게 넘나든다.

11) Macleod, 'The Eternal Seeping Through the Physical', in *The Whole Earth*, p. 11.

12) MacLeod, 'A Veil Thin as Gossamer', in *The Whole Earth*, p. 60.

13) Scott, *Lectures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p. 7.

14) Robert Van de Weyer (ed.), *The Letters of Pelagius* (Arthur James, 1995), p. 36.

6세기 브리젯은 베들레헴 여인숙의 술집 여인으로 묘사될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위한 산파, 아기 예수에게 젖먹이는 여인으로도 묘사된다. 그런 이야기는 역사적 일치보다는 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그리스도 신비 안에서의 천국과 대지의 일치를 전한다.

19세기 조지 맥도날드는 상상의 이런 자유를 같은 결론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영과 물질의 상호 엮임에 대한 주제가 있다. ‘아~! 두 세계여! 이상하게도 그들은 하나이면서도, 무한히 동떨어져 있음이여!’라고 그는 썼다.¹⁵⁾ 그의 소설 「릴리스」에서, 그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두 세계에 있는 책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한다. 이 세계의 도서관 책꽂이에 있는 책은 다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단지 절반만 보인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는 일부 사람들에게 그 책은 두 세계 모두에서 존재하고, 하늘과 땅의 결합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이것이 성서와 창조의 책에 관한 켈틱의 접근법이다. 그들은 결합된 두 세계에 대해 말한다.

이 주제를 가장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켈틱 예술이다. 성서사본에 대한 켈틱전통의 아름다운 삽화 그림에서 또는 켈틱 전통의 높이 솟아 있는 석조 십자가들에서 ‘영구한 양식’으로 알려진 그 디자인은 끊을 수 없게 엮여진 가닥들이다. 곡선의 한 쪽 끝에 있는 인간의 머리는 그 다음의 끝에서 동물이나 천사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것은 모두 세계들의 상호 엮임과, 세계들 내부에서 세계들의 상호 엮임을 이야기한다. 그 흐르듯 이어지는 양식 속에 야생의 동물들을 포함한 것에서, 심지어는 십자 무늬들과 복음 삽화에서 기쁨이 주어진다. 거기에는 항상 길들일 수 없음과 예측 불가능함에 대한 인식이 있다. 실제로 격자판들과 나침반들을 사용하는 건축의 엄격한 방법론을 통해 반-기학적적이고 야생적인 효과를 얻었다. 그 디자인의 패턴은 변화무쌍하고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기원전후 모든 시기의 형태에서 이 예술의 핵심은 곡선형의 디자인이다. 창조자의 창조성과 같이, 예술가들의 독창성은 곧게 뻗은 양식으로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자유롭게 흐르는 곡선과 휘몰아치는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켈틱 전통에서 창조 근원의 야생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물은 대천

15) MacDonald, *Lilith*, p. 147.

사 미카엘이다. 그는 바다와 말의 수호성인으로 여겨진다. 그의 이름은 단순한 의미로 ‘하느님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하느님의 천사 또는 메신저로서 그는 바람 한 가운데서 굴레를 벗긴 말을 타고 있는 것처럼 묘사된다. 헤브리디스의 전통에 따르면, 재갈을 물리지 않은 그 말은 ...

산꼭대기 눈만큼이나 하얗고,
파도의 포말만큼이나 하얗고, ...
3월의 바람만큼이나 빠르고, ...
죽음의 화살만큼이나 빠르다.¹⁶⁾

그 말과 기수는 근원적이다. 그들은 거룩한 바람의 핵심으로 말을 달린다.

이것은 특별히 대천사 미카엘의 도움을 간구했던 즉 잉태와 죽음인 삶 안에서 위대한 전환의 순간들이었다. 불임인 여성들과 가족을 여윈 사람들이 그의 도움을 구했다. 이런 ‘자궁’과 ‘묘지’의 시간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또는 보여진 것에서 보여지지 않은 것으로 뛰어넘는 것을 대변했다. 이와 같이 강력한 바람 또는 우주의 불길 가운데에서 새로운 천국과 새로운 대지가 태어나게 될 때, 그는 시간의 종말을 연상시킨다.

알렉산더 카마이클은 매해 9월 29일 미카엘 천사의 축일과 관련된 헤브리디스 관습의 일부를 기록한다. 이날은 켈틱력에 있어서 주요한 축제의 날로 여겨졌었다. 그 축제에는 ‘아침 행진’ 또는 말을 타고서 하는 ‘묘지 순례’, 그리고 늦게 남녀 상관없이 참여하는 안장과 굴레를 사용하지 거친 경마가 포함된다. 축제를 준비하면서, 미카엘 축일에 사용하기 위해 미카엘 축일 전날 말을 흠치는 것이 용인되었는데, 모두가 미카엘 축일 다음날 되돌려 줄 것으로 생각했다. 그날은 또한 젊은 남녀들 사이에서 사랑의 언약과 징표를 교환하는, 사랑이 선물로 주어지고 사랑을 만들어가는 날이었다. 이와 관련된 것은 자손과 다산의 상징으로서 당근 주고 받기였다. 여성은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당근을 모으면서, 다음과 같이 혼자서 읊조렸을 것이다.

16) *Carmina Gadelica*, III, p. 143.

내 자궁의 자손이여, ...
내 자손의 자손이여.¹⁷⁾

그리고 미카엘 축일 저녁에, 무용의식의 일부로서 여성은 당근을 가득채운 광 주리를 들고 노래를 부를 것이다.

당근을 가지고 있는 나, 바로 내 자신이라네
그가 누구든지 나에게서 이것들을 얻어 갈수 있다네.
보물들을 가지고 있는 나, 바로 내 자신이라네,
누구든 영웅은 나에게서 그것들을 얻어갈 수 있다네.¹⁸⁾

분명히 이러한 축일들은 사랑과 창조에 관한 하느님 선물인 열정과 야생에 관한 켈틱 전통의 인식을 표현한다. 말들을 ‘흙침’과 다산(多産)에 관한 상징물들의 사용은 서양 종교 유산의 대부분인 점잖음과 질서있음과는 한참 동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들은 대체로 우리가 하느님의 관점과 야생을 잃어버렸다는 영적인 차원을 가리킨다.

대천사 미카엘의 이미지는 통상 바람 가운데서 말을 타고 있고 불타는 검을 손에 쥐고 있으며 그 밑에서는 죽은 용이 누워 있는 것이다. 그는 야생을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멸과 파괴의 상징인 용을 정복하기 위해 말을 타고 있다. 폭풍의 세기만큼이나 열정과 분노의 세기는 파괴적일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이 될지 몰라도 야생의 뒤섞임이 생명을 끌어낼 수 있도록 대천사 미카엘은 바람 가운데에서 말을 타고 있다. 우리는 선이나 악의 힘이 분노 안에 있음을 알고 있다. 어떤 깊은 감정이나 열정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일 수 있다.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야생의 에너지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막무가내식 아집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본성 안에 깊숙이 심어지고, 열정적인 하느님의 이미지대로 우리가 창조된 그 법칙에 복종하는 것이다. 예수가 사원에서 불의함에 분노하고 위

17) *Carmina Gadelica*, I, p. 201.

18) *Carmina Gadelica*, I, p. 207.

선을 밝혀내며 친구의 죽음을 열정적으로 쓸어버리는데 충실했던 것처럼, 사랑의 헌신 안에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야생의 에너지를 따를지도 모른다.¹⁹⁾

야생의 과정은 심지어 고대 켈틱 선교가 자신을 조직하는 방식에도 적용되었다. 고대 켈틱 선교의 방식은 로마 선교 모델에서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철저히 통제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다른 공동체와 상당히 독립적인 연합 수도공동체들이나 수도공동체들로 구성되었다. 종교적 관습에 있어서 다양성이 생겨났고, 적시에 반복되어야 하는 모든 예배의식에 있어서 엄밀한 획일성이 떨어졌으며, 중앙 집중화되고 고도로 획일화된 로마 선교에 위협이 되었다. 아일랜드와 브리튼에서의 켈틱 전통에 널리 퍼져 있는 혈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의 형태를 띠었지만, 켈틱 예술과 같이 엄격하기보다 유동적이었다. 일치는 밖으로부터 도입되기보다 내부에서부터 나왔다.

켈틱 전통의 가장 현저한 특징 중의 하나는 유람 또는 긴 여행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 전통의 좀 더 극단적인 형태인, 페레그리니(the Peregrini)라고 지칭된 것은 기도 없이 쓸려가는 배를 타고 비바람이 사람들을 데려가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여행하는 것이었다. 옛 켈틱 교회에서 페레그리니의 개념은 ‘자신의 부활의 장소를 탐색하는 것’으로 정의 되었다.²⁰⁾ 새로운 생명을 찾기 위해 아주 익숙한 자신의 집이나 장소를 떠나거나 버리는 의지로 구성되었다. 주어진 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다. 조지 매클라우드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별을 따라 온 동방 박사들의 공현대축일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여러분이 어디서든 진리를 찾으시면 그 진리를 따라라’라는 말로 21세기의 페레그리니를 잘 표현하였다. ‘진리가 생명과 하느님에 관해 이미 형성된 개념에서 여러분을 벗어나게 할지라도, 만약에 진리가 여러분의 조국을 벗어나 여러분을 베들레헴 같은 가장 보잘것 없는 이국의 장소로 데려갈지라도.’²¹⁾

켈틱 전통에서 ‘자신의 부활의 장소’를 찾는 탐색은 우리를 종종 가장 험난한

19) See Luke 19:45 and John 11:35.

20) See Chadwick, *The Celts*, p. 206.

21) Ferguson (ed.), *Daily Readings with George MacLeod*, p. 75.

야생과 가장 근원적인 장소로 이끌었다. 외딴 섬들과 바위 돌출부들은 켈트족들이 침묵에 잠기고 기도를 드리는 야생이었다. 스켈리그 마이클(Skellig Michael)의 수도원은 아마도 그것들 가운데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일 것이다. 그곳은 아일랜드 케리(Kerry) 해안가에서 8마일에 떨어져 있고 뾰족한 바윗돌로 형성된 곳에 지나지 않는다. 그곳의 황량함과 고립감은 그 근본에 있어서 하느님에 대한 켈틱 전통의 가장 기본적인 깨달음에 꼭 맞는 것이었다. 몇 세기 후에, 헤브리디스에서 공통의 관습은 해안가의 야생을 따라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인식으로 이끄는 ‘파도의 노래’와 ‘바다의 끊임없는 찬양’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기도를 읊조리는 것이었다.²²⁾ 20세기 케네스 화이트는 다음의 것들이 존재한다고 노래하였다.

벗어나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별거벗은 해안가에서
쉽없이 몇 시간을 걷는 그 곳...
무언가를 단단히 붙잡으려 애쓰고
경건하지 않은 이름을 원했던
형태를 갖춘 그 무언가
파란 파도들과 회색빛 바위들의 그 형태
그리고 소금 맛이 나는 그것²³⁾

그 탐색은 창조물과 더불어 우리가 알 수 있거나 명명할 수 있는 것 외에 무한한 것의 내면 깊숙이 있는 하느님의 신비로 항상 향하는 것이다. 우리의 본성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야생과 야생 그대로의 장소로 데려가는 탐색이다.

창세기 1장의 강력한 바람에 관해 묵상 중에, 한 사람이 바람에 날아가는 그의 교회의 지붕을 보았다. 그것은 켈틱전통에서 지키고 있는 이미지 중 하나이다. 하느님의 신비에 관한 야생은 억제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창조에 관한 위대한 책에서 들은 것은 그것에 관한 음악의 한 형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편안한

22) *Carmina Gadelica*, I, p. 3.

23) White, 'Soctia Deserta', in *The Bird Path*, p. 125.

조화'가 아니라고 화이트는 말한다. 오히려 '통제되지 않은 무더기 소리들'로 가득 찬 그 바람과 그 바다는 창조 안 깊숙한 곳에 있는 '섬없음과 활동성'을 증명한다.²⁴⁾ 이것은 또한 우리가 성서 책에서 들은 것이다. 시작과 끝인 그 분은 '일곱 천둥²⁵⁾'의 강력한 여운 안에서 말씀하신다. 마찬가지로, 입에 양날의 검을 지니고 진리를 계시하시는 사람의 아들은 근원적인 용어로 묘사된다. 거룩한 성 요한은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꽃같았고, 그분의 음성은 웅장한 물소리와 같았으며 그의 얼굴은 강렬하게 빛나는 해와 같았다'²⁶⁾고 썼다. 켈틱 전통의 핵심은 '폭풍우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에 관한 숭배이다.²⁷⁾ 그의 육신과 피 안에 있는 것은 하느님의 야생이다.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그는 '대지에 불을 지르러'²⁸⁾ 오신다.

묵상하기

묵상은 우리 내면 깊숙이 있는 창조력과 다시 연결되는 방식이다.

되도록 방해받지 않는 적당한 장소와 적당한 자세를 잡고 묵상을 시작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이 기도할 때에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시는 당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²⁹⁾ 묵상은 좀 더 깊이 깨어 있기 위해서 분심이 드는 마음의 문을 닫는 시간이다.

시편 104장의 구절 '당신은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신다'를 조용하게 반복하라. 동시에 여러분 자신 안에서 상기되는 바람과 야생의 이미지들과 기억들을 받아들여라.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호흡을 반복의 리듬으로 맞추길 원한다면, 날숨일 때

24) White, 'Late August on the Coast', in *The Bird Path*, p. 125.

25) Revelation 10:4.

26) Revelation 1:14-16.

27) *Carmina Gadelica*, I, p. 141..

28) Luke 12:49.

29) Matthew 6:6.

‘당신은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신다’라는 구절을 암송 하도록 노력하라. 기도 중에 모든 생명과 여러분 생명의 중심에 거주하시는 그 분을 여러분이 숙고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상기되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들숨이고 몸이 확장됨을 느낄 때, 여러분 존재의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열어가고 있는 창조적 에너지들을 인식하라. 그 깊음에서 새롭게 됨의 방식으로 15분간 묵상에 잠겨 그 구절들을 반복하라.

15분간의 묵상 후에,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들을 조용하게 표현하기 시작하라. 세계 곳곳에 있는 남자들과 여자들 내면 깊숙이 있는 새로운 시작과 창조성을 향한 욕구에 연결되고자 하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바람들을 받아들여라.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조용히 기도를 5분정도 한 후에 주의기도문이나 다른 기도문을 마무리하라.

만약 여러분이 다른 이들과 함께 묵상을 하고 있다면, 침묵 가운데서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나누어라. 이 시간은 서로 듣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들은 것에 관해 숙고하는 시간이다.

셋째 날 : 하느님의 다산(多産)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마른 땅을 물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창세기 1:9-10)

둘째 날 근원적인 힘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이제 에리우게나가 대지의 ‘가장 아름다운 견고함’이라 부르는 것이 드러난다.¹⁾ 둘째 날이 공간의 무한한 확장 안에서 하느님 야생의 창조력을 암시한다면, 셋째 날은 안정감과 비옥함으로 대지를 빛으시는 하느님을 묘사한다. 비옥한 땅이 물의 작용을 통해 드러났고, ‘땅에는 푸른 움이 돋아났다. 낱알을 내는 온갖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 나무가 돋아났다’²⁾고 창세기에서 기술한다. 에리우게나는 그것들이 대지에 있는 물기를 통해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았고, 풍부해졌다’³⁾고 썼다. 그 장면은 생명의 다산에 관한 것이다.

성 요한은 ‘맨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느님이셨다’⁴⁾ 그리고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고 말한다. 성 요한의 신비주의적 전통에 따라, 켈틱 전통은 창조가 본질적으로 하느님의 말씀 하심이라고 가르친다. 그 말씀은 ‘아버지 하느님 본질의 신비스런 깊은 곳에서 나온다. 에리우게나는 그것은 ‘항상 태어남’⁵⁾이라고 말한다. 19세기 알렉산더 스콧은 창조를 하느님의 자녀로 묘사함으로써 이런 관점을 더욱 더 발전시켰다. 내적으로 모든 것들은 하느님 말씀의 시작 또는 구현(具現)이다. 이것은 우리가 창조 안에서 보거나 듣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완벽한 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생명이 모든 종류의 왜곡과 고통을 지나면서 상처가 많이 지니고

1) Eriugena, *Periphyseon* 702C.

2) Genesis 1:12.

3) Eriugena, *Periphyseon* 711C.

4) John 1:1, 3.

5) Eriugena, *Periphyseon* 558B.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쨌거나 시작 또는 생명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다. 하느님은 우주의 핵심으로부터 창조를 표현하신다.

성 요한은 그리스도를 말씀이 ‘만든 육신’⁶⁾으로 묘사한다. 그러한 인식에서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완벽한 표현이다. 그는 진실로 모든 것들의 시작에 말씀이 계시다는 것을 계시한다. 스콧은 ‘창조의 온전한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종합된다’⁷⁾고 말한다. 영이 마리아의 양수에 아기 예수를 잉태시킨 것처럼 창조는 우주의 순결한 자궁 안에서 성령에 의해 태어난다. 그리스도는 우주의 본질적인 진리를 계시한다.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태어난다.

창세기 기술(記述)은 대지에 심어진 그 씨앗이 ‘날알을 내는 온갖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 나무’⁸⁾라고 특별히 언급한다. 에리우게나는 이것이 대지 안에 감춰진 ‘종자의 능력’이라고 말한다.⁹⁾ 땅으로부터 나오는 식물과 나무들의 풍부함은 이 씨앗의 힘이 드러남이다. 식물과 나무들의 뿌리는 그들을 지속시키는 물을 얻기 위해서 대지의 숨겨진 깊이에 도달한다.¹⁰⁾ 대지의 토양 안에 있는 물기는 에리우게나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감싸고, 스며드는 하느님 물의 상징이다. 생명의 위대한 모체에서 태어난 모든 것은 하느님 생명의 깊은 신비에 닿아 있는 뿌리에 의해서 지속된다.

창조의 셋째 날에 관한 묵상 중에, 한 아일랜드 사제는 어린 시절, 그의 가족 농장의 밭 아래에서 솟아오르는 신선한 샘물을 기억해냈다. 그 샘물은 곡식들을 생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수원지이기도 했다. 그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렸으며, 맑고 시원하며 신선한 물을 흠뻑 마시기 위해 온몸으로 그 웅덩이에 뛰어들었던 것들을 기억했다. 이것은 생명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선함의 이미지중 하나이다.

창세기는 ‘그리고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고 기록한다. 에리우게나는 ‘거룩한 선함의 형언할 수 없는 비옥함’¹¹⁾에 대해 말한다. 다른 곳에서도 그는 그것을 하느님의 ‘다산(多産)’이라고 부른다.¹²⁾ 그것을 이해하는 케네스 화이트의 방식은

6) John 1:14.

7) Scott, *Lectures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p. 61.

8) Genesis 1:12.

9) Eriugena, *Periphyseon* 704D.

10) Eriugena, *Periphyseon* 749B..

11) Eriugena, *Periphyseon* 465C.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나는 하느님의 똥에서 국화를 키워왔다.¹³⁾

이 모두는 대지의 비옥함의 온전한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대지에서 자라는 것의 본질적인 선함을 증명한다. 켈틱 전통은 모든 생명의 시작과 그 핵심에 하느님의 선함이 있다고 신념으로 이끌었다. 에리우게나가 말하듯이, ‘거룩한 선함은 모든 것들을 존재하지 않음에서 존재하도록 명하였다’¹⁴⁾ 이것은 창조물들이 황폐화되고, 질병에 걸린다는 것에 대해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니다. 브리튼과 아일랜드의 켈틱 주변인들은 기아와 자연 재난이 낫설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켈틱 전통은 악함보다 더 깊이 있는 선함을 기념해왔다.

따라서 에리우게나가 이해한 창조에게 본질은 선함이고, 만약 선함이 생명으로부터 온전하게 제거된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선함이 본질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선함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¹⁵⁾라고 그는 말한다. 다른 말로 선함이 그저 생명의 한 특징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생명의 가장 깊은 근원이라는 것이다. 그가 말하길,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그들이 선한 한 존재하겠지만 그들이 선하지 않다기 보다 덜 선한 한 그만큼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¹⁶⁾ 켈틱 전통은 이렇게 본질적으로 파괴적인 것이 악이라고 규정하는 데로 나아간다. 선함이 만물이 존재하도록 비존재에서 존재로 이끈 것처럼, 그렇게 사악함은 존재하는 만물을 타락시키려고 노력하고, 만물들이 존재하지 못하게끔 만물을 온전히 흠어버리려고 애쓴다.¹⁷⁾ 악의 힘은 항상 존재하지 않음과 의미 없음으로 나아간다. 창조된 것이 악해지는 만큼, 그만큼 그 창조물은 진실로 존재하지 못한다. 그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생명에서 선함을 체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느님의 선물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창조의 선함에 대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 비가 온 뒤 대지

12) Eriugena, *Periphyseon* 786A.

13) White, 'At the Solstice', in *The Bird Path*, p. 31.

14) Eriugena, *Periphyseon* 470A.

15) Eriugena, *Periphyseon* 628A.

16) Eriugena, *Periphyseon* 628A.

17) Eriugena, *Periphyseon* 511A.

의 신선함을 느껴 왔고, 아삭한 가을 사과를 베어 무는 즐거움을 알고 있으며, 끝없이 이어지는 황금색 옥수수 밭을 응시해왔고, 천년동안 바닷물에 씻겨 시원스레 평탄해진 바위를 만져왔다. 선함이 거기에 있다. 알렉산더 스콧이 가르친 대로, 한낱 자갈들의 존재도 포괄하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에 대해 깨어있도록 우리는 그 선함에 대해 인식으로 부름 받았다.¹⁸⁾

20세기 생태론적 인식을 한참 전에 예측한 조지 맥도날드는 그의 소설 「천국의 열쇠」(The Golden Key)에서 할머니의 상(像)을 창조의 신비를 간직한 이로 묘사한다. 맥도날드는 거룩함을 상징하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노부인을 특징적으로 사용한다. 녹색 옷을 입은 클래드(Clad), 그녀는 위대한 숲속에 살고 있고 항상 맨발이다. 그녀는 그녀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녀와 마찬가지로 신발을 벗도록 부탁한다. 맨발로 대지를 접촉한다는 것은 대지에 있는 선함의 활력을 좀 더 민감하게 느끼도록 한다. 그 암시는 분명히 불타는 듯한 덩불의 불꽃에서 하느님을 마주하는 출애굽기이고 모세의 이야기이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¹⁹⁾라고 하느님이 말씀하신다. 켈틱 전통에서 모든 대지는 거룩하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선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맨발이 됨으로 느낄 수 있는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우리 발 아래 풀의 연한 물기를 느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의식을 열어 준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관점으로 생명을 보게 한다. 당연히 울퉁불퉁한 지형을 걷는 것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맨발로 돌밭을 걷는 것 또한 새로운 의식으로 이끈다! 우리가 걷는 대지에 대한 강화된 의식은 단지 즐거운 경험만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와 동떨어진 창조를 알아가는 것이고 숭배하는 것이다. 북부 웨일즈의 켈틱 문화에서 많은 영감을 받아 시를 쓴 제랄드 맨레이 홉킨스(Gerard Manley Hopkins)는 우리가 창조 안에서 느끼는 하느님의 장엄함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단절 시키는 것들에 대해 시를 썼다. ‘신발을 신음’으로서 우리의 발은 더 이상 느낄 수 없다고 그는 말한다. 우리는 ‘만물들 깊은 곳에 있는 그 소중한 새로움’과의 감촉을 잃어버렸다.²⁰⁾

18) See J.P. Newell, 'A. J. Scott and his Circle', PhD Thesis(University of Edinburgh, 1981), p. 346.

19) Exodus 3:5.

20) G. M. Hopkins, 'god's Grandeur', in *Poems and Prose* (Penguin Books, 1953), p. 27.

오늘날 서구 세계에서 창조에 대한 극도의 무감각에 관한 해답이 재개된 맨발 의식에 있지는 않다. 우리가 뻘뻘한 도시에 살고 있든지 널찍한 농촌지역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창조에 대한 우리 인식의 문들을 다시 여는 새로운 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창조와의 관계에 대한 진정한 인식을 되찾는다면, 우리의 발로 대지를 느끼는 경험은 해 볼 필요가 있는 재발견의 상징이 된다. 이것은 마치 농촌지역의 광활하게 뻗어 있는 밭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고대 숲들 안에서 일어날 것처럼, 도시의 정원과 집안 식물 화분에서 자라는 것들의 신비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대지를 돌보는 우리의 헌신을 지속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대지의 선함에 대한 경험이다.

당연히, 맨발이 되는 관습은 아직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공통이다. 인도의 타밀지역 나두(Nadu)에 있는 산티반암(Shantivanam)의 베네딕도 수도 공동체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맨발로 걸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식 행사를 몇 번이나 참여해야 하는지에만 골몰하였다. 거룩한 강 코바리(Cauvery) 강둑을 따라 태양이 떠오를 무렵 목상 중에 우리는 발 아래에 그 길의 서늘한 아침을 느끼면서 맨발로 걷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교 사원에서 기도할 때 또는 힌두 사원을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다. 그리고 수도원의 식당 바닥에 앉아 다 같이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한 그리고 대지의 선물에 대한 존경을 보여주는 방식으로서 다시 맨발이 될 것이다.

인도는 자주 신발을 신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내 신발을 신어야 할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했다. 예를 들어 나환자 정착촌이나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병원을 방문할 때는 맨발로 가지 않았다. 그리고 마드라스(Madras)의 불꺼진 거리에서의 하룻밤 경험은 내가 두고두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 중의 하나이다. 어린 아이보다 크지 않아 보이는 형체에 발이 걸렸다. 발에 걸린 것을 내가 좀 더 가까이 들여다봤을 때, 아주 작고 나이든 여성이 보였다. 그녀는 밤새 자루를 뒤집어쓰고 웅크리고 있었다. 맨발로 그녀를 건들리지 않았다고 살짝 안도감을 느끼면서 급히 떠나는 것이 내가 한 행동이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감성들, 영광과 고통 둘 다를 자주 완전히 가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감성이 서로 다른 이들과 그리고 대지와의 우리 관계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양

라고 주장할, 추위와 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아주 작은 축사 같은 집조차 가지지 못하는가? 한 사람은 셀 수도 없는 소유물들과 광대한 토지들을 지켜야 하는 한편 다른 사람은 앓아 있을 만한 작은 잔디의 소유조차 누릴 수 없는 것인가? 한 사람은 금, 은, 진귀한 보석들과 온갖 종류의 물질적 소유물들로 부자가 되어야 하는 한편 다른 사람은 배고픔과 갈증, 헐벗음과 온갖 종류의 가난으로 시달려야 하는가?²⁴⁾

그는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관대함은 자연의 선물과 은총의 선물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말한다. 이 선물들의 배뿔에 있어서 모든 불평등은 하느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부정의함 때문이다. ‘하느님이 보다 원대한 것 안에서 인간을 평등하게 만들었는데 무엇 때문에 하느님이 그 보다 작은 것 안에서 인간들이 불평등하게 되기를 원했겠는가?’라고 펠라기우스는 물었다.²⁵⁾

은총과 자연에 관한 켈틱 전통의 강조점이 형성되는 단계였다. 켈틱 전통은 자연의 선물에 관한 선함은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은총의 선물을 나누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과 훨씬 더 대립하게 되었는데, 어거스틴은 하느님의 은총의 제한되었다는 운명론적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지 일부 사람만이 구원의 은총을 받기로 하느님에 의해서 선택되었다. 그 나머지 인류는 본질적으로 그들의 죄의 본성으로 인해 단죄되었다. 이와 같은 대립은 켈틱 전통과 로마 사이에서 수세기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에리우게나는, 19세기 알렉산더 스콧이 그랬듯이, 운명에 관한 신념에 반대했기 때문에 비판 받았다. 그와 다른 이들은 하느님의 은총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그들의 확고한 주장으로 인해 사제직을 박탈당했다. 켈틱 전통은 일관되게 은총의 것이든 본성의 것이든 간에 하느님이 주는 관대함에 관해 협소한 경계를 두는 것을 거부해왔다. 매일 아침 태양이 언제나 떠오르는 것은 창조물 전체를 위해 주어진 하느님의 선물이고, 창조물의 본질적인 안녕을 위해 창조를 복구하려고 주어진 구원의 선물보다 작지 않다.

24) Pelagius, 'On Riches', in *The Letters of Pelagius and his Followers*, p. 182.

25) Pelagius, 'On Riches', in *The Letters of Pelagius and his Followers*, p. 183.

대지 자원의 선함과 관련하여, 펠라기우스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가르쳤다. 충분하게 가진 사람들, 충분하게 가지지 못한 사람들, 충분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다. ‘소수가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실제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져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필요한 만큼 가져야 한다’라고 그는 말했다.²⁶⁾ 펠라기우스는 자연의 선물에 대한 일종의 재분배를 가르쳤다. ‘모두 다 공명정대하게 그리고 동등한 권리로 소유해야 한다’²⁷⁾고 말했다.

단지 대지 자원의 분배에 관한 펠라기우스의 강조점이 최종적인 교황의 과문과 그에 대한 황제의 금지령의 원인이었다고 증명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부분적으로 그 판결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의심한다. 이와 비슷하게, 7세기 브리튼에서 좀 더 큰 규모로, 소박함에 대한 켈틱 전통의 헌신이 끼친 영향이 휘트비 시노드의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 자신을 위해 부를 축적하기보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선물을 나누는 켈틱 선교의 관습은 점점 부유해지고 강력해지는 로마 선교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자선이 켈틱 수도원의 전유물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소유물을 나눠주고, 때때로 자신들의 것이 아닌 것조차도 나누어 주는 성 브리젯이나 다른 위대한 성인들에 관한 켈틱의 전설들은 켈틱 전통이 관대함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반영한다.

펠라기우스는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우리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나누어 주면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²⁸⁾ 그는 마태오 복음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그의 저작들에서 계속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해주기 바라는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해 주시오. 이것이 율법과 예언자들(의 정신)입니다’²⁹⁾라고 호소한다. 펠라기우스에게 있어 이것은 복음적 의로움의 전형이다. ‘여러분은 복음의 이 구절을 선택하고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라고 그는 말한다. ‘여러분이 다른 이에게 여러분을 지지해주길 바라는 것과 같이 다른 이에게 그 같은 태도를 가질 때면 언제나, 여러분은 의로움의 방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

26) Pelagius, 'On Riches', in *The Letters of Pelagius and his Followers*, p. 194.

27) Pelagius, 'On Riches', in *The Letters of Pelagius and his Followers*, p. 191

28) Pelagius, 'To an Older Friend', in *The Letters of Pelagius and his Followers*, p. 150.

29) Matthew 7:12.

는 누구도 여러분을 위해 지지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또 그와 같이 다른 이에 대해 그런 사람일 때면 언제나, 여러분은 의로움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³⁰⁾

그러면, 선함은 단순히 악을 삼가는 측면으로만 규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으로 규정되며, 그로 인해 선함은 하느님의 관대함에 참여 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진실로, 여러분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옷을 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옷을 빼앗긴 사람은 여러분의 옷으로 감싸주고, 빵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빵을 빼앗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빵을 자진해서 그들에게 주며,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집에서 내쫓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당신의 집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잘 알고 있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게 된다.³¹⁾

단순히 악을 삼가는 신중한 준수보다 오히려 선함의 긍정적인 행동에 강조점을 두면서, 펠라기우스는 굶주린 사람에 먹을 것을 주지 않거나 낮은 자를 환대하지 않거나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지 않는 사람들에 내리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와 마태오복음 25장을 언급한다. 예를 들어, 그는 성서이야기에서 비난은 사람들이 간통, 도둑질이나 살인을 저지르는 악을 행하였는지에 기반을 두지 않고, 선을 행했는지에 기반을 둔다고 말한다.

환대의 관습은 켈틱 전통에서 특별히 장려된다. 펠라기우스는 그리스도인을 ‘누구에게나 자신들의 문을 열어주고, 누구에게나 음식을 제공하는’³²⁾ 사람으로 규정한다. 수세기 후, 스코틀랜드의 서쪽 섬들에서는 집 없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이런 강조점을 더 발전시켰다. 알지 못하는 여행자를 집으로 맞아들여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과 마실 것을 나누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리스도 그 분의 방문에 문을 열어두는 것이었다. 손님을 맞이하는 헤브리디스에서 매주 대수도원까지 오늘날의 아이오나 공동체는

30) Pelagius, 'To Celentia', in *The Letters of Pelagius and his Followers*, pp. 134-35.

31) Pelagius, 'On Virginity', in *The Letters of Pelagius and his Followers*, p. 76.

32) Pelagius, 'On the Christian Life', in *The Letters of Pelagius and his Followers*, p. 124.

여전히 환대의 고대 룬 문자(신비적 상징들)를 사용한다.

우리는 어제 이방인을 보았고,
우리는 식당에는 음식을,
음료 마시는 곳에는 음료를,
듣는 곳에는 음악을,
삼위일체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마련하였고,
그는 우리와 우리의 집을,
우리 가족과 우리가 소중히 하는 것들 축복했네.
종달새가 노래로 말할 때
자주, 아주 자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모습으로 오시네.³³⁾

헤브리디스의 다른 기도문들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집과 식탁에 ‘풍부한 음식과 음료, 넉넉한 침실들 그리고 풍족한 맥주’를 간구한다.³⁴⁾ ‘끓주린 자를 영원히 배 불리는 그분의 빵으로, 목마른 자에게 생기가 돋게 하는 그분의 음료로, 낯선 이들과 함께 하는 그분의 식탁으로, 그리고 이방인이든 여행자든 상관없이 언제나 갈 수 있는 그분의 집으로 인해 여러분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³⁵⁾ 라는 그의 물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관대함의 본질적인 장소는 켈틱 그리스도교의 아주 초기에 펠라기우스에 의해서 강조되어 왔다.

대지의 선함을 나누는 것에 관한 펠라기우스의 강조점은 사회 전체라기보다 주로 개개인들에 대해 역설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후에 켈틱 전통에서 공동체적이고 정치적인 차원들이 덧붙여졌다. 예를 들어 알렉산더 스콧은 기독교 사회주의 창설자중 하나이다. 19세기 중반 브리튼에서 협동원리의 기반 위에 사회에 대한 재정비를 요청하는 대담한 시도였다. 스콧은 국가의 부와 자연자원들을 지배했던 사람들, 권력과 특권에 관해 신성하게 구성된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변화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비판했다. ‘하느님은 질서의 하느님이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보장 되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평온과 풍요로움인

33) J. P. Newell (ed.), *The Iona Community Worship Book* (Wild Goose Publications, 1991), p. 27.

34) *Carmina Gadelica*, III, p. 363.

35) Pelagius, 'On the Christian Life', in *The Letters of Pelagius and his Followers*, p. 123.

것처럼 보이는 질서의 특정한 형태를 만드시 서약하지는 않는다'³⁶⁾는 것에 스콧은 동의한다. 켈틱 전통이 단순히 낭만화 된 자연 신비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세기에 걸쳐 반복된 켈틱 스승들의 직설적인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 자연과 은총이 모두를 위해 주어진 하느님의 선물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상의 생명과 깊게 연결하고 대지의 자원들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단호하게 요청하는 영성을 제안하는 것이다.

창조의 본질적인 선함에 관한 켈틱 신념을 따라, 우리가 그 선함의 일부라는 확신이 있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 하느님 생명의 비옥함이 깃든 밭들과 같다고 펠라기우스는 말한다. 여기에서 또한 선함의 '밭알들'은 추수되고 나뉜다.³⁷⁾ '장기간 경작되지 않은 채 있는 우리 영혼의 휴경지 밭들은 갈아엎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휴경중인 어떤 것들보다 더 깊이 있는 것이 하느님의 다산(多産)임을 보게 될 것이다.

묵상하기

묵상은 우리 내면에서 하느님의 선함의 풍부한 깊이를 깨닫는 방식이다.

집안이든 야외든 간에 적절한 자세와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묵상하라. 성서와 창조 둘 다에 관해 묵상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공간을 고르거나, 그런 공간을 의도적으로 꾸미도록 하라.

조용히 시편 33장에서 나온 구절, '땅에는 당신의 선함이 가득하도다'를 반복하라. 동시에 여러분 안에서 상기되는 대지의 선함에 대한 이미지들과 기억들을 받아들여라.

만약에 여러분의 호흡을 반복적인 리듬에 맞추고자 하자 한다면, 날숨일 때 '땅에는 당신의 선함이 가득하도다' 라는 구절을 암송하도록 노력하라. 기도 중에 여러분이 생명의 중심에 거주하시는 그분을 다루고 있음을 자신에게 상기토록

36) Scott, *The Social Systems of the Present Day*, p. 345.

37) Pelagius, 'To Demertias', in *The Letters of Pelagius and his Followers*, p. 67.

하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들숨이고 여러분의 몸이 확장됨을 느낄 때 여러분 존재의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열어가고 있는 그 선함을 깨달아라. 그것은 여러분 안에 심어진 것이고, 대지의 선함의 향기처럼 느낄 수 있다. 명상에 잠겨서 그 구절들을 15분간 반복하라.

15분간의 묵상 후에, 여러분의 마음 속 기도를 조용하게 표현하기 시작하라. 도처에 있는 남자들과 여자들의 내면에 있는 생명과 선함에 대한 욕구에 여러분 자신을 연결하려는 마음의 바람들을 받아들여라. 또한 그 바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조용히 5분 정도 기도 한 후에 주의기도문이나 다른 기도문을 마무리하라.

만약 여러분이 다른 이들과 함께 묵상을 하고 있다면, 침묵 가운데서 여러분이 경험한 것의 일부를 나누어라. 이 시간은 여러분 내념에서 그리고 서로 안에서 들은 것에 관해 경청하고 숙고하는 시간이다.

셋째 날 : 하나님의 조화(調和)

하느님께서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밤과 낮을 갈라놓고 (중략) 또 하늘 창공에서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두 큰 빛 가운데서 더 큰 빛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창세기 1:14-16)

하느님 창조력의 구속 받지 않는 바람이 셋째 날에 지구의 ‘아름다운 견고함’을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늘의 빛들 또는 에리우게나가 ‘천상의 빛나는 것들¹⁾’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탄생시켰다. 태양과 달 그리고 별들의 움직임과 빛의 조화 안에서 그것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현현(顯現) 또는 하나님의 보여줌이다. 어두운 공간에서 빛을 내면서, 그것들은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를 표현한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는 온 세상 땅 끝까지 번져갑니다.’²⁾라고 시편작가들은 말한다. 낮의 태양과 밤의 달은 하나님의 신비를 선언한다. 그것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에리우게나는 ‘접근 할 수 없는 거룩한 빛이 모든 지적 능력을 초월한 이래’ 하나님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³⁾ 어쨌든, 하늘의 위대한 발광체들은 ‘빛들의 거룩한 아버지’에서 태어났다.⁴⁾ 그것들을 통해, ‘하느님은 그 자신을 표현하고 계신다’라고 스콧은 말한다.⁵⁾ 케네스 화이트의 특징적인 시(詩)중 하나인 ‘The Eight Eccentrics(여덟 명의 괴짜들)’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Eriugena, *Periphyseon* 711A.

2) Psalm 19:3-4.

3) Eriugena, *Periphyseon* 919A.

4) James 1:17.

5) A. J. Scott, 'On Schism', *The pulpit* 41(28 May 1842), p. 511.

사람들이 나에게 그 방식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할 때,
나는 그냥 태양과 달을 가리킨다.⁶⁾

창조된 모든 것들과 같이, 그것들은 말씀의 말씀됨이다. 그것들을 듣지 않는 것은 하느님의 자기 계시를 무시하는 것이다.

켈틱 전통은 수세기에 걸친 천체에 대한 뛰어난 인식이 특징이었다. 웨스턴 아일랜드(Western Isles)에는 창조의 어떤 면에서의 사랑과 같이 천계의 빛들에 대한 사랑은 한 유형의 하느님의 은총을 가져온다는 신념이 있었다. 창조의 핵심에 있는 신비는 사랑이다. 자연의 선물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내면이 건강하다는 것이다. 「카르미나 가델리카」 전통에서 축복기도는 창조에 대한 숭배를 동반하는 안녕의 은총을 추구했다.

하늘에 대한 사랑의 은총은 그대의 것,
별들에 대한 사랑의 은총은 그대의 것,
달에 대한 사랑의 은총은 그대의 것,
태양에 대한 사랑의 은총은 그대의 것,⁷⁾

천계에 대한 헤브리디스 사람들의 인식은 섬에서 농사짓고 항해하는 생명의 본질을 부분적으로 벗어나 있다. 낮의 태양 빛은 밭에서 곡식들을 자라게 하고, 밤의 달빛은 어부들을 어두운 바다와 위험한 암초를 안전하게 지나 집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했다. 달은 이와 같이 위대한 돌봄으로 언급되었다. 하지만 단순히 태양과 달에 대해 감사하는 인식 그 이상이었고 또한 그들 내면에 있는 빛에 대한 공경 이었다.

19세기에 들어설 때까지, 웨스턴 아일랜드(Western Isles)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녘과 밤에 하늘의 빛들을 공경하는 것이 공통의 관습이었다. 배라(Barra)섬에서 온 한 여인이 카마이클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6) White, 'The Eight Eccentrics', in *The Bird Path*, p. 137.

7) *Carmina, Gadelica*, III, p. 215.

내 아버지 어머니의 시대에 배라섬에서는 강렬하게 빛나는 태양을 향해 모자를 벗지 않는 남자들이 없었고, 제철에 밝게 빛나는 달을 향해 몸을 굽히지 않는 여자들이 없었어요. 아니군요. 이봐요, 배라섬에서 남자도 여자도 안 그러는 사람이 없었어요. 노인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을 것이고, 나도 가끔 내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⁸⁾

19세기 말까지, 켈틱 전통의 고대 기도문들과 관습들에 대해 상당한 반대가 있었다. 그 시기의 엄격한 칼뱅주의는 스코틀랜드의 그 관습들은 이교도와 그리스도교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스코틀랜드는 아마도 그리스도교 이전의 영향을 잘 간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억눌려져 있던 태양과 달에 대한 숭배는 분명히 그리스도교의 것이었다. 그들의 행위들에는 십자가 상징 만들기도 포함되었다. 켈틱 예술에 있어서 당연히 십자가 디자인은 켈틱 예술의 구조 안에 태양의 상징으로 잘 녹아들었다. 중심에 있는 태양은 십자가의 품 안에 안겨있다. 그것은 자연숭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을 숭배하는 그리스도 신비주의였다. 예수님 안에 함께 공존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들에 대한 성 바오로의 관점과 같이 그것은 서로 얽여있는 영적이고 물질적인 빛으로 이해되었다.⁹⁾ 이 신비주의에 대한 두려움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카마이클의 시대까지 계속 성장했고, 태양과 달에 대한 숭배는 가시적으로 바로 여기와 헤브리디스에서만 실행되었다. 교구 사제들과 학교 지도자들의 반대가 너무 억압적이어서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 전통의 기도문들과 찬송가들을 그에게 전해주는 것을 매우 꺼려한다는 것을 카마이클은 알게 되었다.

그러나 카마이클은 태양과 달에 대한 많은 기도문들을 기록해냈다. 다음의 것은 동쪽 산꼭대기 위로 태양이 떠오를 때나 서쪽 바다로 해가 질 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해왔던 기도문들 중의 하나였다.

위대한 하느님의 눈,
영광의 하느님의 눈,

8) *Carmina, Gadelica*, III, p. 274.

9) See Colossians 1:17.

주인들의 거룩한 왕의 눈,
살아 있는 존재들의 거룩한 왕의 눈
우리에게로 쏟아지네
매 시기, 매 계절에,
우리에게도 쏟아지네
부드럽게 그리고 관대하게.
그대를 위한 영광,
그대 영광스런 태양이여.
그대를 위한 영광, 그대 태양이여,
생명의 하느님의 얼굴이여.¹⁰⁾

안내하고 영향을 주는 달의 힘으로 인해 ‘은총의 위대한 램프’로 숭배 받는 달
은 보통 여성에 의해 그와 비슷하게 숭배되었다.

그대를 찬양합니다, 그대 새로운 달이여,
관대함으로 인도하시는 보석이여!
당신에게 무릎을 꿇고 있나이다,
당신에게 사랑을 드리나이다.

당신에게 무릎을 꿇고 있나이다,
당신에게 내 손을 내미나이다,
당신에게 내 눈을 올려보나이다,
오~ 계절들의 새로운 달이여.

그대를 찬양합니다. 그대 새로운 달이여,
내 사랑의 기쁨에 찬 처녀여!
그대를 찬양합니다. 그대 새로운 달이여,
은총들의 기쁨에 찬 처녀여!

10) *Carmina, Gadelica*, III, p. 307.

그대는 그대의 길로 여행을 떠나네,
그대는 만조를 움직이네,
그대는 우리를 위해 그대의 얼굴을 밝히네,
오~ 계절들의 새로운 달이여.

그대 안내의 처녀 여왕이여,
그대 행운의 처녀 여왕이여,
그대 나의 사랑스런 처녀 여왕이여,
그대 계절들의 새로운 달이여!¹¹⁾

「카르미나 가델리카」의 다음의 축복이 명료하듯이, 태양과 달은 둘 다 은총의 메신저로 여겨졌다. 그것들은 성인들과 천사들처럼 함께 같은 지위에 있었다.

천국의 사랑과 보살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성인들의 사랑과 보살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천사들의 사랑과 보살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태양의 사랑과 보살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달의 사랑과 보살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 삶의 매일 밤과 낮.¹²⁾

우리는 이것의 대부분을 낫설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수준에서, 빛의 신비에 대한 우리의 가장 깊은 체험들의 일부는 이 전통 안에서 태양과 달에 대한 경건한 의식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대지를 깨우기 위해 밤의 어둠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아침 해의 광채를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탈진하고 허약해져 있을 때마다 활기를 주는 태양의 에너지를 우리의 얼굴과 몸에서 느껴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때로 할 말을 잃게 하는 경이로운 방식으로 창조의 신비에 대한 인식을 전하는 달의 힘을 안다.

20세기 서양 세계에서의 우리의 삶들과 과거 켈틱 전통에서의 남성들과 여성

11) *Carmina, Gadelica*, III, p. 285.

12) *Carmina, Gadelica*, III, p. 209.

들의 삶 사이에서 다른 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계의 빛들의 선물과 의식적인 관계에서 멀어졌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 빛들의 경이로움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비록 우리의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이기는 하지만 무한한 밤하늘과 별들의 셀 수 없이 많은 빛띠를 지켜봤던 것을 우리 대부분은 기억할 수 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리듬의 감각과 그런 순간들을 명명하는 기회이다. 도전 과정은 우리의 의식이 항상 깨어있도록 그런 경험들을 명명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태양과 달의 빛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삶의 양식을 욕구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하느님의 빛과의 관계도 그럴 것이다.

아침에 태양을 향해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한 사람이 남자이고 밤에 달에게 무릎을 꿇은 사람이 여성들이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켈틱 전통에서 태양의 빛은 남성적인 표현방식으로 생각되었고, 달의 빛은 여성적인 것처럼 보였다. 태양 빛의 세기는 힘과 외향적 에너지와 연관이 있다. 그것은 명료성, 낮의 빛으로 보이는 것들, 그리고 이성과 지적 능력으로 생각되었다.

다른 한편, 달의 빛은 부드럽고 온화한 것으로 보였다. 「카르미나 가델리카」 전통 안에서 그것은 직관적인 것으로 그리고 느낌과 감성의 흐름으로 생각되었다.

아마 달들 중의 달이
두터운 구름을 뚫고 오시고 있네.
나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어둠의 갈라진 틈을 통해 오시네.¹³⁾

그것은 감각적인 것, 사계의 순환, 조류의 썰물과 밀물 그리고 여성들의 월경 주기와 연관이 있었다.

세상에 흘러넘치는 달의 빛은 태양이 그러하듯이 어둠을 사라지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달은 밤중의 등불과 같다. 달은 밤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밤을 깨닫게 한다. 어두움은 어두움의 공간을 허용 받고, 신비는 드러난다. 「카르미나 가델리카」에서 말하듯이,

13) *Carmina, Gadelica*, III, p. 293.

거룩함이 모두에게 있네
달이 비추는 모두에게¹⁴⁾

이것은 달의 빛이 각각의 것들을 거룩하게 만든다고 말한 다기 보다는 달빛 안에서 각각의 거룩함이 좀 더 손쉽게 인식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도시화된 환경들과 삶의 방식들 안에서 우리가 종종 그 빛과의 접촉을 잃어버리는 것은 빛의 특성이다. 낮의 빛을 통해 보는 것을 상호 보완하는 통찰력을 우리 내면에서 열어주기 위해, 우리는 밤의 빛을 경험하는 방식들을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

켈틱 전통에서 태양은 하느님의 남성적 현신이고 달은 여성적 현신이다. 우리가 그들 중 하나를 잃어버리거나, 하나가 다른 하나를 모호하게 만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창세기 넷째 날에 관한 묵상 중에, 한 여성은 달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 다음날 미국에서 사형 집행된 한 여죄수를 그녀 자신 안에서 보았다. 이런 이미지들은 집단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의를 형성하고 삶의 질서를 세우는 것에서 여성적인 것의 종말과 연민에 관한 여성적인 특징들의 추방을 표현한다.

켈틱 전통이 하느님의 남성적 그리고 여성적 현신에 대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서구 세계에서의 문화적 규범에 관한 큰 중압감, 그리고 성서를 지배하는 가부장적 이미지는 켈틱이외의 교회처럼 신성한 이미지 안에서 켈틱 그리스도교를 남성적 편견으로 이끈다. 하느님의 신비를 나타내기 위해 남성적인 이미지 이상을 사용해온 켈틱 전통에는 의미 있는 욕구와 흐름이 있어왔다.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신비와 하느님의 본질적으로 알 수 없음에 관한 의식을 보존하는 것에 관한 전반적인 켈틱 전통의 주장에 주목해왔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하느님은 우리가 알 수 있거나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통찰 속에서 신비의 모든 이미지들이 설정되었다. 에리우게나는 이것이 앎에 대한 두 가지 방식, 긍정(비아 포지티바 *via positiva*)과 부정(비아 네가티바 *via negativa*)에 기초한 것으로 묘사했다. 신비적 전통 안에서 항상 소

14) *Carmina, Gadelica*, III, p. 299.

중히 간직되어 온 삶의 부정적 방식은 하느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에리우게나는 ‘하느님의 이미지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¹⁵⁾라고 말했다. 이것은 성 베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성이랄 것도 여성이랄 것도 없습니다’¹⁶⁾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그의 강조점과 일치한다.

다른 한편, 삶의 긍정적 방식은 하느님 안에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둘 다 있다고 단언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마음에는 어머니의 마음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도 있다. 예언자 이사야(Isaiah)는 ‘여인이 자기의 췌떡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라고 질문 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견준다.¹⁷⁾ 마찬가지로 말라기서(Malachi)에서는 부성(父性)의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조상은 한 분이 아니시냐? 우리를 내신 하느님도 한 분이 아니시냐?’¹⁸⁾고 묻는다. 본질적으로 하느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지만 그분의 현신 안에서 하느님은 둘 다 이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그분에 대해 좀 더 알아내려는 우리의 연구에서 보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 그 둘이다.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느님 생명의 신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삶에 관한 신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본질은 결국 남성적인 것도 여성적인 것도 아니다. 내적으로, 우리는 그 어떠한 범주보다도 더 깊고 심오한 신비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내면으로부터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둘 다에 관한 현현(顯顯)이 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외부 세계의 소우주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빛들의 조합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이성과 감성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지성과 직관이 있다. 그러나 서구 유산 안에서 고난은 어느 한쪽에만 있어 왔다. 변화는 다가오고 있지만 종종 나는 남자로서 나의 정체성에 관해 오로지 남성적인 차원만을 표출하며 살아갈 것으로 기대됐다. 이것은 때때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른 차원에 대해 삶을 박탈해왔다. 그것은 또한 성적 정체성 문제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기본적인 근거들의 부족을 유발시켰다. 우리는 전통처럼 여성적 깊이를 가진 남성들을 거부하는 성향을 지니게 되었고, 강한 남성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15) Eriugena, *Periphyseon* 896B.

16) Galatians 3:28.

17) Isaiah 49:15.

18) Malachi 2:10.

여성들에게 위협을 느낀다.

켈틱 전통은 우리들의 내면에서 그리고 관계 안에서,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들, 그 둘의 결혼을 축하한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감춰진 깊음의 재발견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과의 통합을 격려한다. 예를 들어, 우리 내면에서 온화함과 신비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추론의 명료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조지 맥도날드는 그의 단편 소설 중 하나에서 이 주제를 탐구하면서, 그런 통합을 우리의 구원의 일부로 이해한다. 가족에게 일어난 구속(救贖)의 변화를 묘사하면서, 그는 ‘남성들의 목소리는 보다 깊었지만, 여성적인 것에 대해 이전보다 더 깊어 보인다’고 썼다.¹⁹⁾ 완전함은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의 조화이다. 알렉산더 스콧이 말했듯이, 그것은 ‘머릿속에 있는 마음, 마음속에 있는 머리, 영혼의 균형’이다.²⁰⁾

켈틱 전통은 그리스도를 이 ‘통합’의 시작으로 이해한다. 그분은 우리에게 ‘인간 본성의 회복에 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에리우게나는 말한다.²¹⁾ 진실로 인간이 되는 것은 우리 내면 안에 가장 깊숙이 있는 것과 통합된다는 것이다. 스콧은 그리스도는 ‘이런 조화의 경험’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길을 알려준다고 말한다.²²⁾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 내면에 심어놓은 것의 깊음과 통합되고 있는 시기를 우리들의 내면에서 알 수 있다. 하느님이 하늘에 둔 것의 조화와 같은 것이다. 「카르미나 가델리카」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는 ‘달의 아들’이고, ‘태양의 아들’이기도 하다.²³⁾ 그는 관계의 조화 안에서 움직이는 태양과 달의 법칙과 같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법칙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이 법을 따르는 것은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옛 켈틱 교회는 그 삶과 선교 안에서 이 통합의 무언가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남녀공동수도원은 그 공동체가 자신을 조직하는 방식에 있어 비전형적이지 않았다. 함께 수도원 규칙에 따른 삶을 추구하는 남성들과 여성들의 종교적인 공동체들이었다. 상당수의 이 공동체들을 아주 잘 알려진 이들 2명이 되는 킬데아

19) G. MacDonald, 'The Castle: A Parable', in *The Gifts of the Child Christ*, I (Eerdmans, 1973), p.290.

20) Scott, *Suggestions on Female Education*, p. 62.

21) Eriugena, *Periphyseon* 533A.

22) Scott, *Two Discourses*, p. 19.

23) *Carmina Gadelica*, I, p. 141.

의 성 브리젯과 휘트비의 힐다(Hilda)와 같은 여성들이 이끌었다. 때때로 그런 시스템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7세기 콜딩햄(Coldingham)의 남녀공동수도공동체에서의 삶은 수도 서약의 성취에 항상 도움이 되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성직자의 결혼에 대한 켈틱의 관습의 경우와 같이, 켈틱 전통의 힘은 먼저 그런 문제를 두려워하고 폐쇄하기보다 오히려 남성적이고 여성적인 매력의 본질적 선함을 이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켈틱 교회는 세례를 받고 생명을 얻는 확고한 통합의 양식들을 그리스도교 이전의 문화유산으로부터 받았다. 예를 들어, 여성 전사들에 관한 고대 켈틱 전통은 오로지 온화하고 가정적인 측면에서만 보았던 여성들을 자유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성적인 모델을 제공했다. 마찬가지로 아일랜드 신화는 여성적인 것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것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도 제공했다. 신과 여신들 사이의 구애와 결혼에 대한 많은 고대 신화들은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사이에서 평등과 재치 있는 상호 영향에 관해 풍부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또한 축일에 관한 그리스도교 이전의 연간 주요 축일 일정표는 땅의 생산력에 관한 순환되는 주제를 가지고, 창조 안에서의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의 관계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켈틱 그리스도교까지 지속된 전통으로 5월 1일에 열리는 벨테인(Beltane) 봄 축제는 대지의 다산(多産)에 영향을 주는 태양의 차오르는 힘을 기념했다. 태양의 생기를 주는 힘은 불의 빛으로 상징화되었고, 노래와 춤을 동반했다. 그 축일은 산비탈에서 방목하는 여름의 시작을 기념했다.

조지 맥도날드의 동화 'Little Daylight(작은 데이라이트 공주)'는 사악한 요정의 저주를 받아 태양으로부터 추방당하는 어린 공주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 저주의 영향으로 공주는 낮에 항상 잠들고 밤에는 깨어날 것이고, 그녀의 여성적 아름다움이 달의 빛을 차오르게 하고 작아지게 할 것이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악이 진정으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차원들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이다. 공주의 이름은 데이라이트(낮빛, Daylight)이고, 그녀의 머릿결은 태양 같은 황금빛이고, 그녀의 눈은 청명한 날의 하늘만큼이나 파란 눈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는 낮을 피해 도망자처럼 살고 있다.

공주를 저주와 추방에서 해방시키는 키스를 하게 되는 왕자가 동화 속으로 들어온다.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은 밤과 달빛에 관한 대면으로 그를 끌어들이는다. 처음에 그는 밤의 빛으로 인해 혼란스러웠고, 숲속에서 발을 헛디뎠다. 그러나 결국 그는 공주를 찾는다. 그녀는 충만한 달빛 아래에서 춤추고 노래를 부르며 숲속 가운데 트인 공터에 있다. 그들의 입맞춤이 그들을 자유롭게 만든다. 사랑은 왕자를 낮에서 밤으로 끌어 당겼고, 그로 하여금 밤에만 살도록 억류된 그녀를 풀어 낮에도 살게 하였다. 이 이야기는 우리 내면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관계 안에서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 통합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의 안녕을 찾아내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다.

에리우게나는 하느님은 창조된 모든 것들의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이고 ‘그분의 아름다움은 모든 것들을 그분께로 끌어들이는다’고 말한다.²⁴⁾ 또한 하느님의 본성은 사랑이고, 그분의 사랑은 모두로부터 사랑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은총의 안내 아래’ 하느님을 향한 욕구를 인식하든 안하든 간에 또는 ‘본성에 대한 단순한 욕구’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그 욕구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다. ‘사랑을 욕구하지 않는 열망에 의해서 창조된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핵심에는 사랑을 향한 열망이 있다.²⁵⁾

이런 욕구의 일부는 우리와 우리 서로의 내면에 있는 하느님 이미지의 남성적 차원과 여성적 차원 사이에서의 끌림이다. 소위 스콧이 말하듯이 ‘인간 영혼의 본래적 욕구는 혼란스러울지도 모르겠다. (중략)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것의 존재를 거부하지도 않고, 그것의 욕구에 대한 유익한 충족을 거부하지도 않을 것이다.’²⁶⁾ 우리의 혼란은 우리를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모든 종류의 헛된 것으로 타락시킨다. 해답은 우리 내부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그 열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욕구들은 우리의 진정한 갈망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갈망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준다.

물론 우리 내면에는 거짓된 욕망들과 공상들, 그리고 성(性)적인 것과 그 외의 것들이 있는데도, 우리 존재의 핵심에 심어진 생명과 사랑에 관한 욕망의 선함을

24) Eriugena, *Periphyseon* 520B.

25) Eriugena, *Periphyseon* 593B.

26) A. J. Scott, 'Self-Education', *The Manchester Examiner and Times*, 18 January 1854.

우리는 알고 있을까? 케네스 화이트는 ‘깊은 기쁨의 핵심에 있는 것들을 아는 것’에 관해 말한다.²⁷⁾ 그 수준에서 만족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다른 차원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혼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낮과 밤의 만남을 ‘으스름(gloaming)’이라고 불렀다. 오래된 이야기들은 그 시간을 연인들이 만나는 시간으로 묘사한다. 켈틱 전설에서 황혼 또는 ‘두 빛들’의 시대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에서 조우가 좀 더 자주 발생할 것 같은 신비적인 시간이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조차 새들의 지저귀이 그 두 빛들의 시간을 알린다. 케네스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쓴다.

약간의 빛들 안에서 때때로
나는 그 빛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해안가 바위의 마지막 휘광
저녁이 다가오는 그 때에
또는 이른 아침 하얀 안개가 끼는 그 시간에
하지만 아주 명확하지는 않다²⁸⁾)

밤의 빛도 아니고 낮의 빛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과도기적인 순간이지만 그 두 빛의 합병이다. 태양의 시간과 달의 시간의 결혼이다. 하느님의 조화의 현현(顯現)이다.

묵상하기

묵상은 생명 안에 깊이 있는 하느님의 조화로 재 일치되는 하나의 방법이다.
집안이든 집밖이든 간에 적절한 자세와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묵상 시간을 갖

27) White, 'The House of Insight', in *The Bird Path*, p. 143.

28) White, 'Late August on the Coast', in *The Bird Path*, p. 234.

도록 하라. 성서와 창조 둘 다에 관해 묵상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공간을 선택하거나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라.

조용하게 읊기 38절의 말씀 ‘당신께서 하늘의 빛들을 낳으셨다’를 반복하라. 동시에 여러분 안에서 상기되는 태양과 달과 별들에 관한 이미지와 기억들을 받아들여라.

만약에 호흡을 반복적인 리듬에 맞추고자 한다면, 날숨일 때 ‘당신께서 하늘의 빛들을 낳으셨다’ 라는 구절을 암송하도록 노력하라. 여러분의 몸이 확장됨을 느껴라. 하느님께서 우주를 빛들로 채우셨고, 생명의 근원인 빛으로부터 그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인식하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숨이 들숨일 때, 하느님이 여러분 안에 빛들을 낳았고, 그 빛들은 관계의 내적 조화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달아라. 15분간 명상에 잠겨 그 성서 구절들을 반복하라.

15분간의 묵상 후에, 조용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를 표현하라. 세상 곳곳에 있는 남성들과 여성들 안에 있는 조화와 총체에 관한 갈망을 여러분과 연결시키려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갈망을 받아들여라. 그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5분간 조용하게 기도한 후에 주의 기도문 또는 다른 기도문으로 마무리하라.

만약 여러분이 다른 이들과 함께 묵상하고 있다면, 다함께 여러분이 침묵 가운데서 경험한 것에 대해 나누도록 하라. 여러분 내면에서 그리고 서로 간에 들은 것에 관해 듣고 숙고하는 시간이다.

다섯째 날 : 하느님의 창조성(創造性)

하느님께서 '바다에는 고기가 생겨 우글거려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창세기 1:20)

대지와 바다와 하늘의 창조물들이 하느님 생명의 바다에서 나왔다. 그들은 '오감을 타고 났다'고 에리우게나는 말한다.¹⁾ 창조물들의 탄생과 더불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발생한다. 태양의 빛과 달의 순백을 이제 볼 수 있다. 나무에 달려있는 잎들과 밀려드는 바다의 파도를 통해 부는 바람을 들을 수 있다. 대지의 이른 새벽 아침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 과일 맛을 볼 수 있고, 질감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단지 창조물의 탄생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 우리의 창조성의 선물에 관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창조된 그 모상에 관한 창조성이다. 에리우게나는 모든 창조물들은 '신의 현현으로 부를 수 있다'고 말한다.²⁾ 그는 이것을 '감춰진 것의 현시 또는 보이지 않는 것의 보여짐'이라고 말한다.³⁾ 하느님은 본질적으로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물 내면에서 보이는 것이 하느님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드러나는 것은 하느님 본질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다. 창조 안에서 어떤 것도 그 자체로 그리고 그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모든 창조물의 영(靈)은 단 하나의 영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하느님은 단순하게 모든 창조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의 본질이다. 사실 우리의 창조성을 포함하여 창조는 하느님의 신비에 관해 보여줌이다.

창조의 다섯째 날의 주제에 관한 묵상 중에, 한 사람이 생명의 강의 흐름을 보았다. 처음에는 작은 물속의 창조물들과 강에 있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를 지나쳐 흐르는 것처럼, 그것들은 최종적으로 물에서 뛰어올라 사슴이 되고 말들이 될 때까지 다른 창조물들의 다양한 종이 되었다. 에리우게나

1) Eriugena, *Periphyseon* 736B.

2) Eriugena, *Periphyseon* 681A.

3) Eriugena, *Periphyseon* 633A.

는 모든 창조된 것들은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물줄기와 같다고 말한다. 시간의 시작에서부터 그것들은 ‘자연의 개별적 객체들의 다른 형태로 지상에 출현할 때까지 비밀스런 경로를 흘러 그것들의 다른 과정들을’⁴⁾ 따라 갔다. 이런 이미지들은 하느님 생명의 보이지 않는 물로부터의 모든 것들의 진화를 이야기한다.

조지 맥도날드는 그의 소설 「릴리스」에서 폭우 속에서 획 비치는 하느님의 환영을 묘사한다.

온갖 창조물들 - 말들과 코끼리들, 사자들과 개들 - 오 그런 짐승들이여! 그리고 그런 새들이여! - 석양이나 무지개의 모든 빛깔로 저 혼자 빛나는 날개를 가진 위대한 새! 대지에 숨겨져 있는 모든 빛나는 보석들로 치장된 것처럼 빛나는 깃털을 가진 작은 새! - 은빛 두루미, 붉은 홍학, 오팔 비둘기, 황금색과 녹색과 파란색으로 장식한 화려한 수컷 공작, 보석 같은 콧노래를 부르는 새들! - 거대한 날개를 가진 나비, 뭉게뭉게 슬금슬금 움직이는 것들 - 모두가 하나가 되는 천국의 빛남이여!⁵⁾

순식간에 흩끗 보이는 것은 하느님의 현현과 같은 생명이 있는 실재의 변화무쌍한 환영이다.

아일랜드 수도사인 콜롬바누스(Columbanus)는 ‘만약 여러분들이 창조자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면, 그의 창조물에 대해 알아보십시오!’라고 말한다.

콜롬바누스의 대륙을 향한 6세기 선교에 후일 성 프란시스코 성인이 훈련받는 이탈리아의 보비오(Bobbio) 수도원 건립도 포함됐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프란시스코 영성과 켈틱 전통 사이의 공통된 특징들 중 하나는 창조물들과의 관계에 강조점을 둔다는 것이다. 동물들과 친구가 되는 켈틱 성자들에 관해 잘 알려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전통이 모든 창조물들의 탄생은 하느님의 현현이라고 주장할 때, 하느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 안의 거룩한 모상에 대해서 이 전

4) Eriugena, *Periphyseon* 750A.

5) MacDonald, *Lilith*, p. 248.

통이 주장하는 것을 무엇인가?

부분적으로 이것은 하느님에 대한 인식 또는 삶에 대한 하느님의 방식, 그리고 창조된 우리 모상의 내적 인식들을 가리킨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켈틱 전통에서 종종 사용되는 관용구이다.⁶⁾ 그것은 외면보다 더 깊은 실재의 차원에서 인식됨을 말한다. 창세기에서 하느님의 정원에 창조물들을 포괄하는 것은 단순히 창조물 실재의 외향적 차원을 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내면에 있는 내적 인식의 창조를 보거나 느끼는 것, 그리고 명명하는 하느님의 방식의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에리우게나가 설명하듯이, 낙원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와 분리된 어떤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완전함의 정도에서 분리된 우리 내면의 하느님의 참된 모상의 위치를 대변한다.

내적 인식의 사용 없이는 우리는 생명의 핵심으로부터 단절되고, 결과적으로 하느님의 지식으로부터도 단절된다. 이것은 우리의 내적 시각 또는 우리의 내적 들음이 결코 잘못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진리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우리의 내적 인식에서 우리가 때때로 얼마나 잘못 인식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 오류를 범하기 쉬움보다 내적 인식에 대한 우리의 태만과 더 관련이 있다. 하느님의 지식이 성서 또는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성서나 교회에서 발견되는 것들 또는 창조의 책을 인식의 내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읽을 수 없다. 이것은 알렉산더 스콧이 말하듯이, ‘마치 여러분이 맹인에게 그를 인도하는 빛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거나 또는 병어린 사람에게 말하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귀가 필요 없다고 단언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⁷⁾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교회 권위에 의해 대대로 불변의 형태로 보호되는 진리의 외형적인 축적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서와 성찬례를 통해 오든지 또는 창조와 서로간의 관계를 통해서 오든지 간에, 우리의 내적 인식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느님에 대한 경험이다. 스콧이 말하듯이 이것은

6) See H. Richardson, 'Celtic Art', in J. Mackey (ed.), *An Introduction to Celtic Christianity* (Clark, 1989), p. 375.

7) A. J. Scott, 'On Schism', *The Pulpit* 41 (9 June 1842), p. 544.

교의이거나 명제적 지식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어떤 보다 깊은 영역’에 속해있는 것이다.⁸⁾ 이것은 영아가 그의 어머니를 알게 되는 방식과 같다.

무엇이 하느님의 지식에 관한 인식들을 계시하는가? 형태들, 색깔들, 감성들, 소리들, 이것들은 영혼이 아니지만 그것들을 통하여 그 영혼에 응답하면서 영혼의 존재를 감지한다. (중략) 심지어 이와 같이 기록하신 성령의 지식은 우주를 통해서 오신다.⁹⁾

지금까지 언급해왔듯이, 켈틱 전통에는 우리가 가장 욕구하는 것은 우리들 삶의 핵심에 있는 거룩한 사랑이라는 확신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분을 보고, 듣고, 향기를 맡고, 맛을 보고, 촉감을 느끼려고 하는 욕구이다. 하느님의 본질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을 넘어선 것이지만, 창조는 하느님의 표현이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인식하고 만질 수 있는 신성한 형상화이다. 갖가지 욕구들은 때때로 그런 욕구들을 인식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삶을 다양한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우리 욕구의 가장 깊은 것이 다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진실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케네스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중략) 사물들의 외형은
즐거움이나 역겨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사물들의 내면은
생명을 준다.¹⁰⁾

켈틱 전통에서 물질적이고 영적인 것은 밀접하게 서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내적 영역에 대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 외적인 인식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종종 내적 관점의 은총이 우리 내면에서 열리는 것은 물질적 관점에 관한 우리의 선물을 통해 올 것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망망대해를 넘어 응시하거나

8) Scott, *Lectures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p. 3.

9) Scott, *Lectures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p. 4.

10) White, 'walking the Coast', in *The Bird Path*, p. 48.

나뭇가지를 통해 비치는 햇빛의 얼룩을 보면서 이것을 경험할 것이다. 내적 수준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에 의해 생명의 끝이 없는 어떤 것 또는 생명의 서로 스며드는 어떤 것을 느끼는 그런 순간에 우리자신을 발견한다.

서구 종교의 유산은 종종 우리를 우리의 창조성에 관한 본질적 선함을 깨닫기보다 오히려 그것에 대한 불신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우리 대다수는 우리의 물질적 감각이 죄의 본성적 종복으로 복무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가르침을 받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하느님의 것으로서 우리의 창조성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을 어려워할 것이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창조성이 타락할 때 문제는 통제되지 않는 창조성의 능력이라기보다 우리의 창조성이라는 인상을 갖게 되는 통제되지 않는 인식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인식의 선물에 관한 묵상 중에, 한 사람은 그 자신의 내면에서 배의 갑판 위에 고기를 쏟아내는 그물망을 보았다. 고기들은 유연하게 뛰어올랐고, 형형색색 물고기들은 빛을 받아 윤기가 났다. 그 물고기들을 봄으로서 그는 그 자신의 창조성에 대해 느끼는 것이 그를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 지를 깨닫게 되었고, 의심과 억압의 굴레에 사로잡혔다. 본성적 욕구가 본질적으로 다루기 힘든 것이라고 배워 온 한, 그는 강렬한 그의 본성적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았다. 많은 그의 창조성의 특징들이 그에게 대단히 불쾌한 것이 되어 버렸다. 그가 그의 묵상 중에 보았던 그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신선하고 빛나기보다 그것들은 오히려 악취가 났다. 이와 비슷하게, 묵상 중에 한 여성은 감금상태로 억류되어 있고, 그들 자신이 되지 못하는 동물들을 보았다. 그녀는 생기 없는 표정의 우리에게 갇힌 사자를 보았다.

켈틱 전통은 우리 의식들의 에너지들이 무질서하게 되거나 심지어는 파괴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의 창조성의 선물에 관한 본질적 선함은 확신한다. 에리우게나는 심판 날에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신 것, 즉 우리의 창조성에 근거하여 심판받지는 않겠지만 우리 인식의 잘못된 사용, 즉 하느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지 않으셨던 것에 근거하여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본성에 관해 비난하는 것은 그분 자신이신 본성의 창조자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다. 만약 죄의 근원이 본성이라면, 그러면 그 본성의 근원이신 하느님은 또한 본성의 죄에 대한 근원이 되어야만 한다’고 그는 지적한다.¹¹⁾

우리의 의식들은 본질적으로 선한 것으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창조의 구체적 형체와 우리의 몸 안에서 하느님의 현현을 우리가 보고 맛보고 만질 수 있게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으로 여겨졌다. 하느님에 대한 욕구는 우리의 창조성 대한 거부와 뒤이은 생명에 대한 외면으로 우리를 이끌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은 생명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매우 핵심에서 하느님에 대해 깨어 있게 우리의 의식들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야 한다. 펠라기우스는 우리가 '나날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게' 물로써 우리를 씻는 그리스도의 은총에 대해 설명한다.¹²⁾ 바라봄에 관한 이러한 방식 안에서 구원은 우리의 의식들로 되돌아가는 것에 관한 것이다. 진실로 살아있게 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은총의 선물은 본성의 선물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창조성의 참된 선물을 되찾게 한다.

목상 중에 한 여성에게 떠오른 이미지는 동굴 안 불길 옆에 나체로 누워있는 것이었다. 날개 부러진 백조가 그녀에게 기대어 있다. 그녀는 목이 자라고 자신의 몸에서 깃털들이 돋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주 강인하고 아름다운 창조물인 백조가 되었고, 날기 시작했다. 이런 이미지들은 우리의 창조성의 상처뿐만 아니라 창조성의 본성적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말한다. 또한 자유롭게 되기를 기다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강인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켈틱의 위대한 성인들을 대지와 바다와 하늘의 창조물들과 결부 짓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그 중 일부는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더 환상적이다. 예를 들어 콜맨(Coleman)은 세 동물들과 친구가 되었다고 한다. 수탁은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맞춰 그를 깨우고, 만약에 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생쥐가 그의 발톱을 조금씩 물어뜯었고, 그리고 파리는 그가 불러야만 하는 시편의 구절들을 가리키는 컴퓨터 이전 시대에 커서가 되었다! 많은 옛 전설 속에는 성인들을 새로운 시작과 선교의 장소로 이끄는 이들은 동물들이었다. 그들에 대한 인상은 의식이 충만히 살아 있는 창조물들은 하느님의 인도하심과 여행의 위험들에 대해 성자들보다 더 깨어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어떻게 켈틱 예술이 창조 전체에서 온 이미지들을 성서 사본들의

11) Eriugena, *Periphyseon* 974A.

12) Pelagius, 'To Demetrias', in *The Letters of Pelagius and his Followers*, p. 62.

예화들 안으로 그리고 높이 솟은 석조 십자가 상안에 조화롭게 새겼는지에 주목해왔다. 아마 위대한 켈틱 복음서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복음서, 「켈스의 서」는 그 책의 장식용 ‘카펫’ 페이지뿐만 아니라 성서 문구의 문자 사이에도 창조에 관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를 그려 넣고 있다. 마태오 복음 첫 장에는 두 마리의 고양이가 조용하게 앉아 교회의 제병을 갉아먹고 있는 두 마리의 쥐를 쳐다보고 있다. 것처럼 일부 묘사는 현실적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재미있기까지 하다. 다른 곳에서는 당연히 생명의 상호 관계에 대한 켈틱의 깨달음을 반영하는 그 이미지들이 생명이 있는 것과 인간과 천사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갑작스레 왜곡되고 기상천외하게 변모한다.

특별히 그리스도교 이후와 그리스도교 이전의 두 시기의 켈틱 전설에서 켈틱의 신성한 상징은 새들이다. 켈틱 영성에 있어 가장 소중하게 여겨온 온 성인들 중에 둘, 복음주의자 성 요한과 아이오나의 성 콜롬바는 공중의 창조물로 규정되었다. 복음서 저자 요한의 신비주의적 통찰력은 종종 독수리 눈의 시야와 예리함과 결부되고, 콜롬바의 이름 ‘Columcille(콜룸실)’은 ‘교회의 비둘기’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켈틱의 그리스도교 이전의 과거 문화 안에서 신성한 유대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용법 상징주의(the church's usage symbolism)에 적응하는 켈틱 그리스도교의 전형이었다. 이에 대한 가장 분명한 예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대표하여 새의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일부 아일랜드 석조십자가에서 부활절 아침에 무덤을 방문하는 여성들에 대한 묘사는 생명을 되찾아 그리스도의 입으로 다시 들어가는 새를 보여준다.

그리스도교 이전에 기원을 둔 전설들 안에서, 저세상에서 온 메신저는 종종 새로 변장하여 나타난다. 알려진 바대로,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꾸기’는 켈틱 이야기들에서 반복해서 떠오르는 이미지이다. 그것은 물질세계의 유동성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신비한 상호관계의 유동성에 대한 의식들을 전달한다. 그것은 조지 맥도날드가 19세기 그의 이야기에 채택한 켈틱 전설의 수많은 주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예를 들어 소설 「릴리스」에서 라이벤(Mr. Raven)씨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를 왕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영적 세계에서 온 메신저이다. 하늘에서 대지로 또는 바다에서 하늘로 재빠르게 이동하는 새들의 능력은 새들을 천국과 대지 사이의 소통에 관한 강력한 이미지로 만든다. 그

와 같은 이미지들은 성서의 에제키엘(Ezekiel)의 상상 속에서 나오는 하느님 옥좌 주변의 6개의 날개를 가진 창조물의 본질이거나, 솔로몬 사원 내부성소의 천정을 덮고 있는 이미지들, 날개를 펼치고 공중을 날아가고 있는 케루빔의 이미지들이다.¹³⁾

켈틱 전통에서 전달된 것의 일부는 그저 창조물에 대한 보다 큰 깨달음이다. 내가 아이오나에 있던 시절 나는 ‘개똥지빠귀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진 ‘던스미오랏쉬(Dunsmeorach)’라는 집에 살았다. 아이오나의 옛 게일어를 쓰는 사람이 나에게 그 집이 어떻게 그렇게 불리게 되었는지를 말해줬다. 섬의 남자들이 그 건물에 짓고 있을 때, 어미 개똥지빠귀 한마리가 벽 한 구석에 둥지를 틀었고, 거기에 알을 낳았다. 남자들은 어린 새들이 날아갈 때까지 그 벽에서는 건축 작업을 하지 않았고, 새의 생명에 대해 아주 사려 깊게 행동하였다. 그래서 그 수도원 반대편 작은 언덕위에 자리 잡게 된 그 집은 ‘개똥지빠귀의 언덕’인 ‘던스미오랏쉬’라고 불리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켈틱 전통의 전형으로서 창조에 대한 깊은 배려를 드러내는 이야기이다.

켈틱 영성의 창조인식이 그저 아름답고 순결한 창조물에 관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켈틱 전통은 그런 용어로 대변된 만큼 로마 전통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자연 세계에 대한 켈틱전통의 숭배에 대한 부분은 또한 창조의 야생성과 힘에 대한 존경이다. 켈틱 전통은 저기 밖에 있는 동물계와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켈틱 전통이 원래 그랬듯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생명의 깊음과의 관계에 그 숭배가 있음을 알고 있다. 켈틱 전통의 시와 기도문들 안에서 기념된 거대한 바다 괴물은 바다의 감춰진 심연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본성의 아주 깊은 구석에서도 살고 있다. 그것을 신비의 일부로 명명하는 것은 그 괴물의 사나움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괴물의 야생성을 길들이려고 시도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괴물의 힘에 대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네스호스(Loch Ness)의 바다괴물과 마주치고 있는 성 골롬바의 이야기는 이 점을 분명히 한다. 한 소년이 호스를 가로질러 헤엄치다 거대한 창조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성인(聖人)이 발견하였다. 그는 그 창조물을 꾸짖었다. 그

13) See Ezekiel 1 and 1 Kings 6:7.

괴물을 죽이지도 않았고 길들이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소년을 구하기 위해 파괴적인 그 괴물의 힘에 맞섰다. 켈틱 전통은 생명체 안에 숨겨져 있는 파괴적인 능력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켈틱 전통은 그것에 대해 태도를 바꿔 이 힘을 존중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서 그 생명체를 단지 위험이라는 측면에서만 규정하지 않는다. 그 바다 괴물 역시 하느님의 현현이다.

야고보서에서는 ‘짐승들에게 물어보게, 가르쳐주지 않나.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게, 알려주지 않나’¹⁴⁾라고 말한다. 동물계를 바라보는 것은 하느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켈틱 전통에서 창조의 신비는 그리스도 신비의 일부이다. 성 바오로가 말씀 하듯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다’¹⁵⁾ 그것들은 그 안에서 충만히 표현된 것의 일부이다. 하느님의 말씀과 말씀하심처럼, 그리스도는 우리가 멀리한 창조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창조성을 거부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회복하라고 요청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창조성에 관한 선함을 보여주신다.

조지 맥도날드는 그의 단편 소설 「The Golden Key」(천국의 열쇠)에서 우리의 의식의 회복에 관한 주제를 탐구한다. 그에게 있어서 구원은 창조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창조물들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 이야기의 작은 소녀는, 지혜와 거룩한 모상을 이미지를 지닌 아름다운 할머니의 모습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창조물들에게 귀 기울이기 시작한다.

그들은 다만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들은 연설을 하고 있었고, 그 연설을 그녀는 이해할 수 있었다. (중략) 그녀는 그 연설의 단어를 되풀이 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¹⁶⁾

창조와 우리의 관계 회복의 부분은 새로운 방식으로 듣고자 하는 의지를 포괄하고, 듣는 가운데 인간의 말과 사고로 쉽게 통역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우리 자신을 열게끔 한다.

14) Job 12:7.

15) Colossians 1:16.

16) MacDonald, ‘The Golden Key’, in *The Gifts of the Christ Child*, I, pp. 160-162.

들음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 중 하나는 창조물에 대한 단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필요로 한다. 케네스 화이트는 그의 시에서 이것에 관해 많은 예를 제공한다. ‘화이트의 시학에 관한 간단한 소개’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쓴다.

우선 캐나다 기러기를 바라보자
갈색 몸채, 희끄무레한 가슴
까만 머리, 길고 검은 목.

거기에 흑기러기가 있다.
날아가는 새들의 울음소리
빠르게 반복되는 꺼억
꺼억 꺼억 꺼억 꺼억 꺼억 꺼억 꺼억
(황홀해 하는 에스키모처럼)

흰 기러기는
눈부시게 하얀 깃털에
검은색 돌기가 있는 날개를 가졌다 ...
유럽에서는 백조로 착각할 지도,
또는 북가마우지일지도 모른다.
갑자기 당신이 그 새를 깨달을 때 까지
‘칸크’하는 거슬리는 소리와 함께
그들은 모두 기러기들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은 날아간다.
바람과 비와 눈을 뚫고서.

야생의 영들
그들이 아는 것을 안다는 것.¹⁷⁾

17) White, ‘Late August on the Coast’, in *The Bird Path*. pp. 237-239.

주의 깊게 지켜보는 기쁨을 통해만 드러나는 창조물들로부터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고요하게 있는 그들의 능력이다. 그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에 대한 고도화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그런 고요, 또는 상처 입었을 때 동물들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놓는 그런 방식이다. 이 주제에 관한 목상 중에 나는 나의 내면에서 상처 입은 사슴이 헤더(heather) 더미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사슴은 눈을 뜨고 있었고, 여전히 살아있었다. 고통 받는 가운데, 그 사슴은 고요함에서 나오는 치유를 지켜보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

또한 거기에는 창조물들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노래가 있다. 거룩한 성 요한은 헤엄치고 날아다니고 움직임이 있는 모든 것들에 의해 불리는 끝없는 기도의 노래를 상상한다. 요한 묵시록에서 하느님 왕좌 주위에 네 마리의 살아 있는 창조물들이 모여 있었고, ‘그것들 각각은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앞뒤에 눈이 가득 박혀 있으며’, 대지와 바다와 하늘의 창조물들을 대표한다. 생명과 의식의 활력으로 전율하며, 그들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로다!’¹⁸⁾라고 노래 부른다. 「카르미나 가델리카」 전통에서 한 여성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 아래 대지 위에, 그리고 대양(大洋) 아래에, 그리고 하늘 그 위에 모든 창조물들이 만물과 온갖 세상의 위대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다. (중략) 그리고 병어리가 될 것이다.’¹⁹⁾

물론, 끊임없이 이어지는 저 기도의 대부분은 들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로 표현되지 않고, 존재로서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람을 타고 나는 풀머갈매기의 환희이다. 자신의 아기 새에 대한 찌르레기의 충실함이다. 벌레들이 어디로 움직이든, 어느 방향으로 가든 그 곳으로 날아오르는 찌르레기의 신비스런 깨달음이다. 케네스 화이트는 그의 작품 「Epistle to the Birds of this Coast」 (이 해안가의 새들을 위한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18) Revelation 4:8.

19) *Carmina Gadelica*, III, p. 25.

계속해서 하늘을 날아 다니세요
어떻게 나는지 당신이 알고 있듯이
바람을 타고서
눈을 크게 뜨고서
해안선을 따라서
(규정하기 어려운 어떤 다른 것과 더불어)
가끔 한 두 번의 비명을 지르고

우리 중 몇몇이 여기에 내려앉은 들 누가 신경쓰리
추억의 한편이 될 것이다.
(징표들과 더불어
우리는 돌 안에서 침묵을 읽는다)
마음의 집 너머 길
곧장 뺏속까지²⁰⁾

묵상하기

하느님이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 존재와 긴밀히 얽혀 있다는 의식들을 일깨우는 방식이 묵상이다.

그곳이 야외든 집 안이든 적절한 위치와 적절한 장소를 찾아 묵상을 시작하라. 성서와 창조에 관해 묵상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장소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거나 만들어라.

욥기 12장에 나온 말씀 ‘짐승들에게 물어보게, 그들이 네게 말해줄 것이네’를 조용하게 반복하라. 동시에, 여러분 자신 안에서 상기되는 창조물들과 인간 감각들의 이미지들과 기억들을 받아들여라.

만약 당신의 반복되는 리듬에 당신의 호흡을 맞추고자 한다면 당신이 들숨일

20) White, 'Late August on the Coast', in *The Bird Path*, pp. 233-234.

때 ‘짐승들에게 말해보라, 그들이 네게 말해줄 것이네’를 암송하도록 노력하라. 당신의 몸이 확장됨을 느껴라. 묵상 기도 중에 우리 자신 안 깊숙이 거주하시는 그분에게로 우리 자신을 열고 있음을 깨달아라. 우리는 그런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지혜를 들을 수 있다. 당신이 날숨일 때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네게 말해줄 것이네’라고 암송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자리하고 계신다는 당신의 창조성과 내면적 의식의 능력을 깨달아라. 여러분 내면에서 다시 일깨우는 방식으로 명상에 잠겨 15분간 그 구절들을 반복하라.

15분간의 묵상 후에, 조용하게 여러분 마음의 기도를 읊조리기 시작하라. 육체와 관계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남성들과 여성들의 내면에서 좀 더 충만히 살아가려는 그들의 갈망을 여러분과 연결하려는 마음의 욕구를 받아들여라. 더불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조용히 기도를 5분간 드린 다음 주의 기도문이나 다른 말씀들로 마무리하라.

만약 당신이 다른 이들과 함께 묵상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침묵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어라. 이 시간은 우리 내면에서 들었던 것과 서로에게서 들었던 것을 경청하고 숙고하는 시간이다.

여섯째 날 : 하느님의 모상(模像)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셨다.(창세기 1장 27절)

여섯째 날에 하느님의 ‘모상’과 ‘유사함’으로 인간이 태어났다고 창세기는 말한다.¹⁾ 인류는 그 자체 안에 창조된 모든 것들의 신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출현은 탄생의 충만함을 위한 창조의 성취였다. 다섯째 날의 창조성과 태양과 달의 남성성과 여성성은 인류 안에 자리를 잡았다. 이와 유사하게, 대지의 ‘아름다운 견고함’과 창조성의 소용돌이치는 근원적 움직임들 그리고 첫째 날의 빛 모두가 인류의 창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조지 맥도날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중략) 하느님 자신의 끝없는 영광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쓴다.²⁾ 이것은 대체로 켈틱 전통이 서구 전통으로부터 명백하게 분화되는 지점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본질에서 창조되었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창조되지 않았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존재를 위해 하느님의 존재하심이다. 만약 하느님의 생명이 어떻게든 우리의 생명으로부터 추출된 것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알렉산더 스콧은 인간 안에 있는 거룩함의 역임을 19세기 궁정 의상들에 누벼진 실에 비유했다. 옷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실은 제거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은 인류의 존재함 안에 있다. ‘고귀한 본성’의 천에 우리를 엮었고, 실의 제거는 우리의 전체적인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스콧은 말했다.³⁾

우리가 거룩한 모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하느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핵심에는 하느님의 사랑과 지혜, 하느님의 창조력과 상상력, 야생성이 있다. 스콧은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고,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인간적인 것이라고

1) Genesis 1:26.

2) MacDonald, *Lilith*, p. 147.

3) Scott, *The social Systems of the Present Day*, p. 348.

말했다.⁴⁾ 하느님은 단지 인간을 옆에 두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존재한다.⁵⁾ 그는 조물주가 인간과 동체를 이뤘다고 말한다.⁶⁾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모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진정한 인간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하느님과 비슷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신비라고 믿는 것이다. 에리우게나가 말하길, 하느님의 본질이 보이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으며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것처럼 그분의 본질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과 함께 있다.⁷⁾ 우리에게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이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신비를 좀 더 깊게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그것의 무한한 깊이를 깨닫게 된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핵심은 항상 지식을 뛰어넘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든 정의(定義) 될 수 없다’고 에리우게나는 말한다.⁸⁾ 켈틱 전통의 이런 관점은 인간 본성에 대한 경외심으로 이끈다. 내적으로 각각의 남녀는 거룩한 신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단지 객체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켈틱 전통이 우리 내면 깊숙이 있는 신비를 나타내는 방법들 중 하나는 ‘우리 본성의 삼위일체’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이전의 켈틱 세계에서 조차 삼위의 사랑이 있었다. 신성한 숫자 3은 켈틱 선교에 의해서 하느님과 인간의 신비들에 관한 켈틱 전통의 핵심적 가르침으로 축성되었다. 성 패트릭(St Patrick)의 전설에서는 하느님의 단일성에 관해 삼위의 신비를 암시하는 세잎클로버를 사용한다.

에리우게나는 ‘창조적인 삼위일체의 모상과 유사함’으로 형상을 갖추게 된 존재로 인간을 묘사하면서, 삼위일체 안에서 일치의 켈트적 사랑을 더욱 발달시켰다.⁹⁾ 우리 존재 전체는 아버지 하느님의 이미지와 그 아들의 이미지 그리고 거룩하신 영의 이미지를 반영한다. 다른 말로, 우리 존재의 어떠한 부분도 창조하고 구원하며 영감을 주는 하느님의 신비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없다. 그

4) Scott, *Two Discourses*, p. 33.

5) Scott, *Lectures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p. 28.

6) A.J.Scott, ‘Social Systems’, *The Woolwich Gazette*, 2 January 1841.

7) Eriugena, *Periphyseon* 585B.

8) Eriugena, *Periphyseon* 771D.

9) Eriugena, *Periphyseon* 567D.

러나 다른 것들보다도 삼위일체의 한 측면을 특별히 반영하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특별한 차원이 있다. 우리 존재의 **본질**은 삼위일체의 첫 번째 인격, 모든 것들이 근원으로 삼고 있는 우주적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반영한다. 우리 존재의 **표현**은 거룩한 사랑의 표현함 인 하느님의 자녀를 반영한다. 창조성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우리 존재와 우리 능력의 **활동**은 맨 처음 그 물의 어둠으로부터 생명을 불러일으켰던 성령을 반영한다. 우리 본성의 삼위일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교리나 공식(公式)으로 우리 존재를 정의할 수 있다고 암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삼위일체의 신비가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둘 다에서 우리 자신의 신비의 토대라고 말하는 것이다.

창세기의 기술(技術)은 신속히 아담과 이브의 창조에서 '타락'으로 신속히 옮겨간다. 인간은 죄를 짓게 되고 그럼으로써 인간의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해두자, '순결함을 잃음'으로 인해 켈틱전통이 거룩한 모상을 지워버리거나 파괴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신성한 유사함이 감춰지거나 잊힐 수도 있다. 그것은 부정행위에 의해 지독한 구속을 야기할지 모르지만, 비록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근원에는 하느님의 모상이 남아있다. 우리는 그 모상을 왜곡해왔지만 지우지는 않았다. 에리우게나는 비록 모든 이들에게 남아 있는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었지만, 인간 본성의 온전함'은 어느 누구에게서도 파괴되지 않았다'고 말한다.¹⁰⁾ 우리 삶의 실패들과 우리가 행해온 잘못들은 하느님이 우리 본성의 촘촘한 천으로 엮여 놓은 것은 풀어헤칠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영성 모델에서 구원은 우리의 삶이라는 밭에 깊숙이 묻힌 보물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대체로 그것이 모호해 질 때조차, 불멸하며 파괴되지 않는 본성을 가진 하느님의 이미지는 우리 자신 안에서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서 언뜻 보여질 수 있다. 펠라기우스는 그리스도 은총을 입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는 선함과 지혜는 이것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펠라기우스는 또한 모든 인간존재 안에 선과 악의 지식들이 심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얼굴이 붉어지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왜

10) Eriugena, *Periphyseon* 1016B.

지? 라고 묻는다.

본성 그 자체가 그 자신의 목격자이고 악에 대한 본성의 반감이라는 그 사실로 인해 본성의 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밖에 다른 이유가 있는가? (중략) 그런 이유로, 비록 살인자의 정체성이 은폐되었다 하더라도, 양심의 고통은 범죄 모의자를 격렬하게 공격하고, 마음 속 은밀한 처벌은 숨어있는 죄인에 대해 복수를 감행하는 일이 종종 생긴다.¹¹⁾

펠라기우스는 우리 내면에서 한 유형의 본성적 신성함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와 우리가 잘 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법이 정한 것을 본능적으로 행하는 외부종교 유대교에 관해 성 바오로가 로마교회에서 한 언급을 이것과 비교한다. ‘그들은 법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¹²⁾’고 성 바오로는 말한다. 이 본능적 지식은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 모상의 일부이다. 이것은 우리의 불복종으로 지워지지 않았지만 모호해지거나 흐릿해졌다.

우리 대부분은 기대치 않던 사람들에게서, 기대치 않던 장소에서 하느님 모상의 영광이 드러나는 어떤 언뜻거리는 것을 경험 할 것이다. 이런 주제에 관한 묵상 중에, 한 사람은 그가 알고 있는 사람이 술에 취해 도랑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 것을 기억해냈다. 고주망태가 된 오래된 지인을 발견하여 놀라웠을 뿐만 아니라, 그 지인의 눈빛에서 흘러나오는 신뢰의 빛에 그는 깜짝 놀랐다. 그가 보여준 그 수치스런 걸모습보다 더 깊이 있었던 것은 그 사람 안에 감춰져 있던 고결함이었다. 비슷하게, 묵상 중에 다른 사람이 치매 말기에 있는 한 늙은 여성을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해냈다. 그는 그녀의 표정에 있는 지독한 혼란으로 인해 가려진, 그녀 안에 있었던 존엄성을 순간적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그것은 종종 우리 내면에 있다. 우리 내면의 혼돈 한가운데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진정한 본성에 대한 짧은 체험을 한다. 그런 짧은 체험들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으로 돌아

11) Pelagius, ‘To Demetrias’, in *The Letters of Pelagius and his Followers*, p. 39.

12) Romans 2:15.

오라고 손짓한다.

우리가 창조 된 하나님의 정원은 파괴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포기되지도 않았다. 우리는 그곳에서 추방된 상태로 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영원히 거주하시고, 우리와의 동행을 원하신다. 창세기는 하나님을 저녁 바람이 부는 시간에 정원을 거닐면서, ‘너 어디 있느냐?’¹³⁾고 부르시는 것으로 묘사한다. 에리우게나는 그 정원이 ‘하나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의 인간 본성’이라고 말한다.¹⁴⁾ 그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면서 우리 영혼의 정원에서 거닐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인간 본성을 꾸짖는 창조주의 소리이다. 마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죄를 짓고 난 후에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왜냐하면 나는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고 알고 있는 그곳에서 너희를 찾을 수가 없었고, 나의 모상과 유사함으로 만든 너희의 존엄성 안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래서 나는 축복받음을 포기한 자, 진리의 빛을 피하는 도망자로서 너를, 너희의 양심 깊은 곳 비밀의 장소에 네 자신을 숨겨버리는 너를 꾸짖는다. (중략) 왜냐하면, 너희가 [금지된 과일]을 먹지 않았다면 아마도 너희는 그 분이 너희 안에서 거니실 때나 그분의 면전에서 도망칠 때나, 너희가 죄를 짓고 너희가 잃어버린 별거벗음에 대해 깨달게 될 때에도 너희 창조주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¹⁵⁾

우리는 내적으로 우리의 핵심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참된 단순함으로 살아가기보다 죄의 거짓된 복잡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가려 버렸다. 에리우게나는 우리가 아닌 것을 추구하는 것 또는 진실로 우리가 누구인지가 아닌 다른 존재로 보이려고 하는 것을 실패로 규정했다.¹⁶⁾ 우리 영혼의 정원에서 그 소리는 묻는다. ‘너 어디에 있느냐? 왜 너희는 너희가 창조된 모상의 별거벗은 아름다움에

13) Genesis 3:8-9.

14) Eriugena, *Periphyseon* 822A.

15) Eriugena, *Periphyseon* 841D-842A.

16) Eriugena, *Periphyseon* 962B.

대해 자신감을 잃어버렸느냐?’

비록 켈틱 전통이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상이 영원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워질 수 없다고 강조하지만, 그것 때문에 죄의 깊은 파괴적 결과에 안이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 존재의 토대는 죄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가장 깊은 수준에서 흔들려왔다. 에리우게나는 우리 인간 본성이 ‘그 자신과 그 자신의 창조자에 대한 깊은 무지’로 빠져들어 감에 따라 ‘에텐동산으로부터의 추방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끔찍한 것이었다’고 말한다.¹⁷⁾ 그래서 극단은 우리가 창조된 모상을 점점 더 잊어버리고 우리의 진실 된 자신으로부터 떠남이다. 에리우게나는 이것은 ‘영혼의 망각’이라 부른다.¹⁸⁾

우리가 누구인지 망각한 채로, 우리는 지혜 대신 무지로, 사랑 대신에 공포로 그리고 실재 대신에 환상으로 살고 있다. 하느님의 모상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실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수록, 우리는 하느님의 선물에 관해 그것의 내면적 깊이를 덜 탐구하게 된다. 우리가 우리 존재의 내면에 심어져 있는 영적 자원들에 대한 이용을 줄일수록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더욱더 믿게 된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풍요로움이 있다고 믿지 않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에 대한 경외감을 덜 갖게 된다. 펠라기우스가 드미트리아스(Demetrias)에게 조언한 것처럼, 하느님의 선물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에만 그녀가 최대한 그것들을 이용 할 수 있게 되는 그 선물의 현존을 그녀 내면에서 누군가 먼저 인식해야만 한다.¹⁹⁾ 내면적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 모상의 선물을 안다는 것은 당연히 과장된 자아의식을 가진 것과는 매우 다르다. 후자는 한 측면에서 자기 무력감이 되는 만큼 다른 측면에서는 거짓이다. 진실 된 우리 자아의 아름다움과 존엄성은 선물이다.

조지 맥도날드는 그의 소설 「릴리스」에서 ‘안개 너머 쳐다보듯이’ 물의 흐름이 없는 땅의 둔하고 추한 거인들을 묘사한다.²⁰⁾ 그들은 아직도 천진난만하게 살고 있는 ‘작은 사람들’의 현존을 그들 자신들 가운데서 분명하게 감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때 그들 자신들도 작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지도 못

17) Eriugena, *Periphyseon* 777C.

18) Eriugena, *Periphyseon* 919B.

19) Pelagius, ‘To Demetrias’, in *The Letters of Pelagius and his Followers*, p. 37.

20) MacDonald, *Lilith*, p. 67.

한다. 마찬가지로, 맥도날드는 유대 신비주의(Jewish Kabbalah) 전통에서 아담의 첫 번째 부인인 릴리스는 그녀의 참된 자아와 동떨어져서, 그녀 자신의 의지와 그녀의 사악한 그림자의 악한 의지를 혼동하는 존재로 묘사한다. 그녀는 회개 요구에 대응하여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사랑의 메신저는 ‘아아~, 너는 지금 네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구나! 너는 진정한 네 자신이 되지 않을 것이냐?’라고 말한다.²¹⁾

알렉산더 스콧이 말하듯이, 우리의 성향은 우리 존재의 기반의 부분인 하느님 모상의 속성을 ‘의심하거나 거부’한다.²²⁾ 복음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놓여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기억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어진다. 이런 주제에 관한 묵상 중에, 다음의 시편의 구절들을 깊이 생각한다.

그를 하느님 다음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 습니다.²³⁾

한 사람이 영광의 왕관을 계속해서 뿌리치는 그 자신을 보았다. 그는 내면에 있는 하느님 모상의 선물을 거절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은, 이 구절들에 관한 묵상 중에, 공공 미술관의 인상 깊은 계단을 기억해냈다. 그는 사람들이 마치 그들은 그 계단의 웅장함을 느낄 자격이 없다는 것처럼 불안하게 난간을 붙잡고 오른 내리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하느님 모상의 존엄성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다는 것을 쉽게 불신하고, 대신에 실패와 자격없음에 대한 의식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물론, 우리 내면에는 자격없음이라는 것이 많이 있다. 우리는 삶 안에서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조차 실망시켰다. 하지만 하느님 모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랑스러움이 아직도 보다 깊은 곳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을까? 성경은 하느님을 ‘아름다움의 왕’으로 언급한다.²⁴⁾ 켈틱 전통은 내심 우리가 아름다움의 공주 또는 왕자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

펠라기우스는 드미트리야스에게 보낸 그의 편지에서 그녀에게 우리 자신에 관

21) MacDonald, *Lilith*, p. 199.

22) A.J. Xcott, *On the Divine Will*(Lusk, 1830), p. 11.

23) Psalm 8:5.

24) Isaiah 33:17.

한 평가를 낮출수록, 참된 자존감에 대한 능력은 덜해지질 것이라고 조언한다. 다른 여성에게 그가 쓰기를 ‘당신의 기원에 대해 유념하고, 당신의 혈족을 깊이 생각하며, 당신의 고귀한 혈통의 영예를 존중하라. 당신은 단지 한 사람의 딸일 뿐만 아니라 신성한 탄생의 고귀함으로 축복 받은 하느님의 딸이기도 함을 인정하라’²⁵⁾ 우리들 내면에 있는 이러한 깊음을 안다는 것은 또한 다른 이들의 내면에서 그것들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관해 중요한 부분이다. 펠라기우스는 ‘하느님에게는 어떤 것도 모욕적이지도 않고, 누구라도 미워하게 되고 누군가에 상처 주고자 하는 혐오도 없으며, 모두를 사랑하는 그 분의 관점에서 그렇게 칭송받을 만한 존재도 없다고 말한다.²⁶⁾ 다른 이들 안에 하느님 모상을 숭배하는 것의 핵심적인 측면은 그들을 헐뜯거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의 혐담을 믿는 것도 삼가는 것이다. 펠라기우스는 ‘혐담에 관한 이런 관행은 매우 중대한 과오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이들을 가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당신은 혀 못지않게 귀로도 명예훼손을 피해야 한다.’²⁷⁾

켈틱 전통은 죄를 자신의 영혼의 망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의 감염으로 이해한다. 에리우게나 그것은 ‘영혼의 나병’이라고 부른다.²⁸⁾ 그것은 하느님의 모상의 아름다움을 뒤틀어 버리는 감염이다. 나병이 피부를 흉하게 만들고 인간의 표정을 기괴하게 바꾸어 버리듯이, 죄는 영혼의 표정을 일그러뜨린다. 그것은 우리의 참된 자아에 대해 아주 최소한의 유사점만을 지닌 우리 내면의 광기 또는 괴물 같은 모습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은 ‘그 자체의 고유한 형태를 지닌 조금 이상한 표정과 같다’고 에리우게나는 말한다.²⁹⁾

그래서 인간 영혼에 대한 우리의 인상이 흐릿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잘 못되거나 이기적일 때 우리가 종종 단지 인간 본성에 따라 행동했다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다. 켈틱 전통은 단호하게 그런 실패는 인간 본성이 아니고 인간 본성의 왜곡이라고 말하려고 한다. ‘이것은 죄를 지은 것은 본성 자신이 아니라’ ‘본성을 거슬러 구분별하게’ 움직이는 의지의 무절제한 사용이라고 에리우게나는 말한

25) Pelagius, ‘On Virginity’, in *The Letters of Pelagius and his Followers*, p. 84.

26) Pelagius, ‘On Virginity’, in *The Letters of Pelagius and his Followers*, p. 84.

27) Pelagius, ‘To Demetrias’, in *The Letters of Pelagius and his Followers*, p. 57.

28) Eriugena, *Periphyseon* 531C.

29) Eriugena, *Periphyseon* 801B.

다.³⁰⁾

왜냐하면 그 자체로 악은 기형이고 혐오스러운 추함이기 때문이다. 만약 죄를 범하는 의식을 있는 그대로 보자면, 그것은 큰 기쁨을 따르거나 즐기는 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회피하거나 혐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주의한 의식은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는 중에 스스로를 속인다. 왜냐하면 그것은 악함을 우러러 보기에 좋고 타당하며, 쾌락을 맛보게 하는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³¹⁾

서로에 대한 우리의 결점과 비인간성은 인간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선함’을 사용하는, 우리 본성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라고 에리우게나는 말한다.³²⁾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참된 자아로 회복되는가? 에리우게나는 우리의 영혼의 기억을 회복하고 우리 안 깊은 곳의 감염을 회복시키는 ‘신성한 은총의 약’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병의 보기 싫은 감염으로 인해 인간신체의 피부가 고통 받고 있는 것처럼, 인간 본성은 감염되었고 (중략) 창조주와는 다른 모습이 되었다. 그러나 신성한 은총의 약으로 인해 그 나병을 고치게 될 것이고, 원래적인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본질적으로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본성은 그것의 아름다움을 꽃피움도 그것의 본질적 온전함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도 않았다. 신성한 형태로서 (중략) 그 자체는 불변의 것으로 남아있다.³³⁾

예수에 의해 치유된 10명의 나병환자에 관한 성서의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에리우게나는 그들이 항상 그들의 진실 된 표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그들의 얼굴이 나병의 종양들과 추함으로 뒤덮여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

30) Eriugena, *Periphyseon* 760C.

31) Eriugena, *Periphyseon* 826C.

32) Eriugena, *Periphyseon* 975B.

33) Eriugena, *Periphyseon* 872A-872B.

런 점에서 그는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없어지거나 변해 버린 것이 아니라 흐려진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³⁴⁾ 한때 ‘질병으로 가려졌던 얼굴이 건강하게 다시 빛난다.’³⁵⁾

우리 내면의 하느님 모상을 회복한다는 것의 의미를 주제로 묵상 중에, 한 여성이 잿더미 같은 것이 그녀에게 달라붙어 있어 암흑에 매여 있는 그녀 자신을 보았다. 그 재들은 쓸어서 털어 버릴 필요가 있었다. 다른 사람은 그녀가 이상한 얇은 옷으로 가렸다고 상상했다. 그것은 아주 얇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본성적인 것을 완전히 모호하게 만들었다. 좀 더 현대적인 이미지는 조각나 있었던 컴퓨터 플로피 디스크에 관한 것이었다. 그 디스크의 내용물들은 완전히 무질서했다. 복원은 컴퓨터의 메모리 안에서부터 그 디스크의 재배열을 의미했다. 그런 이미지들은 구원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켈틱 전통에서 자비로운 하느님의 선물은 우리의 본성적 안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성의 선물과 은총의 선물은 둘 다 하느님의 것이다.

그런데 켈틱 전통은 특별히 은총의 약을 어디에서 찾나요? 무엇보다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인간이라는 것을 선물한다.

‘그리스도의 본성적인 것’에 대해 알렉산더 스콧은 식물을 조사하고 나뭇잎에 결함이나 반점들을 찾아내는 식물학자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식물학자가 이전에 그런 나무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함이나 반점들이 그 나무에게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근원으로부터 발생한다고 결론 내릴 것이다. 그것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세상의 남성들과 여성들을 살펴볼 때, 스콧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그들 안에서 인간성을 보지만, 우리는 오염되거나, 제한되거나 뒤틀린 인간성을 가진 어떤 것을 본다. 그리고 만약 남성이 하느님의 손에서 나온 것처럼 그를 상상할 거라면, 우리는 이것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상상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사고 안에서 우리는 그것들의 단

34) Eriugena, *Periphyseon* 873A.

35) Eriugena, *Periphyseon* 801B.

절들과 쓸데없는 것들을 빼 놓는다. 그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 부르는 그 분이 온다. 그는 우리에게 그의 인간적 삶을 주시하길 요청하고 그런 결함과 왜곡이 없이 그 삶을 보길 요청한다. (중략) 그분이 우리보다 덜 인간적인 분이라는 점이 아닌 그분이 진짜 진리 안에서 사람이라는 점에서 우리를 능가하신다.³⁶⁾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본성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기억을 되찾게 한다. 에리우게나가 말하듯이 그는 ‘우리의 현신이다.’³⁷⁾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보여준다. 우리 자신이 뒤집어 쓴 허위로부터 또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규정한 결함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참된 표정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 우리와 함께 잉태된 영원한 지혜와 아름다움을 지닌 자들로,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도는 인간성의 핵심으로 인도하지만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분리하는 형태로 인도 하지는 않는다. 19세기 서구 그리스도교는 더욱 더 많은 종파들로 세분화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서구 그리스도교 그 자신을 남아있는 인간성을 넘어서고 인간성에 저항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을 때, 켈틱 전통은 모든 사람들의 핵심에 있는 일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청하였다. 남아있는 인간성으로부터 분리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로마 가톨릭 신자 또는 영국 가톨릭 신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보다는, 인간성의 핵심에 있는 것의 진리를 그리스도가 계시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간적 가톨릭 신자들’로 부르자고 알렉산더 스콧이 말했다.³⁸⁾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는 우리가 대략 우리 자신들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성 안에 결함들과 결점들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성서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것 또는 우리의 영혼이 잊어버린 것을 말한다. 우리 삶의 결점들보다 더 깊이 있는 것은 우리 본성의 축복이다. 우리가 재연결 되라고 요청받는 것이 그 축복이다.

펠라기우스는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해 가르침을 받는’ 것에 대해 말한다.³⁹⁾

36) Scott, *Lectures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pp. 76-77.

37) Eriugena, *Periphyseon* 1003C.

38) Scott, *The social Systems of the Present Day*, p. 375.

39) Pelagius, ‘to Demetrias’, in *The Letters of Pelagius and his Followers*, p.45.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사랑과 영원한 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의식적으로 느껴지지 않거나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을 때조차 그것들은 우리 인간 본성 안에 깊은 곳에 있다고 계시한다. 켈틱 전통은 그리스도의 직무 중에 계시하는 본성을 강조한다. 그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자아와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해방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서구 전통의 이해 안에서 만연한 예수의 대리 보속 모델과는 현저하게 다른 것이다. 켈틱 전통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의 대리적인 본성보다는 계시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반면, 희생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도 그에 못지않게 강조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느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계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자기를 내어줌 안에서 보여진다. 그것 때문에 그의 죽음이 대가를 적게 치르거나 덜 구원적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아니다.

진리의 빛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행했던 잘못들을 보기 때문에 계시에 관해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심판에 대한 경험이다. 에리우게나는 심판을 외부적인 의식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빛에 의해 비춰지는 우리의 양심으로 이해한다. 최후의 심판에 관해서조차, 에리우게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그분(하느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공간을 통해 움직인다는 의미로 이것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중략) 그러나 선과 악인 각각의 사람들은 그들이 자유롭게 될 때, 그 자신과 그 자신의 양심 안에서 그분의 오심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느님은 어둠의 감춰진 장소를 폭로 할 것이며, 각각의 사람들은 그 자신의 행동들과 생각에 관해 판단하게 될 것이다.⁴⁰⁾

진리에 대한 내면의 경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힘을 가졌는데, 이것은 단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들뿐만 아니라 보다 깊은 곳에 고요히 있는 아름다움과 선함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참회를 통해 회복되도록' 우리를 움직인다고 펠라기우스는 말한다.⁴¹⁾ 참회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

40) Eriugena, *Periphyseon* 997B.

가 되기보다 참된 우리 자신이 되는 것으로 돌아선다.

조지 맥도날드는 그의 소설 「릴리스」에서 우리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행으로서 회개에 관해 강렬한 그림을 그렸다. 릴리스 공주는 그녀의 진정한 본성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그녀는 악에 의해 노예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녀의 옆구리에는 그녀가 회개할 때까지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있었다. 그 상처는 진리에 취약한 지점이다.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잘라내기 위해 우리 심장을 찌르는 히브리인들의 ‘양날의 검’과 같이,⁴²⁾ 릴리스의 상처는 맥도날드가 ‘본질적인 불의 살아있는 심장⁴³⁾’이라고 부르는 ‘백열(白熱)의’ 뱀에 의해 찔렸다. 그것은 ‘관절과 뱀속을 통해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꿰뚫는다. 그것이 그녀 마음 속 비밀의 방을 찌를 때, 공주는 그녀가 행해왔던 것을 보는 한편 고통으로 몸부림친다. 결국에 그녀 안에서 진실인 것으로부터 잘못이라는 것을 잘라내는데 사용되는 그 검을 ‘치유’의 검이라고 맥도날드는 말한다.⁴⁴⁾

에리우게나는 ‘진리인 모든 것은 완전하게 파괴되지 않는다’고 말한다.⁴⁵⁾ 그러므로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것은 어떤 것이든 비난받지 않겠지만 하느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 즉, 우리의 죄와 잘못만은 비난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하느님에 의해 본질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본질도 거절되지 않는 [세상 종말에] 큰 축제가 열릴 것이고, 축하될 것이다. 그리고 사악함은 하느님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의 사악함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죄가 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악덕은 추려내질 것이고 우리의 본질인 곡식은 저장될 것이며, 죄인 그루터기는 거룩한 심판의 불로 태워질 것이고, 어둠 안에 감춰진 장소들은 밝게 비춰질 것이고, 하느님은 모든 것 안에 있는 모든 것처럼 보일 것이다.⁴⁶⁾

41) Pelagius, ‘to Demetrias’, in *The Letters of Pelagius and his Followers*, p.54.

42) Hebrews 4:12

43) MacDonald, *Lilith*, p. 201.

44) MacDonald, *Lilith*, p. 219.

45) Eriugena, *Periphyseon* 956C.

46) Eriugena, *Periphyseon* 1016A.

심지어 악마의 본질조차 빛의 천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에리우게나는 말한다. 인류와 마찬가지로, 악마도 그의 참된 본성을 배신하는 한 그는 그저 악일뿐이다.

은총의 선물을 동반하는 회개는 우리를 우리 인간 본성의 안녕으로 회복시킨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심어진 욕구들의 기억들을 포괄한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하느님을 향한 욕구이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욕구 충족을 위한 우리의 탐색은 우리를 모든 종류의 혼돈과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끌 수도 있다. 하지만 하느님을 향한 욕구는 지워지지 않았다. 우리가 가장 끔찍한 죄들과 사악함들 가운데 있을 때조차, 같은 순간 우리가 무엇을 욕구하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하느님을 욕구하고 있다고 에리우게나는 말한다.⁴⁷⁾ 그 욕구는 사랑을 향한 것이고, 그 사랑은 세상 시작에 그리고 모든 생명의 핵심에 있다. 조지 맥도날드가 말하듯이, ‘미움이 아닌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 존재를 사랑하는 것 안 가장 깊은 곳에 있다.’⁴⁸⁾ 켈틱 전통에서 구원의 희망은 그 욕구를 다시 일깨우는 것이다.

묵상하기

묵상은 우리 내면에서 하느님의 모상에 관한 깨달음을 성장시키는 방식이다.

혼자이든지, 다른 이들과 함께 있든지 간에 적당한 자세와 적당한 위치를 잡아서 묵상을 시작하라. 성서와 인간성의 신비에 대해 묵상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거나 만들어내라.

조용하게 시편 8장에서 나온 구절들을 반복하라, ‘내가 위엄으로 당신에게 왕관을 씌웠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존엄의 이미지들과 기억들이 여러분 자신 안에 상기되도록 하라.

만약에 여러분의 호흡을 반복적인 리듬에 맞추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날숨일

47) Eriugena, *Periphyseon* 919A.

48) MacDonald, *Lilith*, p. 94.

때 ‘내가 위엄으로 당신에 왕관을 씌웠다’는 구절을 되뇌도록 하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 머리의 왕관이 확장됨을 느껴라. 묵상 기도 중에 우리는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그분께 귀 기울이고 있음을 인식하라. 확신에 찬 이런 구절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 구절들에 여러분 자신을 열어라. ‘내가 위엄으로 당신에게 왕관을 씌웠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숨일 때 고요히 있고, 창조된 여러분 모상의 존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다시 새롭게 됨을 받아들여라. 명상에 잠겨 15분간 그 구절을 반복하라.

15분간의 묵상 후에, 조용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를 읊조리기 시작하라. 여러분과 세상의 남성들과 여성들과 연결하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욕구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존경과 존엄에 대한 갈망을 용인하라. 더불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5분간의 침묵 후에 주의 기도문이나 다른 기도문으로 마무리하라.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이들과 묵상중이라면, 여러분이 침묵 중에 경험한 것들 일부를 함께 나누도록 하라. 이 시간은 당신이 당신 자신 안에서 그리고 다른 이 들 안에서 들은 것에 관해 귀 기울이고 숙고하는 시간이다.

일곱째 날 : 하느님의 고요.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새로 지으시고 이렛날에는 쉬시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창세기 2장 3절)

일곱째 날의 이야기는 하느님의 쉼을 가리킨다. 이것은 둘째 날의 야생의 창조적인 에너지의 반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의 창조력의 다른 차원을 계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언급했듯이, 창세기의 일곱째 날은 먼 옛날 우주 출현에 관한 연대기적 기술이 아니고, 항상 존재하는 창조 신비에 관한 묵상이다. 창조의 생명은 하느님의 현현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분에 대한 가시적인 표현이고, 지식을 넘어서는 그분에 관한 이해할 수 있는 표식이다. 첫째 날이 항상 생명의 핵심에 있는 빛을 가리키는 것처럼, 일곱째 날은 하느님의 계속되는 창조의 일부로서 고요를 반영한다.

이것은 창조의 전체를 엮는 우리가 발견한 패턴이다. 밤은 낮에 이어 따라오고, 깨어남에 이어 잠들이 온다. 비슷하게 계절의 순환에 있어 겨울의 대지와 고요는 봄의 에너지와 꽃에 이어 따라온다. 겹쳐지는 시간은 겹쳐지지 않는 시기와 관련이 있다. 대지의 휴경은 대지 순환의 결실과 풍부함의 일부이다. 그 하나는 그 다른 한편이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생명에 관한 창조의 외형적 풍부함은 휴식과 재생에 관한 그것의 내면적 능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알렉산더 스콧이 말하듯이 성장으로 확장되고, 숲의 새로운 층으로 형성되는 오크나무는 동시에 '핵심을 향한 오크나무의 울림을' 집중시키고 '강화하고' 있다.¹⁾ 그래서 창조력은 고요와 관련이 깊다.

에리우게나는 대지 안에 있는 '씨앗의 힘'에 대해 말한다.²⁾ 이것은 식물 생명의 부분이고 동물 생명의 부분일 뿐만 아니라 인간 생명의 부분이기도 하다. 씨앗의 감춰진 에너지는 상대적인 고요의 시기를 넘어 준비 됐지만, 그 씨앗의 표현은 보다 짧은 기간에 갑자기 터져 나옴이다. 이것들은 제시간에 좀 더 많은 씨

1) A.J.Scott, 'Social System', *The Woolwich Gazette*, 2 January 1841.

2) Eriugena, *Periphyseon* 704D.

앗이 생산되도록 재생하는 휴식의 간극에 뒤이어 따라온다. 휴식과 생산의 주기 없이는, 생명에 관한 대지의 순환은 붕괴될 것이다.

창조에 관한 창세기의 서술에서는 각각의 날 마지막에 후렴이 나온다. 창세기는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고 말한다. 낮은 밤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보인다. 낮 시간의 에너지와 창조력은 어두운 고요와 밤의 휴식으로부터 나온다. 조지 맥도날드가 말하듯이 ‘그 날은 잠으로 시작한다.’³⁾ 우리가 만약 그날 창조적이어야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을 밤의 침묵에 잠기도록 해야 한다.

휴식과 창조의 패턴이 하느님의 본성의 일부가 된 것처럼 보이므로, 이런 조합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 본성이라는 천에 누벼진 것이다. 우리가 휴식과 창조의 상호 보완적인 리듬에서 결별하는 만큼, 바로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그리고 우리의 관계들 안에서 안녕의 패턴으로부터 멀어진다. 만약에 우리가 고요와 휴식의 규칙적인 실천을 지키는데 실패한다면 우리의 창조력은 고갈되거나 피상적이 될 것이다. 우리의 표정은 원기를 회복시키는 고요의 깊이에 의해서 지속되는 생생한 창조적 에너지의 활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지거나 부산해질 것이다. 개별적으로 그러한 만큼 집단적으로도 틀림없이 그러하고, 인간의 창조력에 적용되는 만큼 지구의 비옥함에도 적용된다. 휴식 없는 창조력과 재생 없는 생산력은 내면적 자원의 소모를 불러온다.

우리 모두는 휴식과 창조적 에너지의 통합을 동반하는 안녕의 인식을 경험해 왔다. 밤에 잘 자면, 우리는 그로부터 원기회복 뿐만 아니라 치유의 힘도 알게 된다.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의 기억처럼 아주 오래된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하면서도 격렬한 육체적 활동의 하루를 보낸 후에 침대에 몸을 내던지는 것에 관한 유익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창조의 선물 안 깊숙한 곳에는 생명의 에너지들이 솟아오름과 갱신됨 사이에서 관계의 패턴이 있다. 이것은 육체와 영혼의 깊은 휴식에 이어 따라오는 열정적인 사랑의 선함과 비슷하다.

켈틱 전통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문들 중 일부는 밤의 축복 기도이다. 삼위 일체를 친숙하게 포괄하는 그 기도문들은 잠에 대한 승배를 드러낸다. 휴식은 대부분 성사적(聖事的) 용어로 여겨진다.

3) MacDonald, *Lilith*, p.29.

나는 이 밤에 하느님과 함께 누워있네,
하느님은 나와 함께 누울 것이네.
나는 이 밤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워있네,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누울 것이네.
나는 이 밤에 성령과 함께 누워있네,
성령은 나와 함께 누울 것이네.
하느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나와 함께 누워있네.⁴⁾

이 기도문은 쉬고 계시는 그분으로서 하느님에 대한 묘사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와 인격적 친밀감에 대한 인식이라는 측면에서도 혼치 않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타자성(他者性)에 대한 깨달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은 감상적인 경건함도 아니고, 그 전통이 알 수 없는 그 분을 과도하게 인격화하는 것도 아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고요함에 잠겨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창조계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신다. 우리 내면의 차원들이 다시 새로워진다. 에너지의 회복은 밤에 우리에게 주어진다.

잠자는 휴식이 재생적이어서, 우리는 잠 속에서 하느님의 방식에 참여한다. 우리는 내부에서 새로워지기 위하여 낮의 외면적 양식을 버릴 필요가 있다. 잠을 자고 있든지, 깨어 있든지 간에 고요함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기억하기 위해 한 차원을 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것은 한 아이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밖에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잔디위에 드러눕는 식이다. 단지 다른 생각을 놓아 버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순간의 경이로움에 충만히 빠져 들 수 있다. 공상에 대한 아이들의 능력에 있어서, 아이들은 역시 우리가 편안하게 비몽사몽간에 경험한 그 고요함에 대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이들이다. 「카르미나 가델리카」 전통은 ‘천사와 같은 내 휴식’에 대해서 말한다.⁵⁾ 이것은 휴식의 시간을 거룩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하느님의 메신저들로 둘러싸이고 보호받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고요함에서 드러날 수 있는 재생과 창조의 은총으로 바라본

4) *Carmina Gadelica*, III, p. 333.

5) *Carmina Gadelica*, III, p. 339.

다. 그런 방식으로 재생되는 능력은 단지 휴식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잠과 고요의 꿈들과 상상들을 통해서도 온다. 이런 것들로 돌아선다는 것은 생생한 관점들과 새로운 깨달음을 위해 우리를 휘저으며 우리 내면의 창조적 깊이에 우리 자신을 연다는 것이다.

헤브리디스를 여행하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에 관해 켈틱전통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섬 길을 가다가 그들은 우유 짜는 여자를 만났고, 마리아는 잠시 쉬려고 그녀에게 아이를 잠시만 맡아 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돌봐야 할 소가 10마리가 된다면서 거절한다. 그 길을 따라 조금 더 간 후에, 마리아는 아이를 잠시 맡아 주겠다고 하는 두 번째 우유 짜는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아기 예수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아기에게 그녀의 젖도 물렸다. 그녀는 처음의 우유 짜는 여자보다 두 배나 더 많은 소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의 시간으로 하루 일과를 마쳤고, 우유도 네 배나 더搾다! 이것은 휴식과 생산성 사이의 관계성을 가리키는 이야기이다. 고요와 분주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에 대한 혜택은 우리 삶에서 항상 그렇게 명백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조적 에너지가 잠과 고요에서부터 나오고, 에너지의 소멸은 쉬지 않음의 결과임을 알고 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창조적인 깊음으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들 내면에 있는 고요의 시간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시간이 창조적이고 예상 밖의 생각들로 가득한 상상이 최고로 넘쳐흐르는 때이다. 진정한 창조는 우리가 강제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종 우리로부터 창조력을 이끌어 낼, 요구되는 순간의 에너지와 자극이 그것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순간에 지쳐있거나 긴장해 있다면, 우리의 대응이 창의적이 될 것 같지 않다. 많은 위대한 과학적 발견들과 예술적 개념들과 같이, 우리의 가장 창조적인 문제 해결의 일부는 직접적으로 바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발생하지 않고, 놓아버림 안에서 발생한다. 종종 그때는 우리의 창조력이 가장 충만하게 깨어나도록 하거나 우리가 뒤로 물러설 때이다.

아일랜드의 관용구 ‘베개 정담’은 남자와 여자가 그들의 가족과 관계에 대한 관심사항을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그들 사이에서 밤에 일어 날 수 있는 나눔이 자

유로운 양식을 말한다. 침대에 함께 누워 그날 분주함의 압박과 긴장에서 벗어나, 그들은 그들 자신 안에 있는 창조력의 암시를 보다 더 순순히 받아들인다. 새로운 시작은 휴식과 사랑을 위한 공간을 만들도록 놓아두는 것에서부터 나온다.

자연은 고요와 창조의 양식을, 낮에 이어오는 밤의 양식을 그리고 풍부한 결실에 이어 오는 휴한의 양식을 우리에게 제공해왔다. 우리가 내내 켈틱 전통을 주목해 왔듯이, 은총은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진실로 본성적인 것의 회복으로 여긴다. 우리 자신 안에서든 다른 이들과의 관계와 창조 안에서든 간에, 만약 우리가 휴식과 창조력의 통합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안녕을 약화시키게 될 것 같다. 휴식의 부족은 본성의 선함을 파괴하는 것이다. 악과 같이, 그것은 창조하기보다는 오히려 파괴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생명력을 다시 세우기보다 에너지를 약화시킨다. 은총은 우리의 기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느님이 주신 우리의 아름다움과 활력을 지속시키고 해방시키는 가운데 휴식이 차지하는 그 장소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주어졌다.

그들은 육체적 휴식을 가지는 패턴들 못지않게 내면적 고요함이 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우리 내면이 편안하지 않을 때, 얼마나 긴지는 상관 없이, 밤잠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내면의 깊이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한다면 보다 깊은 휴식이 필요하다. 이것은 알렉산더 스콧이 ‘가지들’에서라기보다 ‘뿌리’에서 회복되어짐이라고 부르는 것이다.⁶⁾ 이것은 생명의 핵심에 있는 고요와 재연결됨이다.

부분적으로 묵상은 하느님의 고요로 재연결됨에 관한 것이다. 켈틱 전통 초기, 펠라기우스는 일상적인 묵상 실천에 관해 이야기 한다.

여러분이 하느님에게로 좀 더 완벽하게 자유롭고, 마치 극도의 긴장하는 정신적 집중을 위한 법규처럼 구속력이 있을 때, 고정되고 지정된 몇 시간이 있어야 한다. (중략) 매일 이 시간에는, 침실 문을 닫아 걸은 채 집의 아주 은밀한 공간에서 매일 기도를 드려라.(마태오 복음 6장6절). 여러분이 도시에 있을 때조차, 이 고독의 규칙에 여러분 자신

6) Scott, *The Social Systems of the Present Day*, p. 369.

을 종속시키고, 잠시 사람들과의 교제에서도 잠시 벗어나,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에게로 좀 더 친밀하게 함께하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가족이 보이는 곳으로 되돌아 갈 때, 그들에게 여러분의 독서와 기도의 결실들을 보여라.⁷⁾

펠라기우스는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지 않고, 우리를 생명 안에서 보다 깊은 관계로 강화하려고 의도했기 때문에, 이런 수련법을 우리 영혼의 ‘훈련하기’로 부른다. 명상 기도는 표면상으로 우리가 관계와 언약에 대한 우리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면에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 잠깐의 시간을 계속해서 할당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라. 마치 거대한 태풍을 피하여 항구로 가듯이 그리고 내면적 은둔의 평화 안에서 외부 생각들의 거센 파고를 진정시키듯이, 집안일의 시끄러움에서 살짝 벗어나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고 여러분 자신을 그 안에서 쉬게 하라. 거기에서 거룩한 독서에 관한 당신의 연구가 그렇게 항상 이뤄지도록 하고, 기도 중에 당신의 교대가 그렇게 자주 일어나도록 하라 (중략) 종업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주문으로 인해 여러분의 잔여 근무시간에 대해 모든 종업원들에게 보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중략) 또한 우리는 여러분의 가족으로부터 여러분을 떼어놓을 목적으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도는 그 곳에서 여러분의 친족들에게 보여 주어야 하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 당신이 배우거나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⁸⁾

그러나 켈틱 영성의 실천은 주로 묵상과 기도에 관해 따로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다. 활동 중에 하느님에 대한 인식에 관한 강조점이 다른 모든 것들과는 구별된다. 헤브리디스의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기도문들 중 일부는 노동과 하루 일과의 흐름 안에서 암송되었다. 예를 들어, 그날의 빛을 깨달을 때 그리고

7) Pelagius, ‘To Demetrias’, in *The Letters of Pelagius and his Followers*, p.61.

8) Pelagius, ‘To Celantia’, in *The Letters of Pelagius and his Followers*, p.140.

아침에 일어날 때 소리 내어 기도문들을 읊었다.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오 하느님, 저는 오늘 일어났습니다.
이 생명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은
아마도 당신의 영광일지도 모릅니다. 오 모든 선물의 하느님.
그리고 내 영혼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위대하신 하느님, 당신 자비의 도움으로,
당신이 저의 영혼을 도와 줍니다.
내가 양털로 내 몸을 감싸고 있을 때조차,
당신은 당신 날개의 그림자로 저의 영혼을 감쌌습니다.

모든 죄를 피하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모든 죄의 근원을 단념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안개가 언덕 마루위에서 흩어지듯이,
아마도 내 영혼에서 병들어 희부연 것을 깨끗이 하시는, 오 하느님.⁹⁾

마찬가지로, 아침 불을 준비할 때 기도문을 암송하거나 찬송하였다.

나는 이 아침에 나의 불에 불을 붙일 것이다.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의 현존 안에서 ...

그리고 그 불꽃이 타오르듯이, 그 기도는 지속될 것이다.

하느님, 저희의 마음에서 당신을 밝힙니다.
이웃을 위한 사랑의 불꽃 안에서,
내 적을 위한, 내 친구와 모든 내 일가친척들을 위한 ...
오 가장 사랑스러운 마리아의 아들이여,
살아있는 가장 낮은 이로부터,

9) *Carmina Gadelica*, III, p. 31.

모든 이들 중에 가장 높은 그 이름을 위하여.¹⁰⁾

보이고, 들리고 다루게 될 모든 것을 포함하여 그 날 하루 전체는 하느님을 위해 헌신한다.

저를 축복해주소서, 오 하느님,
내 눈이 보는 각각의 것들,
저를 축복해주소서, 오 하느님,
내 귀가 듣는 각각의 소리,
저를 축복해주소서, 오 하느님,
내 코로 맡는 각각의 냄새;
저를 축복해주소서, 오 하느님,
내 입술로 오는 각각의 맛,
내 노래로 오는 각각의 음,
내 길을 안내하는 각각의 빛,
내가 추구하는 각각의 것,
내 의지를 유혹하는 각각의 유혹,
내 살아있는 영혼을 추구하는 열의,
내 마음을 추구하는 세 가지,
내 살아있는 영혼을 추구하는 열의,
내 마음을 추구하는 세 가지¹¹⁾

켈틱 세계의 많은 영역에서 켈틱 전통을 억압했던 칼뱅주의와 달리, 켈틱 전통은 켈틱의 관점에서 안식일 엄수주의자가 아니다. 강조하는 것은 휴식을 위해 따로 만든 시간이나 매일 일상과 매일의 터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소위 말하는 '거룩한' 나날들과 '거룩한' 장소들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안에서 평화로운 인식의 형태를 장려한다. 이것은 분주함 가운데 관점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아침 일과 중에 태양의 빛

10) *Carmina Gadelica*, I, p. 233.

11) *Carmina Gadelica*, III, p. 33.

으로 또는 밤에 달의 신비로 바뀌게 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대지의 결실에서 하느님의 선함과 다른 이의 입술 위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케네스 화이트가 쓴 것처럼,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가 '영원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 관한 것이다.¹²⁾

아마 다른 무엇보다도 켈틱 전통의 죽음 기도문들 안에는 휴식의 재생하는 본성에 대한 인식 있다. 다시 한 번, 은총은 우리를 우리의 진정한 자아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오직 죽음의 고요만이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깊은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잠의 깊이를 성취할 것이다. 「카르미나 가델리카」는 죽음의 '치유하는 발삼(방향성 연고)' 또는 '내 영혼을 위해 필요한 연고'를 언급한다.

당신을 저에게 주소서, 오 하느님
앓을 매길 수 없는 오일의 죽음;
당신을 저에게 주소서, 오 하느님,
내 영혼의 치유자가 제 곁에 있음을;
당신을 저에게 주소서, 오 하느님,
기쁨과 평화의 죽음. ¹³⁾

추구되고 있는 것이 죽음을 통한 또는 기도문들 중 하나에서 말하듯이 '죽음이 없는 죽음'을 통한 생명이다.¹⁴⁾

조지 맥도날드는 그의 소설 릴리스에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잠을 자는 죽음의 주제에 관해 탐구한다. '어느 누구도 잠을 자지 않을 수 없고 항상 깨어있을 수 없다'고 그는 썼다.¹⁵⁾ 침대가 끝없이 놓여 있는 위대한 '죽음의 집'에서, 잠을 위해 요구된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자아들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 곳은 진리인 것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거짓인 것을 잊는 장소이다. 맥도날드는 릴리스의 잠은 길다, 왜냐하면 '그녀는 잊기에 바쁘기' 때문이

12) White, 'The House of Insight', in *The Bird Path*, p.146.

13) *Carmina Gadelica*, III, pp. 387-389.

14) *Carmina Gadelica*, III, p. 393.

15) MacDonald, *Lilith*, p.44.

라고 썼다.¹⁶⁾ 그녀의 구원의 휴식 중에, 그녀의 진정한 본성이 회복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꿈들은 그녀를 과거의 잘못에 대한 회개로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제야 공주는 그녀 원래의 아름다움을 다시 얻는다. 맥도날드는 휴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소위 ‘악마의 숲’이라는 장소를 묘사한다. 그는 ‘결코 자지 않을 사람들이 밤에 일어나 그들의 죽음을 죽이고 그들을 묻는 장소이다’라고 썼다.¹⁷⁾ 고요하게 있는 것을 거부하는 자기 파괴성을 반영하는 광기가 자주 출몰하는 곳이다.

죽음에 관한 잠은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물리서게 하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아주 핵심으로 또는 「카르미나 가텔리카」가 부르듯이 ‘계절들의 고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어졌다. 헤브리디스의 켈틱 전통에서 그러한 이미지는 사랑하는 이의 임종 때 찬송되는 기도문들로 사용되곤 했다.

그대여 이 밤에 집으로 가소서, 겨울 그대의 집으로,
가을의, 봄의 그리고 여름의 그대의 집으로
그대여 이 밤에 집으로 가소서, 그대의 영구한 집으로
영원한 그대의 침대로, 영원한 그대의 잠으로

잠드소서 그대여, 잠드소서, 그대의 슬픔을 멀리 두고,
잠드소서 그대여, 잠드소서, 그대의 슬픔을 멀리 두고,
잠드소서 그대여, 잠드소서, 그대의 슬픔을 멀리 두고,
잠드소서, 사랑하는 그대여, 교회의 반석 안에서.

잠드소서, 이 밤에 그대 어머니의 품안에서,
잠드소서, 사랑하는 그대여, 그녀 자신이 그대를 진정시키는 동안에
잠드소서, 이 밤에 처녀의 팔 위에서
잠드소서, 사랑하는 그대여, 그녀 자신이 그대에게 입맞춤을 하는 동안에

16) MacDonald, *Lilith*, p.242.

17) MacDonald, *Lilith*, p.44.

예수의 위대한 잠, 예수의 탁월한 잠,
예수 상처의 잠, 예수 비통의 잠,
예수의 짧은 잠, 예수의 회복시키는 잠,
평화와 영광이신 예수의 입맞춤의 잠.

일곱 빛들의 잠은 그대의 것, 사랑하는 이여.
일곱 기쁨들의 잠은 그대의 것, 사랑하는 이여.
일곱 잠들의 잠은 그대의 것, 사랑하는 이여.
축복의 예수의 팔 위에서, 은총의 그리스도여.

죽음의 그늘이 당신의 얼굴위에 드리워졌네, 사랑하는 이여.
그러나 은총의 예수는 그대 옆에서 그의 손을 뺏으시네.
삼위일체에 다가섬 속에서, 그대의 고통과 작별을 고하네,
그리스도는 그대 앞에 서있고, 평화는 그분의 마음 안에 있네.

잠드소서, 오 잠드소서, 모든 평온한 것들 가운데 평온 안에서
잠드소서, 오 잠드소서, 모범들 중의 모범 안에서
잠드소서, 오 잠드소서, 모든 사랑들 중에 사랑 안에서
잠드소서, 오 사랑하는 이여, 생명의 주님 안에서,
잠드소서, 오 사랑하는 이여, 생명의 하느님 안에서.¹⁸⁾

이런 기도문들은 ‘죽음 기도문들’로 알려진 반면, 그것들은 좀 더 온전하게 ‘생명 기도문들’이다. 생명 안에 있든지 죽음에 있든지 간에 좀 더 살아있기 위해서, 모든 생명 안에 있는 거룩한 생명을 좀 더 일깨우기 위해서 쉽스로 들어감을 이야기한다.

18) *Carmina Gadelica*, III, pp. 383-385.

묵상하기

묵상은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고요 안에서 새롭게 되는 방식이다.

집 밖이든 집 안이든 간에 적당한 자세와 적당한 위치를 찾아 묵상을 시작하라. 성서와 창조에 대해 묵상하는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거나 만들어내라.

조용하게 시편 46장에서 나온 구절들을 반복하라,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인 줄 알아라.’ 그와 동시에, 창조로부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생명으로부터 여러분 안에 상기 되는 고요에 관한 이미지와 기억들을 용인하라.

만약에 여러분의 호흡을 반복의 리듬에 맞추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날숨일 때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인 줄 알아라!’라는 구절을 말하도록 노력하라. 여러분의 몸이 확장됨을 느껴라. 묵상 기도 중에 우리는 생명의 핵심에서 고요함으로부터 말씀하시는 그분께 귀 기울여 들어야 함을 알아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들숨일 때 가만히 있고, 침묵 가운데 새롭게 됨을 깨달아라. 명상에 잠겨 15분간 그 구절을 반복하라.

15분간의 묵상 후에, 조용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를 표현하기 시작하라. 휴식을 통해서 새롭게 된 창조의 전체 안에 있는 욕구와 여러분을 연결하려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욕구를 용인하라. 특별히 재생력 있는 평화와 고요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5분간의 침묵 후에 주의 기도문이나 다른 기도문으로 마무리하라.

만약에 당신이 다른 이들과 묵상중이라면, 당신이 침묵 중에 경험한 것들 중 일부를 함께 나누도록 하라. 당신이 당신 자신 안에서 그리고 다른 이들 안에서 들은 것에 대해 듣고 숙고하는 시간이다.

역자 참고 문헌

켈틱 그리스도 : 창조세계의 치유, 존 필립 뉴엘, 장윤재 역, 대한기독교서회
(2013)

켈트 영성이야기, 존 필립 뉴엘, 정미현 역, 대한기독교서회(2003)